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4. 8

전용식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오승연 · 이상우 · 최 원

머 리 말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로 인해, 은행업의 경우에는 예대마진이 급격히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도 기존의 성장동력이었던 변액보험, 장기보험과 개인연금 수요가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게다가 인구구조의 변화는 금융상품 수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이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공급이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먼저 읽어내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금융당국의 보험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 및 정보가 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노후생활 및 연금에 대한 수요, 실손의료보험 현황, 부동산 및 금융자산 상황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 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8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강 호

■ 목차

요약 / 1

I. 조사의 개요 / 25

1. 조사의 목적 / 25
2. 주요 조사항목 / 26
3. 조사방법 / 29
4. 표본의 특성 / 30
5. 구분 기준 / 32

II. 생명보험 / 35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 35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 47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 65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 69

III. 손해보험 / 105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 105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 115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 133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 138
5. 자동차보험 / 156

IV. 생명 · 손해보험 공통 / 164

1.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 164
2. 금융역량 및 보험이해도 / 183
3. LTCI의 가입성향과 한계 요인 분석 / 199
4. 보험소비자의 은퇴자산 선택행위에 관한 분석 / 213

■ 목차

- 5.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인지 여부 / 221
- 6. 은퇴 이후 소득원에 대한 정보 / 224
- 7.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탁의향 / 226
- 8. 해약/효력 상실 해지 관련 질문 / 234
- 9. 개인정보 보호 / 239

| 부록 | 설문지 / 246

■ 표 차례

- 〈표 I -1〉 표본의 특성 / 30
- 〈표 II -1〉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 36
- 〈표 II -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 37
- 〈표 II -3〉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37
- 〈표 II -4〉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및 가입건수: 보험 종목별 / 38
- 〈표 II -5〉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결혼 여부별, 자녀수별 / 40
- 〈표 II -6〉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가구 소득별 / 41
- 〈표 II -7〉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 42
- 〈표 II -8〉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자녀수별 / 43
- 〈표 II -9〉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 43
- 〈표 II -10〉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44
- 〈표 II -11〉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 44
- 〈표 II -1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 45
- 〈표 II -13〉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 45
- 〈표 II -14〉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종목별 / 46
- 〈표 II -15〉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 47
- 〈표 II -16〉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48
- 〈표 II -17〉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48
- 〈표 II -18〉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49
- 〈표 II -19〉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49
- 〈표 II -20〉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49
- 〈표 II -21〉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50
- 〈표 II -22〉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 51
- 〈표 II -23〉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 51
- 〈표 II -24〉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51
- 〈표 II -25〉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52

■ 표 차례

- 〈표 II-26〉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52
- 〈표 II-27〉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53
- 〈표 II-28〉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53
- 〈표 II-29〉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54
- 〈표 II-30〉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 54
- 〈표 II-31〉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54
- 〈표 II-32〉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55
- 〈표 II-33〉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55
- 〈표 II-34〉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56
- 〈표 II-35〉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56
- 〈표 II-36〉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56
- 〈표 II-37〉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 57
- 〈표 II-38〉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57
- 〈표 II-39〉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57
- 〈표 II-40〉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58
- 〈표 II-41〉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58
- 〈표 II-42〉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59
- 〈표 II-43〉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59
- 〈표 II-44〉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 60
- 〈표 II-45〉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 60
- 〈표 II-46〉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61
- 〈표 II-47〉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61
- 〈표 II-48〉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62
- 〈표 II-49〉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62
- 〈표 II-50〉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62
- 〈표 II-51〉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 64

■ 표 차례

- 〈표 II-52〉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대면채널(복수응답) / 64
- 〈표 II-53〉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66
- 〈표 II-54〉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 66
- 〈표 II-55〉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성별, 결혼 여부별 / 67
- 〈표 II-56〉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별 / 68
- 〈표 II-57〉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직업별 / 68
- 〈표 II-58〉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가구 소득별 / 69
- 〈표 II-59〉 생명보험 보상 항목: 연령별 / 72
- 〈표 II-60〉 생명보험 보상 항목: 지역, 가구 소득별 / 73
- 〈표 II-61〉 보험금 지급 시 도움 여부: 특성별 / 74
- 〈표 II-62〉 보험금 지급 시 도움에 대한 만족도: 특성별 / 75
- 〈표 II-63〉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 77
- 〈표 II-64〉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78
- 〈표 II-65〉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 78
- 〈표 II-66〉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79
- 〈표 II-67〉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80
- 〈표 II-68〉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 80
- 〈표 II-69〉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81
- 〈표 II-70〉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81
- 〈표 II-71〉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 82
- 〈표 II-72〉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82
- 〈표 II-73〉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성별 / 84
- 〈표 II-74〉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연령별 / 84
- 〈표 II-75〉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85
- 〈표 II-76〉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직업별 / 85
- 〈표 II-77〉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학력별 / 86

■ 표 차례

- 〈표 II-78〉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86
- 〈표 II-79〉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거주 지역별 / 87
- 〈표 II-80〉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특성별 / 89
- 〈표 II-81〉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가격: 특성별 / 90
- 〈표 II-82〉 생명보험회사 변경 비의향 이유: 거주 지역별 / 91
- 〈표 II-83〉 생명보험회사 변경 비의향 이유: 연령별 / 91
- 〈표 II-84〉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학력별 / 92
- 〈표 II-85〉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상품 만족도 / 93
- 〈표 II-86〉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성별 / 94
- 〈표 II-87〉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연령별 / 94
- 〈표 II-88〉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거주 지역별 / 95
- 〈표 II-89〉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직업별 / 95
- 〈표 II-90〉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학력별 / 96
- 〈표 II-91〉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가구 소득별 / 96
- 〈표 II-92〉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성별 / 98
- 〈표 II-93〉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연령별 / 98
- 〈표 II-94〉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거주 지역별 / 99
- 〈표 II-95〉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직업별 / 99
- 〈표 II-96〉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 99
- 〈표 II-97〉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 100
- 〈표 II-98〉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성별 / 101
- 〈표 II-99〉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연령별 / 102
- 〈표 II-100〉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거주 지역별 / 103
- 〈표 II-101〉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직업별 / 103
- 〈표 II-102〉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학력별 / 104
- 〈표 III-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 105

■ 표 차례

- 〈표 Ⅲ-2〉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 106
- 〈표 Ⅲ-3〉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 107
- 〈표 Ⅲ-4〉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 107
- 〈표 Ⅲ-5〉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및 가입건수: 종목별 / 108
- 〈표 Ⅲ-6〉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연령, 결혼 여부, 가구 소득별 / 110
- 〈표 Ⅲ-7〉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 111
- 〈표 Ⅲ-8〉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 111
- 〈표 Ⅲ-9〉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112
- 〈표 Ⅲ-10〉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 112
- 〈표 Ⅲ-11〉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 113
- 〈표 Ⅲ-1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 113
- 〈표 Ⅲ-13〉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종목별 / 114
- 〈표 Ⅲ-14〉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 115
- 〈표 Ⅲ-15〉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116
- 〈표 Ⅲ-16〉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116
- 〈표 Ⅲ-17〉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117
- 〈표 Ⅲ-1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117
- 〈표 Ⅲ-19〉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117
- 〈표 Ⅲ-20〉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118
- 〈표 Ⅲ-21〉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보험 종목별 / 119
- 〈표 Ⅲ-22〉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119
- 〈표 Ⅲ-23〉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120
- 〈표 Ⅲ-24〉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120
- 〈표 Ⅲ-25〉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120
- 〈표 Ⅲ-26〉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121
- 〈표 Ⅲ-27〉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121

■ 표 차례

- 〈표 Ⅲ-28〉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122
- 〈표 Ⅲ-29〉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122
- 〈표 Ⅲ-30〉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122
- 〈표 Ⅲ-31〉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123
- 〈표 Ⅲ-32〉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123
- 〈표 Ⅲ-33〉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124
- 〈표 Ⅲ-34〉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124
- 〈표 Ⅲ-35〉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125
- 〈표 Ⅲ-36〉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125
- 〈표 Ⅲ-37〉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 126
- 〈표 Ⅲ-38〉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결혼 여부별 / 126
- 〈표 Ⅲ-39〉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127
- 〈표 Ⅲ-40〉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127
- 〈표 Ⅲ-41〉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128
- 〈표 Ⅲ-42〉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128
- 〈표 Ⅲ-43〉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 129
- 〈표 Ⅲ-44〉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129
- 〈표 Ⅲ-45〉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 131
- 〈표 Ⅲ-46〉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대면채널(복수응답) / 132
- 〈표 Ⅲ-47〉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직판채널(복수응답) / 132
- 〈표 Ⅲ-48〉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134
- 〈표 Ⅲ-49〉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 134
- 〈표 Ⅲ-50〉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 및 소득별 / 135
- 〈표 Ⅲ-51〉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성별, 결혼 여부별 / 135
- 〈표 Ⅲ-52〉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별 / 136
- 〈표 Ⅲ-53〉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거주 지역별 / 136

■ 표 차례

- 〈표 Ⅲ-54〉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직업별 / 137
- 〈표 Ⅲ-5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가구 소득별 / 137
- 〈표 Ⅲ-56〉 손해보험 보상 위험: 연령별 / 140
- 〈표 Ⅲ-57〉 손해보험 보상 위험: 직업별 / 140
- 〈표 Ⅲ-58〉 손해보험 보상 위험: 거주 지역별, 가구 소득별 / 141
- 〈표 Ⅲ-59〉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 142
- 〈표 Ⅲ-60〉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143
- 〈표 Ⅲ-61〉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143
- 〈표 Ⅲ-62〉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학력별 / 144
- 〈표 Ⅲ-63〉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가구 소득별 / 144
- 〈표 Ⅲ-64〉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채널별 / 145
- 〈표 Ⅲ-65〉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성별 / 146
- 〈표 Ⅲ-66〉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연령별 / 147
- 〈표 Ⅲ-67〉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147
- 〈표 Ⅲ-68〉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직업별 / 147
- 〈표 Ⅲ-69〉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학력별 / 148
- 〈표 Ⅲ-70〉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148
- 〈표 Ⅲ-71〉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만족도 / 149
- 〈표 Ⅲ-72〉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성별 / 150
- 〈표 Ⅲ-73〉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연령별 / 150
- 〈표 Ⅲ-74〉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거주 지역별 / 150
- 〈표 Ⅲ-75〉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직업별 / 151
- 〈표 Ⅲ-76〉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학력별 / 151
- 〈표 Ⅲ-77〉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가구 소득별 / 151
- 〈표 Ⅲ-78〉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성별 / 153
- 〈표 Ⅲ-79〉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연령별 / 153

■ 표 차례

- 〈표 Ⅲ-80〉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거주 지역별 / 154
- 〈표 Ⅲ-81〉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직업별 / 154
- 〈표 Ⅲ-82〉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학력별 / 155
- 〈표 Ⅲ-83〉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가구 소득별 / 155
- 〈표 Ⅲ-84〉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성별 / 157
- 〈표 Ⅲ-85〉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거주 지역별 / 157
- 〈표 Ⅲ-86〉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 158
- 〈표 Ⅲ-87〉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 158
- 〈표 Ⅲ-88〉 자동차 보험료의 적정 여부: 연령별 / 160
- 〈표 Ⅲ-89〉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 가격 / 160
- 〈표 Ⅲ-90〉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 특성별 / 162
- 〈표 Ⅲ-91〉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특성별 / 162
- 〈표 Ⅲ-92〉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 거부 의향 여부 / 163
- 〈표 Ⅳ-1〉 현재 건강상태 / 165
- 〈표 Ⅳ-2〉 향후 부모님을 부양할 의향 / 166
- 〈표 Ⅳ-3〉 은퇴 후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을 의향 / 168
- 〈표 Ⅳ-4〉 향후 자녀로부터 용돈 및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의 필요성 / 169
- 〈표 Ⅳ-5〉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 171
- 〈표 Ⅳ-6〉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한 금융상품 / 172
- 〈표 Ⅳ-7〉 본인의 노후준비 평가 / 173
- 〈표 Ⅳ-8〉 노후준비 부족의 원인 / 174
- 〈표 Ⅳ-9〉 노후생활 보장 연금 납입 보험료 / 175
- 〈표 Ⅳ-10〉 사적연금 가입 금융기관 / 176
- 〈표 Ⅳ-11〉 공·사연금 만족도 점수 / 177
- 〈표 Ⅳ-12〉 국민연금의 만족도 / 178
- 〈표 Ⅳ-13〉 직장의 퇴직금(연금)제도의 만족도 / 179

■ 표 차례

- 〈표 IV-14〉 개인연금보험 · 연금저축 · 연금 · 신탁의 만족도 / 180
- 〈표 IV-15〉 국민연금에 불만족하는 이유 / 180
- 〈표 IV-16〉 향후 퇴직연금 가입할 종류 / 181
- 〈표 IV-17〉 향후 적립금 운용계획 / 182
- 〈표 IV-18〉 이자율에 대한 이해도 / 184
- 〈표 IV-19〉 물가상승률에 대한 이해도 / 185
- 〈표 IV-20〉 위험분산에 대한 이해도(1) / 186
- 〈표 IV-21〉 위험분산에 대한 이해도(2) / 187
- 〈표 IV-22〉 리스크 및 평균수익에 대한 이해도 / 188
- 〈표 IV-23〉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대한 판단 / 189
- 〈표 IV-24〉 보험 관련 이해도 / 190
- 〈표 IV-25〉 변액보험상품 예금자 보호 여부에 대한 인지도 / 190
- 〈표 IV-26〉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액에 대한 인지도 / 191
- 〈표 IV-27〉 청약철회와 보험료 환급에 대한 인지도 / 192
- 〈표 IV-28〉 만기 시 위험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인지도 / 193
- 〈표 IV-29〉 해지된 보험계약 부활 가능 여부에 대한 인지도 / 194
- 〈표 IV-30〉 공시이율과 만기 보험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인지도 / 194
- 〈표 IV-31〉 보험료지수와 가격비교 / 195
- 〈표 IV-32〉 재무관리 성향 / 196
- 〈표 IV-33〉 재무관리성향: 비용 지불능력 고려 / 196
- 〈표 IV-34〉 재무관리성향: 청구서 기한 내 납부 / 197
- 〈표 IV-35〉 재무관리성향: 장기 재무목표 / 198
- 〈표 IV-36〉 재무관리성향: 예산의 계획성 / 199
- 〈표 IV-37〉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 가입 의향 / 200
- 〈표 IV-38〉 현물서비스 급부상품 출시 이용 의향 여부 / 201
- 〈표 IV-39〉 간병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이유 / 202

■ 표 차례

- 〈표 IV-40〉 간병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 / 203
- 〈표 IV-41〉 간병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연령별, 성별 / 204
- 〈표 IV-42〉 간병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직업별 / 204
- 〈표 IV-43〉 간병비를 지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고려사항 / 205
- 〈표 IV-44〉 본인의 고려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 205
- 〈표 IV-45〉 본인의 고려사항: 민영 간병보험에 가입 / 206
- 〈표 IV-46〉 본인의 고려사항: 은퇴 재무 설계사와 상의 / 207
- 〈표 IV-47〉 본인의 고려사항: 보험설계사와 상의 / 207
- 〈표 IV-48〉 본인의 고려사항: 자식이나 지인들과 상의 / 208
- 〈표 IV-49〉 본인의 고려사항: 본인 스스로 정보 수집 / 209
- 〈표 IV-50〉 본인의 고려사항: 보유 주택을 매각 / 209
- 〈표 IV-51〉 본인의 고려사항: 장기요양시설에 입주 / 210
- 〈표 IV-52〉 간병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연령별, 성별 / 211
- 〈표 IV-53〉 간병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직업별 / 211
- 〈표 IV-54〉 간병보험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형태 / 212
- 〈표 IV-55〉 노후소득의 현재 소득 대비 적정 비율 / 214
- 〈표 IV-56〉 현재 저축액 / 215
- 〈표 IV-57〉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노후소득의 마련비율 / 216
- 〈표 IV-5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거주형태와 금액 / 217
- 〈표 IV-59〉 본인 소유의 주택 여부 / 217
- 〈표 IV-60〉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 주택 보유 여부 / 218
- 〈표 IV-61〉 은퇴 후,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 218
- 〈표 IV-62〉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의 규모 / 219
- 〈표 IV-63〉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의 거주형태 / 220
- 〈표 IV-64〉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 221
- 〈표 IV-65〉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 시 받을 세제혜택에 대한 견해 / 222

■ 표 차례

- 〈표 IV-66〉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증액/감액 고려 여부 / 223
- 〈표 IV-67〉 퇴직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 224
- 〈표 IV-68〉 개인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 225
- 〈표 IV-69〉 현재 보유중인 자산 구성의 은퇴 대비 적절성 / 226
- 〈표 IV-70〉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의향 여부 / 227
- 〈표 IV-71〉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형태: 연령별 / 228
- 〈표 IV-72〉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형태: 성별 / 229
- 〈표 IV-73〉 금융기관, 전문가에 도움을 받을 금융기관의 형태 / 230
- 〈표 IV-74〉 금융기관, 전문가에 도움을 받을 금융기관에 대해 선택한 이유 / 231
- 〈표 IV-75〉 직접 자산관리를 할 계획인 이유: 연령별 / 232
- 〈표 IV-76〉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형태: 성별 / 232
- 〈표 IV-77〉 금융기관, 전문가에 도움을 받을 금융기관의 형태 / 233
- 〈표 IV-78〉 3년 이내 보험 상품 해약/효력 상실 해지 경험 여부 / 234
- 〈표 IV-79〉 3년 이내 보험 상품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상품의 종류와 규모 / 235
- 〈표 IV-80〉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보험 상품 비율: 생명보험 / 235
- 〈표 IV-81〉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보험 상품의 계약 유지기간 / 236
- 〈표 IV-82〉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사유: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 236
- 〈표 IV-83〉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사유: 종신보험 / 237
- 〈표 IV-84〉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보험 상품 비율: 손해보험 / 237
- 〈표 IV-85〉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보험 상품의 계약 유지기간 / 238
- 〈표 IV-86〉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사유: 장기손해건강보험 / 238
- 〈표 IV-87〉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 / 240
- 〈표 IV-88〉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 수준 / 241
- 〈표 IV-89〉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강화 필요성 / 242
- 〈표 IV-90〉 보험 상품의 개인정보 제공수준과 타 금융기관과 차별성 / 243
- 〈표 IV-91〉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필요성 / 244
- 〈표 IV-92〉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구매의향 / 245

■ 그림 차례

- 〈그림 I -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 25
- 〈그림 II -1〉 2014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 36
- 〈그림 II -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 39
- 〈그림 II -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 41
- 〈그림 II -4〉 생명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 63
- 〈그림 II -5〉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65
- 〈그림 II -6〉 생명보험 보상 경험 / 69
- 〈그림 II -7〉 생명보험 보상 항목(복수응답) / 70
- 〈그림 II -8〉 보험금 지급 시 도움 여부 / 70
- 〈그림 II -9〉 보험금 지급 시 도움에 대한 만족도 / 71
- 〈그림 II -10〉 생명보험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 76
- 〈그림 II -11〉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83
- 〈그림 II -12〉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 87
- 〈그림 II -13〉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가격 / 88
- 〈그림 II -14〉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 88
- 〈그림 II -15〉 생명보험 종목별 만족도 / 93
- 〈그림 II -16〉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97
- 〈그림 II -17〉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101
- 〈그림 III -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추이 / 106
- 〈그림 III -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 109
- 〈그림 III -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 110
- 〈그림 III -4〉 손해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 130
- 〈그림 III -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133
- 〈그림 III -6〉 손해보험 보상 경험 / 138
- 〈그림 III -7〉 손해보험 보상 항목(복수응답) / 139
- 〈그림 III -8〉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 142

■ 그림 차례

- 〈그림 Ⅲ-9〉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46
- 〈그림 Ⅲ-10〉 손해보험 종목별 만족도 / 149
- 〈그림 Ⅲ-11〉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1순위 기준) / 152
- 〈그림 Ⅲ-12〉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 156
- 〈그림 Ⅲ-13〉 연간 자동차 보험료 / 159
- 〈그림 Ⅲ-14〉 자동차 보험료의 적정 여부 / 159
- 〈그림 Ⅲ-15〉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 / 160
- 〈그림 Ⅲ-16〉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비의향 이유(1순위) / 161
- 〈그림 Ⅲ-17〉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 거부 의향 여부 / 163
- 〈그림 IV-1〉 현재 건강상태 / 164
- 〈그림 IV-2〉 향후 부모님을 부양할 의향 / 166
- 〈그림 IV-3〉 은퇴 후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을 의향 / 167
- 〈그림 IV-4〉 향후 자녀로부터 용돈 및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의 필요성 / 168
- 〈그림 IV-5〉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 170
- 〈그림 IV-6〉 본인의 노후준비 평가 / 172
- 〈그림 IV-7〉 노후생활 보장 연금 가입 여부 / 174
- 〈그림 IV-8〉 노후생활 보장 연금 가입자: 응답자 기준 / 175
- 〈그림 IV-9〉 국민연금의 만족도 / 177
- 〈그림 IV-10〉 직장의 퇴직금(연금)제도의 만족도 / 178
- 〈그림 IV-11〉 개인연금보험 · 연금저축 · 연금 · 신탁의 만족도 / 179
- 〈그림 IV-12〉 향후 퇴직연금 가입할 종류 / 181
- 〈그림 IV-13〉 향후 적립금 운용계획 / 182
- 〈그림 IV-14〉 이자율에 대한 이해도 / 183
- 〈그림 IV-15〉 물가상승률에 대한 이해도 / 184
- 〈그림 IV-16〉 위험분산에 대한 이해도(1) / 185
- 〈그림 IV-17〉 위험분산에 대한 이해도(2) / 186

■ 그림 차례

- 〈그림 IV-18〉 리스크 및 평균수익에 대한 이해도 / 187
- 〈그림 IV-19〉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대한 판단 / 188
- 〈그림 IV-20〉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 가입 의향 / 200
- 〈그림 IV-21〉 현물서비스 급부상품 출시 이용 의향 여부 / 200
- 〈그림 IV-22〉 간병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이유 / 201
- 〈그림 IV-23〉 간병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 / 202
- 〈그림 IV-24〉 간병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 203
- 〈그림 IV-25〉 간병보험에 가입 적정 시기 / 210
- 〈그림 IV-26〉 간병보험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형태 / 211
- 〈그림 IV-27〉 간병보험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형태의 우선순위 / 212
- 〈그림 IV-28〉 노후소득의 현재 소득 대비 적정 비율 / 213
- 〈그림 IV-29〉 현재 저축액 / 214
- 〈그림 IV-30〉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노후소득의 마련비율 / 215
- 〈그림 IV-3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거주형태와 금액 / 216
- 〈그림 IV-32〉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의 규모 / 219
- 〈그림 IV-33〉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의 거주형태 / 220
- 〈그림 IV-34〉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 221
- 〈그림 IV-35〉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 시 받을 세제혜택에 대한 견해 / 222
- 〈그림 IV-36〉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증액/감액 고려 여부 / 223
- 〈그림 IV-37〉 퇴직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 224
- 〈그림 IV-38〉 개인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 225
- 〈그림 IV-39〉 현재 보유중인 자산 구성의 은퇴 대비 적절성 / 226
- 〈그림 IV-40〉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의향 여부 / 227
- 〈그림 IV-41〉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형태 / 228
- 〈그림 IV-42〉 금융기관, 전문가에 도움을 받을 금융기관의 형태 / 229
- 〈그림 IV-43〉 금융기관, 전문가에 도움을 받을 금융기관에 대해 선택한 이유 / 230

■ 그림 차례

- 〈그림 IV-44〉 직접 자산관리를 할 계획인 이유 / 231
- 〈그림 IV-45〉 본인의 투자성향 / 233
- 〈그림 IV-46〉 3년 이내 보험 상품 해약/효력 상실 해지 경험 여부 / 234
- 〈그림 IV-47〉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 / 239
- 〈그림 IV-48〉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 수준 / 240
- 〈그림 IV-49〉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강화 필요성 / 241
- 〈그림 IV-50〉 보험 상품의 개인정보 제공수준과 타 금융기관과 차별성 / 242
- 〈그림 IV-51〉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필요성 / 244
- 〈그림 IV-52〉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구매의향 / 245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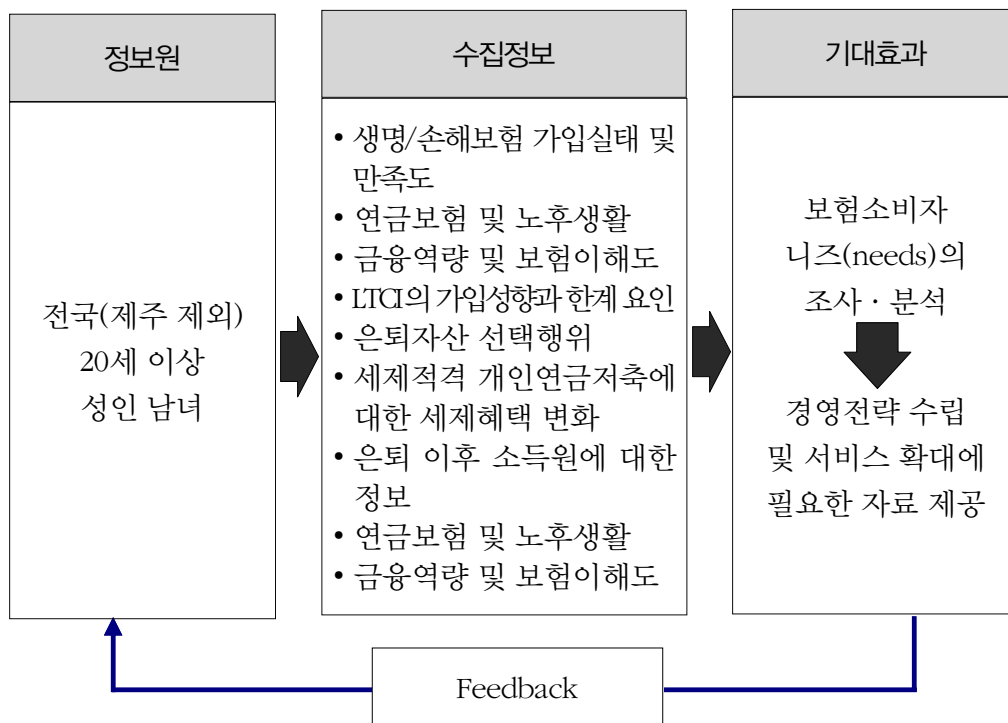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실태, 판매채널, 보험가입 의향 등 보험수요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최근 인구 고령화, 소비자 보호 강화, 그리고 보험회사 건전성 강화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요약 그림 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2.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크기 : 총 1,200명(유효표본)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
- 표본추출방법 : 거주 지역, 성, 연령,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행정안전부, 2014년 3월 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 기준
- 최대 허용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83\%$
- 조사기간 : 2014년 4월 20일 ~ 5월 15일(약 1개월)
-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센터

3. 주요 조사항목

- 본 조사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실태와 만족도, 그리고 보험 산업과 관련한 이슈별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실태와 가입경로, 만족도(가구당/개인별)와 향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에 대하여 조사함.
 -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금융역량 및 보험상품의 이해도, 은퇴자산에 대한 선택행위, 소득원,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련한 위탁의향 등에 대하여 조사함.

II. 보험가입 현황 및 수요조사

1. 가구당 가입 현황

- 보험산업 전체 가구 보험가입률은 2013년과 비교하여 1.4%p 상승한 97.5%로 나타남.
 - 2014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5.8%로, 2013년(83.0%) 대비 2.8%p 상승

하였으며, 가입건수 역시 2013년(3.6건) 대비 0.4건 증가한 4.0건으로 전반적으로 생명보험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87.7%로 2013년(86.8%) 대비 0.9%p, 가입건수는 가구당 3.3건으로 2013년(3.1건) 대비 0.2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요약 표 1〉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구당 가입률(%)		95.6	97.7	97.4	96.4	98.0	96.1	96.1	97.5
생명보험	가입률(%)	87.2	90.8	89.9	88.0	87.3	86.3	83.0	85.8
	가입건수(건)	4.1	4.1	4.0	4.1	3.8	3.8	3.6	4.0
손해보험	가입률(%)	82.3	86.3	87.4	85.9	91.4	87.2	86.8	87.7
	가입건수(건)	2.0	2.1	2.2	2.5	3.0	2.9	3.1	3.3

주: 2008년부터 표본추출방법이 변경됨(가구기준 → 개인기준, 이하 동일).

- 거주 지역, 세대주 연령, 그리고 가구 소득 등에 따른 특성별 가구 보험가입률 조사 결과, 2013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가구 보험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군지역의 경우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전년대비 6.8%p,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이 8.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세대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전 연령대에서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손해보험은 40대(-0.4%p), 50대(-1.6%p)에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소득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저소득(+3.0%p), 중소득(+2.1%p) 가구 가입률이 상승한 반면, 고소득(-0.1%p) 가구 가입률은 전년대비 하락함.

〈요약 표 2〉 가구당 가입률: 특성별

(단위: %)

특성별		보험종목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전체 가입률					96.1	96.1	97.5	86.3	83.0	85.8	87.2	86.8	87.7
거주 지역별	대도시				97.7	96.6	97.8	88.6	85.2	87.1	88.3	86.1	86.9
	중소도시				95.1	96.4	97.1	84.7	81.5	84.6	87.0	89.5	88.8
	군지역				92.6	91.3	97.9	82.4	78.8	85.6	82.4	76.9	85.6
세대주 연령	30대				97.6	96.2	96.5	85.3	78.0	83.1	86.9	90.3	90.5
	40대				99.0	99.3	98.9	92.9	87.8	89.5	96.1	95.5	95.1
	50대				98.1	98.1	98.7	90.9	88.4	88.5	91.1	93.1	91.5
	60대 이상				89.1	90.3	95.4	74.4	75.6	81.2	72.6	67.9	73.9
가구 소득	저소득				86.7	86.9	90.2	68.6	69.9	72.9	66.6	63.0	63.6
	중소득				98.6	98.5	98.7	89.9	83.7	85.8	92.4	92.7	90.9
	고소득				100.0	99.7	99.6	95.5	92.0	91.9	96.0	96.8	95.2

2. 개인별 보험가입 현황

■ 개인 보험가입률은 93.8%로 2013년 대비 0.2%p 하락하였음.

○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2013년(77.3%) 대비 2.0%p 상승한 79.3%로 나타나 2012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2013년(74.6%p) 대비 0.3%p 하락한 74.3%로 201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한 가입률이 소폭 하락하였음.

〈요약 표 3〉 개인 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명보험	81.4	78.0	79.3	77.3	79.3
손해보험	65.0	71.5	67.9	74.6	74.3
전체	92.1	92.5	92.9	94.0	93.8

■ 개인의 보험 가입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93%대로 비슷하게 나타남.

-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여성(82.5%)이 남성(75.9%)보다 6.6%p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남성(82.7%)이 여성(66.1%)보다 16.6%p 높게 나타나 성별에 의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향이 다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개인 가입률이 모두 상승하였으나, 30대는 생명보험(-0.7%p)과 손해보험(-1.4%p)이 모두 전년대비 하락하였음.

〈요약 표 4〉 개인별 보험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전체 가입률		92.9	94.0	93.8	79.3	77.3	79.3	67.9	74.6	74.3
성별	남성	92.4	93.5	93.9	75.3	71.4	75.9	78.7	82.7	82.7
	여성	93.4	94.4	93.6	83.2	83.0	82.5	57.4	66.8	66.1
연령	20대	92.3	90.6	84.9	74.5	67.0	69.3	55.8	65.5	55.8
	30대	96.8	96.8	96.7	82.9	81.9	81.2	79.0	85.1	83.7
	40대	97.0	98.1	97.8	84.4	82.1	85.8	78.5	88.4	87.3
	50대	94.7	96.5	97.9	89.0	83.4	85.6	69.6	81.2	81.4
	60대 이상	83.1	87.3	89.9	65.0	70.6	72.5	53.5	50.8	59.7
	화이트칼라	97.7	98.1	96.7	86.6	81.4	80.5	79.0	84.5	82.7
직업	블루칼라	89.6	92.3	90.3	71.4	67.9	77.1	68.0	75.2	71.7
	자영업	93.5	95.7	96.5	79.1	80.2	80.1	75.3	80.4	83.3
	농/임/어업	100.0	94.4	100.0	66.7	85.9	83.3	83.3	63.3	50.0
	주부	93.6	100.0	93.8	83.6	75.0	86.0	54.0	50.0	63.2
	은퇴자	-	-	87.5	-	-	68.8	-	-	53.1
	무직/기타	79.4	74.7	79.6	58.7	50.7	51.0	52.4	50.7	49.0
학력	중졸 이하	67.6	76.8	85.7	52.9	61.6	70.5	29.4	35.2	50.9
	고졸	93.7	95.2	93.9	79.1	78.8	80.0	69.0	75.0	74.2
	대재 이상	97.1	97.0	95.6	84.7	79.6	80.4	74.5	83.8	79.8
결혼	기혼	93.7	94.9	95.8	82.2	79.8	81.4	70.8	76.0	77.3
여부	미혼	89.6	90.1	85.5	66.5	67.0	70.5	55.2	68.7	62.2
가구 소득	저소득	82.3	84.8	86.9	62.5	67.5	68.7	52.2	53.6	56.5
	중소득	95.9	97.0	94.1	84.1	78.8	78.4	73.0	82.2	76.7
	고소득	97.2	96.8	96.5	85.8	82.8	85.2	73.0	79.8	79.7

■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은 질병보장보험(77.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망보장보험(38.0%)과 저축성보험(37.3%) 순으로 나타나 전년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음.

○ 저축성보험 개인 가입률이 2013년 대비 18.8%p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질병보장보험(+9.7%p), 사망보장보험(+13.2%p), 그리고 변액보험(+1.5%p) 등 모든 생명보험의 종목별 가입률이 전년대비 상승함.

〈요약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가입률		67.9	77.6	24.8	38.0	18.5	37.3	6.2	7.7
연령	20대	55.7	75.9	13.3	38.2	11.8	36.7	5.4	5.5
	30대	69.8	73.6	30.2	42.3	22.2	43.9	7.3	13.4
	40대	70.1	81.3	35.8	45.9	23.5	49.3	9.7	11.2
	50대	78.6	82.6	28.4	42.8	23.1	38.1	7.9	5.9
	60대 이상	63.9	74.0	13.9	21.3	10.7	18.6	0.4	1.9
직업	화이트칼라	69.0	76.1	31.0	46.7	22.1	50.7	8.1	9.6
	블루칼라	60.7	76.4	17.1	32.6	14.5	35.3	3.4	7.8
	자영업	69.4	76.0	29.2	38.4	20.9	33.1	7.8	5.9
	농/임/어업	78.2	100.0	23.8	33.3	19.4	33.3	6.0	0.0
	주부	58.3	84.7	0.0	39.3	8.3	34.7	0.0	9.5
	은퇴자	-	78.1	-	9.4	-	15.6	-	0.0
	무직/기타	46.7	65.3	13.3	28.6	5.3	30.6	1.3	6.1
학력	중졸 이하	56.8	65.2	6.4	14.3	10.4	6.3	0.0	0.9
	고졸	70.7	71.3	24.3	27.1	19.4	26.6	5.7	4.8
	대재 이상	67.6	68.5	29.9	29.1	19.6	28.7	8.2	6.9
결혼	기혼	71.1	72.9	26.7	28.1	19.6	26.6	6.7	5.7
	미혼	54.5	56.4	17.2	21.6	13.7	22.0	3.9	3.3
가구소득	저소득	61.6	61.2	10.0	14.5	11.8	11.7	0.7	0.9
	중소득	67.6	66.7	28.1	27.5	17.6	22.2	7.3	4.9
	고소득	73.2	76.9	31.6	31.7	24.9	36.2	8.8	7.6

■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60.2%로 2013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일반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8.3%로 2013년 대비 1.1%p 상승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일반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상승하였음.

○ 소득별로 살펴보면, 중·고소득 가구의 장기손해보험 개인가입률은 하락한 반면, 저소득 가구의 장기손해보험 개인가입률은 상승하였음.

○ 한편, 중·고소득 가구의 일반손해보험 개인가입률은 상승하였으나, 저소득 가구의 일반손해보험 개인가입률은 하락하였음.

〈요약 표 6〉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2013	2014	2013	2014
가입률		60.2	60.2	7.2	8.3
연령	20대	51.7	44.7	9.9	10.1
	30대	70.6	69.0	7.3	9.2
	40대	73.9	71.3	7.8	10.4
	50대	63.8	63.6	8.3	7.2
	60대 이상	38.9	49.2	3.2	5.0
학력	중졸 이하	29.6	42.0	3.2	2.7
	고졸	60.0	59.9	7.9	9.7
	대재 이상	67.8	64.8	7.4	11.0
결혼	기혼	61.2	62.7	6.7	8.3
	미혼	55.8	50.2	9.0	8.3
가구 소득	저소득	42.2	43.9	6.9	5.6
	중소득	65.9	62.9	7.3	8.1
	고소득	65.8	64.6	7.2	9.8

- 2014년 조사에서도 2013년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대면채널, 특히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전통적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생명보험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95% 이상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직판채널과 은행채널을 통한 가입은 5% 이하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남.
 - 손해보험 또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이 2011년 4.7%에서 2014년 9.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요약 표 7〉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면	89.9	95.3	95.4	96.3	96.3	96.0	95.5	96.4
직판	8.1	3.9	2.0	1.6	2.1	2.6	2.4	1.9
은행	2.0	4.6	3.1	2.5	1.9	1.6	3.1	3.2

주: 1) 상기 구성비는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

2) 판매채널의 구분은 〈I. 조사의 개요〉 참고.

3) 2008, 2009년은 복수응답을 포함하며, 기타 채널은 생략함(이하 동일).

〈요약 표 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면	88.3	91.2	92.3	92.6	95.5	92.7	93.2	94.2
직판	11.2	8.0	6.3	7.7	4.7	6.2	8.0	9.1
은행	0.5	2.6	1.4	0.5	0.5	1.1	1.9	1.3

주: 1) 2008년부터 표본추출 기준을 가구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변경함(이하 동일).

2) 상기 채널별 구성비는 주로 개인 보험 빈도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써 실제 채널별 보험료 기준의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이하 동일).

3) 2008년 이후는 복수응답 구성비임.

4)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이하 동일).

5) 기타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4. 향후 보험수요 및 가입 이유

- 향후 1년 내 보험 가입 의향은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보험,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 손해보험을 제외한 종목들이 모두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 향후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의 비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각각 2.6%p 증가하여 생명보험 65.9%, 손해보험 44.1%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가입 의향을 2013년과 비교한 결과, 변액보험이 1.2%p 증가한 가운데, 저축성보험이 가장 높은 18.3%로 나타났고, 질병보장보험(17.3%), 사망보장보험(6.3%), 변액보험(4.7%)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장기손해보험이 전년대비 2.4%p 감소한 19.5%, 일반손해보험은 3.3%p 상승한 11.3%로 나타남.

〈요약 표 9〉 보험 상품별 가입 의향 비교

(단위: %, %p)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 보장 보험	사망 보장 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 보험	의향 없음	장기 손해 보험	일반 손해 보험	의향 없음
2010년	16.9	6.7	14.4	5.8	65.2	24.3	8.3	36.4
2011년	19.8	11.7	20.6	5.9	56.9	29.8	8.8	34.1
2012년	15.2	7.9	17.3	4.6	64.3	20.4	9.3	49.1
2013년	17.9	6.6	19.1	3.5	63.3	22.0	8.0	41.5
2014년	17.3	6.3	18.3	4.7	65.9	19.6	11.3	44.1
증가율	-0.6	-0.3	-0.8	1.2	2.6	-2.4	3.3	2.6

주: 사망보장보험에는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에는 연금보험이 포함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의 95% 이상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은 손해보험(98.5%)이 생명보험(95.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노후자금 마련(21.0%), 저축수단(12.1%), 그리고 유산상속 목적(3.8 %)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역시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저축수단(1.6%), 노후자금 마련(1.2%), 그리고 세제혜택 유리(0.9%) 순으로 조사됨.

〈요약 표 10〉 보험 산업별 가입 이유(복수 응답)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3	2014	2013	2014
위험보장	94.2	95.5	97.8	98.5
노후자금 마련	19.0	21.0	1.6	1.2
목돈마련 저축수단	10.7	12.1	3.0	1.6
자산증식 투자수단	2.9	1.8	0.9	0.3
유산상속 목적	5.2	3.8	0.3	0.2
세제혜택 유리	0.3	2.5	0.3	0.9

- 생명보험은 보험 종목별로 보험가입 이유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손해보험은 종목과 상관없이 모두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97% 이상으로 가장 높았음.
- 생명보험의 경우 질병보장보험(97.8%)과 사망보장보험(70.1%)에서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저축성보험(54.5%)과 변액보험(39.7%)은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요약 표 11〉 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 보장	저축 수단	노후자금 마련	자산 증식	유산 상속	세제 혜택
생명 보험	질병보장보험	97.8	0.4	1.0	0.1	0.1	1.0
	사망보장보험	70.1	10.0	5.9	1.9	8.7	3.1
	저축성보험	21.1	26.9	54.5	2.9	1.6	1.6
	변액보험	38.1	15.9	39.7	4.8	3.2	1.6
	기타	98.1	-	1.2	-	-	0.6
손해 보험	자동차보험	98.8	0.2	0.2	-	0.2	0.7
	장기손해보험	97.8	1.8	1.4	0.4	0.1	0.8
	일반손해보험	100.0	-	-	-	-	-

5. 보험회사별 가입분포 및 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보험회사가 대형사라는 응답이 생명보험 75.8%, 손해 보험 82.6%로 여전히 대형사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3.2%p)와 중소기업사(6.1%p)의 상품을 가입하였다는 비율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외국사/직판사(-2.5%p), 공제/기타(-0.1%)는 소폭 하락하였음.
- 손해보험사의 경우 대형사(4.4%p)와 외국사/직판사(0.9%p) 상품을 가입하였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사(-3.1%p)와 공제/기타(-1.7%p)는 하락하였음.

〈요약 표 12〉 최근 3년간 보험회사별 가입분포

(단위: %)

선호 회사 고려 사항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형사	72.0	71.5	71.8	72.6	75.8	73.8	79.9	80.3	78.2	82.6
중소형사	19.1	19.2	15.4	15.7	21.8	29.1	20.6	18.5	20.6	17.5
외국사/직판사	12.9	14.1	15.0	12.3	9.8	7.9	4.9	4.8	5.1	6.0
공제/기타	7.0	6.7	6.2	6.0	5.9	1.4	2.6	2.6	2.7	1.0

■ 보험회사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상품 경쟁력과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회사 선택의 경우 상품 경쟁력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브랜드 신뢰성(17.2%), 가격 경쟁력(15.1%), 그리고 서비스 지원(10.4%)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요인들은 10% 이하로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 선택의 경우도 상품 경쟁력(48.2%)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브랜드신뢰성(18.7%)과 가격 경쟁력(17.5%)이 뒤를 이음.

〈요약 표 13〉 향후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고려 사항	선호 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상품 경쟁력	43.8	38.7	38.2	48.7	48.9	41.8	37.0	35.6	48.2	45.4					
브랜드 신뢰성	21.8	28.6	26.6	18.3	17.2	17.9	28.1	27.8	17.8	18.7					
서비스 지원	12.2	10.7	13.1	10.8	10.4	14.2	11.1	10.8	12.2	10.4					
가격 경쟁력	8.5	10.0	12.3	14.3	15.1	11.5	10.8	16.7	14.3	17.5					
개인적 관계	5.3	5.8	4.3	4.3	4.3	6.2	7.1	4.8	5.3	4.7					
회사 규모	3.5	3.3	2.3	1.8	2.7	3.8	2.7	1.2	0.8	1.8					
설계사 전문성	1.8	0.8	1.2	0.5	0.7	1.6	0.8	1.2	0.4	0.5					
경영 철학	1.3	0.4	1.1	0.4	0.3	1.1	0.4	0.5	0.1	-					
과거 거래 경험	1.0	0.7	0.6	0.4	0.3	1.2	0.8	0.7	0.6	0.5					
계약 편의성	0.8	1.2	0.5	0.5	0.2	0.8	1.3	0.9	0.3	0.5					

주: 상품경쟁력은 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를 반영함.

6. 가입 보험회사 변경 의향

■ 가격이 저렴하다면 현재 가입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 가입자의 18.6%,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36.5%가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그림 2〉 가입 보험회사 변경 의향

(단위: %)



Ⅲ. 생명·손해보험 공통

1. 연금보험 및 노후 생활

■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금융상품

○ 노후대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금융상품으로 은행 예·적금을 89.2%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노후근로소득(63.8%), 공적연금(56.1%), 그리고 보험회사 저축보험/연금보험(52.6%)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14〉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한 금융상품

(단위: %)

특성별	가입 의향		중요도
	예	아니오	
공적연금	56.1	43.9	8.32
퇴직연금	38.1	61.9	8.51
은행 예·적금	89.2	10.8	8.54
보험회사 저축보험/연금보험	52.6	47.4	8.05
연금 저축(은행), 펀드(증권)	29.9	70.1	8.09
주식, 채권(펀드)	12.2	87.8	7.26
부동산 임대수입	39.4	60.6	8.32
노후 근로소득	63.8	36.3	8.11
자식의 경제적 지원	25.2	74.8	6.79
주택연금	30.8	69.2	7.54

■ 본인의 노후준비 평가

- 본인의 노후준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0.2%로 나타난 가운데,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5.2%로 나타남.
- 노후준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는 대도시(47.5%), 남성(46.4%), 20대(61.3%) 계층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는 40대(13.1%)와 50대(13.1%), 군지역(15.5%)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요약 표 15〉 본인의 노후준비 평가

(단위: %)

특성		긍정	보통	부정	평균
전체		10.2	44.7	45.2	2.54
지역 규모	대도시	9.9	42.7	47.5	2.53
	중소도시	9.5	46.4	44.0	2.53
	군지역	15.5	46.4	38.1	2.68
성별	남성	10.3	43.2	46.4	2.53
	여성	10.0	46.1	43.9	2.55
응답자 연령	20대	7.0	31.7	61.3	2.16
	30대	5.0	45.2	49.8	2.45
	40대	13.1	50.7	36.2	2.72
	50대	13.1	51.3	35.6	2.72
	60대 이상	11.6	41.9	46.5	2.5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3.6	48.9	37.5	2.69
	블루칼라	6.6	37.6	55.8	2.33
	자영업	12.9	47.8	39.3	2.69
	농/임/어업	0.0	50.0	50.0	2.33
	주부	8.7	45.9	45.5	2.52
	은퇴자	6.3	46.9	46.9	2.59
	무직/기타	2.0	28.6	69.4	1.88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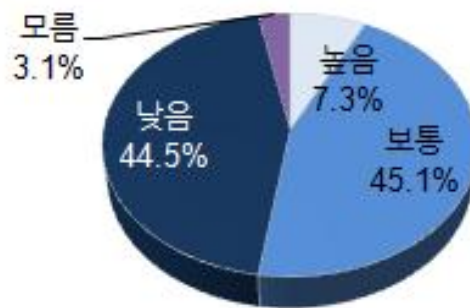
2. 금융역량 및 보험이해도

■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대한 판단

- 응답자에게 자신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판단해 달라고 한 결과, 45.1%의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44.5%의 응답자가 자신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였음.
- 금융 이해력 수준이 높다고 판단한 계층은 남성, 40대,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음.

〈요약 그림 3〉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대한 판단

(N=1,200)



■ 소비자의 보험이해도 조사

- 보험 관련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해지환급액이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실과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86.6%와 71.1%로 높았음.
- 변액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해지된 보험계약을 본래대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이 밖에 공시이율과 보험료 간의 관계, 보험료지수에 대한 인지도는 60% 정도 수준으로 나타남.

〈요약 표 16〉 보험 관련 이해도

(단위: %)

구분	정답률	오답률
변액보험상품과 예금자 보호	47.3	52.7
보험계약해지와 받을 수 있는 금액	86.6	13.4
청약철회와 보험료 환급	66.3	33.7
위험보험료 환급가능 여부	71.1	28.9
해지된 보험계약 부활 가능 여부	42.3	57.7
공시이율과 보험료의 관계	59.3	40.8
보험료지수와 가격비교	59.0	41.0

3. LTCI의 가입성향과 한계 요인 분석

■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 가입 의향

- 간병보험에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37.7%,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62.3%로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24.6%p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40.2%)이 남성(35.1%)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과 직업에 의한 가입 의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17〉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 가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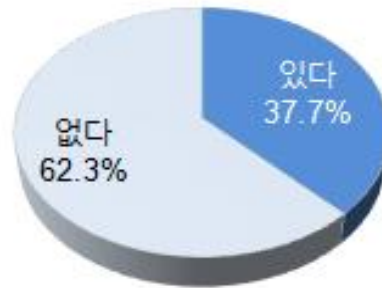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있다	없다
전체		37.7	62.3
성별	남성	35.1	64.9
	여성	40.2	59.8
응답자 연령	20대	30.7	69.3
	30대	36.8	63.2
	40대	38.4	61.6
	50대	42.4	57.6
	60대 이상	38.8	61.2
	화이트칼라	36.4	63.6
직업	블루칼라	36.0	64.0
	자영업	39.3	60.7
	농/임/어업	0.0	100.0
	주부	43.8	56.2
	은퇴자	28.1	71.9
	무직/기타	22.4	77.6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요약 그림 4〉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 가입 의향

(N=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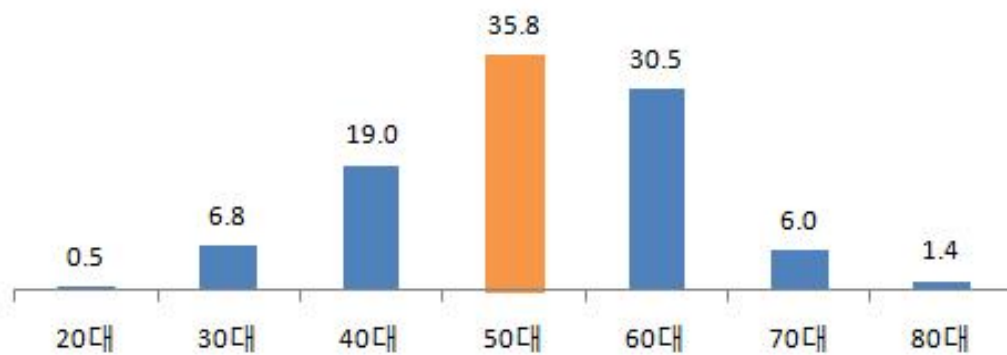


■ 간병보험 가입 적정 시기

- 간병보험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시기에 대하여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30.5%)와 40대(19.0%) 순으로 조사됨.

〈요약 그림 5〉 간병보험 가입 적정 시기

(N=1,200)



〈요약 표 18〉 간병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연령별 성별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성	여성
20대	0.5	0.0	1.3	0.0	0.4	0.8	0.0	1.0
30대	6.8	11.6	9.2	6.3	5.1	3.1	7.5	6.2
40대	19.0	29.6	28.0	22.4	8.1	8.9	20.0	18.0
50대	35.8	32.2	39.3	44.4	49.6	13.6	33.9	37.5
60대	30.5	21.1	19.7	23.5	29.7	55.8	31.0	30.0
70대	6.0	4.5	2.5	1.9	6.4	14.3	6.6	5.4
80대	1.4	1.0	0.0	1.5	0.8	3.5	1.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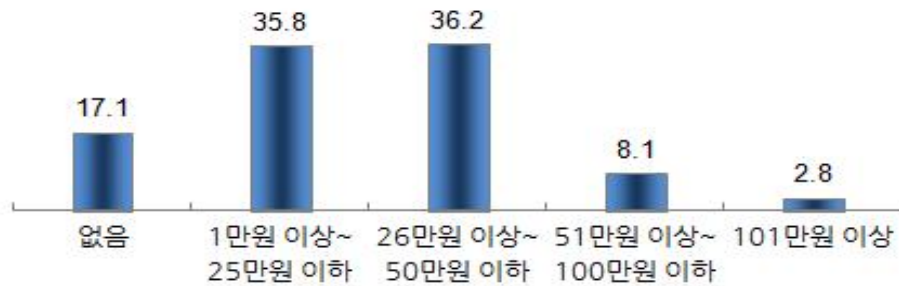
4. 보험소비자의 은퇴자산 선택행위에 관한 분석

■ 현재 매달 저축액

- 매달 저축액은 평균 31.27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간별 저축액은 26만원~50만원 이하(36.2%)와 25만원 이하(35.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저축액은 40대가 가장 많은 39.75만 원으로 조사된 반면, 20대는 14.98만 원으로 가장 낮았음.

〈요약 그림 6〉 현재 저축액

(N=1,200)



〈요약 표 19〉 현재 저축액

(단위: %, 만 원)

특성별		없음	25만 원 이하	26만 원~ 50만 원	51만 원~ 100만 원	101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7.1	35.8	36.2	8.1	2.8	31.27
성별	남성	17.8	34.7	36.4	8.3	2.7	30.13
	여성	16.4	36.9	35.9	7.9	3.0	32.38
응답자 연령	20대	39.7	40.7	16.1	3.0	0.5	14.98
	30대	14.6	38.5	36.4	9.2	1.3	28.89
	40대	9.3	32.8	43.3	9.3	5.2	39.75
	50대	8.9	29.7	42.8	14.8	3.8	38.85
	60대 이상	17.4	38.4	38.0	3.5	2.7	30.31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2.5	33.8	41.9	8.5	3.3	32.98
	블루칼라	22.5	39.9	29.8	5.4	2.3	27.72
	자영업	12.6	32.0	39.0	11.7	4.7	38.60
	농/임/어업	16.7	66.7	16.7	0.0	0.0	16.67
	주부	12.8	39.3	39.3	7.9	0.8	28.94
	은퇴자	18.8	43.8	31.3	3.1	3.1	24.84
	무직/기타	65.3	26.5	8.2	0.0	0.0	6.94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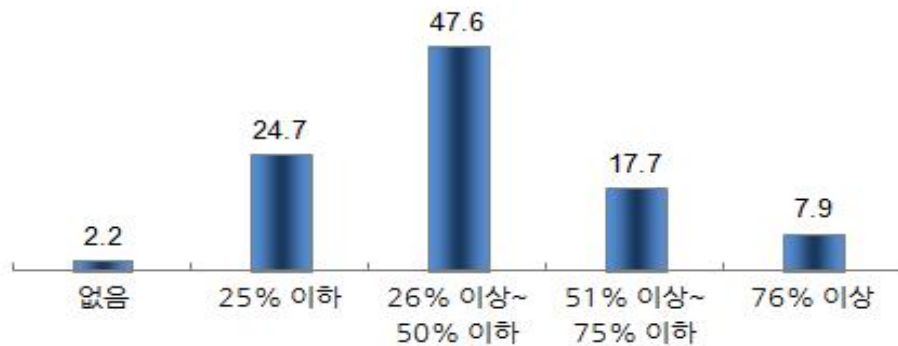
■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해 볼 때, 평균적으로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의 41.18%를 마련한 것으로 응답함.

○ 구간별로는 26%~50% 이하가 47.6%로 가장 높았으며, 25% 이하(24.7%), 15% 이상~75% 이하(17.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가 평균 43.25%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평균 38.72%로 가장 낮았음.

〈요약 그림 7〉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노후소득의 마련비율

(N=1,200)



〈요약 표 20〉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노후소득의 마련비율

(단위: %)

특성별		없음	25% 이하	26% 이상 ~50% 이하	51% 이상 ~75% 이하	76% 이상	평균
전체		2.2	24.7	47.6	17.7	7.9	41.18
성별	남성	1.9	25.8	46.3	18.8	7.3	41.05
	여성	2.5	23.6	48.9	16.6	8.5	41.31
응답자 연령	20대	5.5	23.6	46.2	18.6	6.0	39.32
	30대	1.3	25.1	48.5	18.8	6.3	41.74
	40대	0.7	20.5	48.9	21.3	8.6	43.25
	50대	0.4	25.0	50.0	12.3	12.3	42.54
	60대 이상	3.5	29.1	44.2	17.1	6.2	38.72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1	19.1	50.4	21.0	8.5	44.03
	블루칼라	3.1	22.5	55.8	13.6	5.0	39.71
	자영업	0.9	22.3	44.0	20.8	12.0	45.03
	농/임/어업	16.7	50.0	33.3	0.0	0.0	19.17
	주부	1.7	28.9	47.5	15.3	6.6	38.41
	은퇴자	0.0	46.9	31.3	18.8	3.1	33.44
	무직/기타	14.3	44.9	26.5	12.2	2.0	27.86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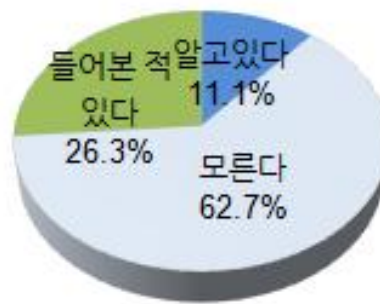
5.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 2014년부터 적용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62.7%)이 높았으며,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비중(11.1%)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요약 그림 8〉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N=1,200)



〈요약 표 21〉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알고 있다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전체		11.1	62.7	26.3
성별	남성	12.0	58.1	29.8
	여성	10.2	67.0	22.8
응답자 연령	20대	8.0	64.8	27.1
	30대	17.6	54.0	28.5
	40대	14.9	57.5	27.6
	50대	9.7	64.0	26.3
	60대 이상	4.7	73.3	22.1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4	53.7	30.9
	블루칼라	9.7	65.9	24.4
	자영업	11.1	62.2	26.7
	농/임/어업	0.0	100.0	0.0
	주부	9.1	67.8	23.1
	은퇴자	9.4	62.5	28.1
	무직/기타	6.1	69.4	24.5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6.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탁의향

■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의향 여부

-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의향은 24.6%(있다 5.5% + 조금 19.1%)로 4명 중 1명가량이 자산관리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은 30대에서 가장 높고(29%), 60대가 가장 낮은(14.7%) 것으로 조사 됨.

〈요약 그림 9〉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의향 여부

(N=1,200)



7. 해약/효력 상실 해지 관련 질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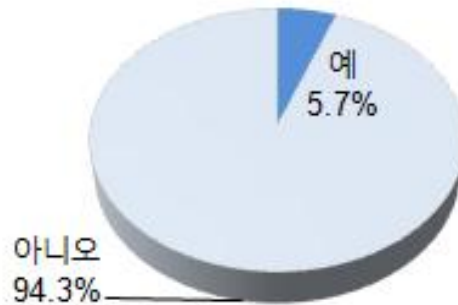
■ 3년 이내 보험 상품 해약/효력 상실 해지 경험 여부

-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7%로 나타난 가운데, 성별, 연령, 직업에 의한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남.

1) 해약/효력 상실 해지 관련 문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요약 그림 10〉 3년 이내 보험 상품 해약/효력 상실 해지 경험 여부

(N=1,200)



〈요약 표 22〉 3년 이내 보험 상품 해약/효력 상실 해지 경험 여부

(N=1,200, 단위: %)

특성별		예	아니오
전체		5.7	94.3
성별	남성	5.3	94.7
	여성	6.1	93.9
응답자 연령	20대	2.5	97.5
	30대	7.9	92.1
	40대	6.7	93.3
	50대	8.1	91.9
	60대 이상	2.7	97.3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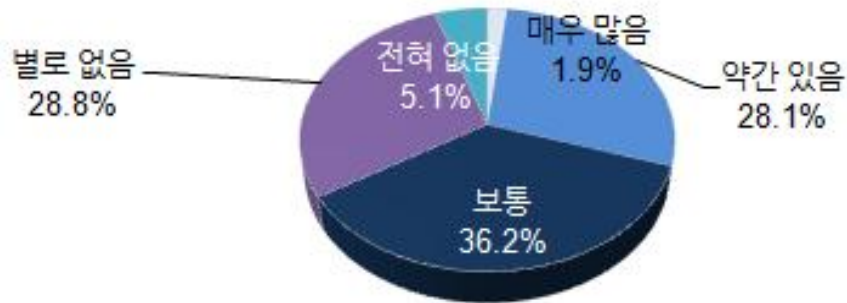
8.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미치는 정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36.2%로 나타났으며, 상품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은 33.8%, 영향을 준다는 의견은 30.0%로 조사됨.

〈요약 그림 11〉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

(N=1,200)



〈요약 표 23〉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특성별		있음	보통	없음
전체		30.0	36.2	33.8
성별	남성	29.0	37.6	33.4
	여성	31.0	34.8	34.3
응답자 연령	20대	32.2	37.2	30.7
	30대	32.2	35.6	32.2
	40대	32.1	37.3	30.6
	50대	27.5	35.6	36.9
	60대 이상	26.4	35.3	38.4
	화이트칼라	32.0	33.5	34.6
응답자 직업	블루칼라	27.1	40.3	32.6
	자영업	31.7	35.2	33.1
	농/임/어업	50.0	33.3	16.7
	주부	31.4	32.6	36.0
	은퇴자	21.9	46.9	31.3
	무직/기타	18.4	46.9	34.7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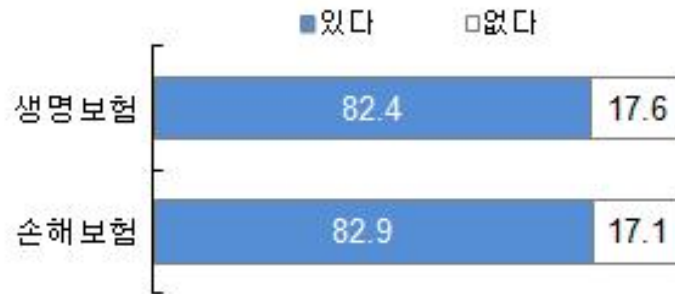
■ 개인 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고자 전화마케팅을 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생·손보 모두 80% 이상으로 조사됨.

○ 개인 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고자 전화마케팅을 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생명보험(82.4%)과 손해보험(82.9%)이 비슷하게 나타남.

○ 성별, 연령, 직업에 의한 거부 의향의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요약 그림 12〉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 거부 의향

(N=1,200)



〈요약 표 24〉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 거부 의향

(단위: %)

특성별		생명보험		손해보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82.4	17.6	82.9	17.1
성별	남성	84.2	15.8	84.2	15.8
	여성	80.7	19.3	81.6	18.4
응답자 연령	20대	79.4	20.6	80.9	19.1
	30대	90.0	10.0	85.4	14.6
	40대	83.6	16.4	85.8	14.2
	50대	80.5	19.5	83.9	16.1
	60대 이상	78.3	21.7	78.3	21.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83.1	16.9	81.6	18.4
	블루칼라	81.0	19.0	84.1	15.9
	자영업	83.3	16.7	83.3	16.7
	농/임/어업	83.3	16.7	100.0	0.0
	주부	83.5	16.5	83.5	16.5
	은퇴자	75.0	25.0	81.3	18.8
	무직/기타	79.6	20.4	77.6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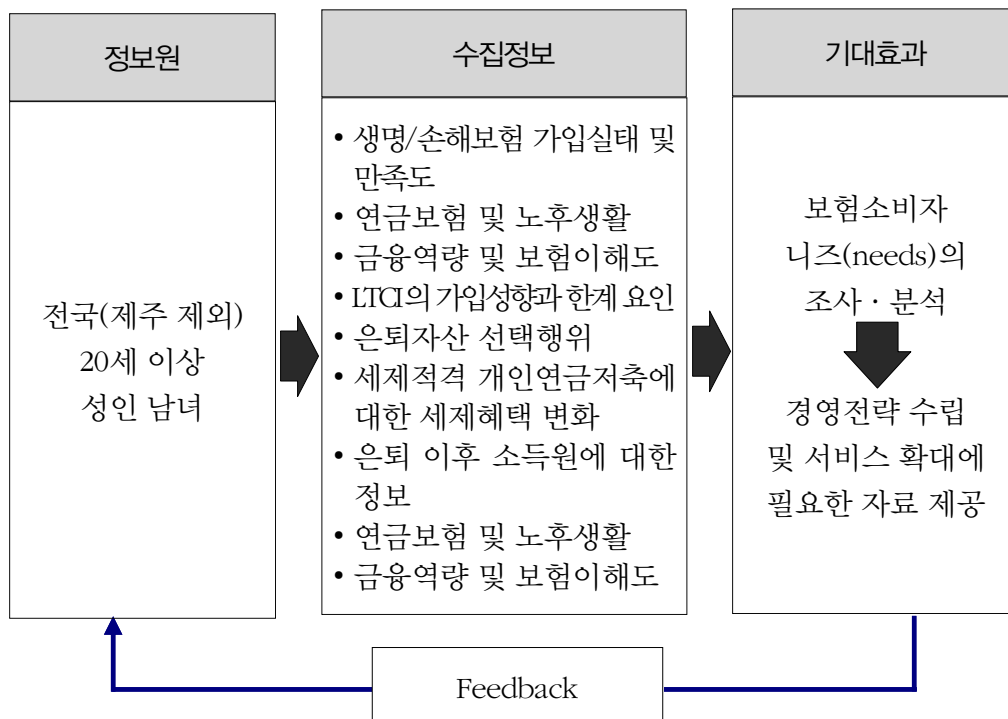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본 조사의 목적은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실태, 판매채널, 보험가입 의향 등 보험수요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최근 인구 고령화, 소비자 보호 강화, 그리고 보험회사 건전성 강화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I-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은퇴준비 및 노후생활과 관련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보험산업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구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집적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험 관련 정책 및 경영전략 수립, 그리고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2. 주요 조사항목

■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만족도(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가입률(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상품종류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상품종류별 가입경로 및 가입이유(개인별)
- 가입한 생명/손해보험회사 및 상품 만족도(개인별)
- 가입한 생명/자동차보험회사 제공서비스 만족도(개인별)
- 가입한 생명/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개인별)
- 보험금 지급 항목(가구당)

■ 향후 생명/손해보험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 가입한 보험회사 변경 의향(생명/자동차보험)
-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생명/손해보험)
- 향후 1년 내 선호 가입경로 및 가입 이유(생명/손해보험)
-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생명/손해보험)

■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 현재 건강상태
- 향후 부모님 부양할 의향

- 향후 은퇴 후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
- 향후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필요성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금융상품
- 현재 본인의 노후준비 평가
-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가입 여부
-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가입자
-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납입보험료
-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가입 금융회사
-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만족도
- 국민연금에 불만족하는 이유
- 개인연금에 불만족하는 이유
- 향후 퇴직연금 가입할 의향
- 현재 또는 향후 퇴직연금 가입 시 적립금 투자 운용계획

■ 금융역량 및 보험 이해도

- 금융이해도
-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
- 보험관련 지식 및 확신 정도
- 재무관리 성향

■ LTCI(Long-term Care Insurance)의 가입성향과 한계 요인

- 향후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 가입 의향 여부
- 향후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 가입 의향 정도
- 현물서비스 급부상품 출시한다면 이용할 의향
-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이유
-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없는 이유
- 간병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요소

- 간병비를 지출해야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고려할 사항
- 간병보험 가입 시기
- 간병보험의 가입 형태와 우선순위

■ 은퇴자산 선택행위에 관한 분석

- 현재 소득수준대비 노후소득의 적정비율
-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현재 저축액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의 마련 정도
- 살고 있는 집의 거주형태 및 금액
-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
- 주택연금 이용할 의향
- 향후 은퇴 후 전체 자산에서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규모
- 은퇴 후 본인이 거주하길 선호하는 주거형태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입액 증액/감액 고려 여부

■ 은퇴 이후 소득원에 대한 정보

- 특수직역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 퇴직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 개인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탁의향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구성이 은퇴 후 대비 적절성
- 향후 자산관리를 위해 전문가 도움 받을 의향 여부
- 직접 자산관리계획을 갖는 이유
- 자신의 평소 금융성향

■ 해약/효력상실 해지

- 최근 3년 이내 보험상품 해약/효력상실 해지 경험 여부
- 최근 3년 이내 보험상품 해약/효력상실 해지한 상품 종류
- 해약/효력상실 해지한 상품의 가입유지 기간
- 해약/효력상실 해지한 이유

■ 개인정보 보호

-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강화 필요성
- 개인정보 제공수준의 차별성 동의 여부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필요성

3.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 크기

- 총 1,200명(유효표본)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

■ 표본 추출방법

-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행정안전부, 2014년 3월 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 기준

■ 최대 허용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83\%$

■ 조사기간

○ 2014년 4월 20일 ~ 5월 15일(약 1개월)

■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센터

4. 표본의 특성

■ 본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I-1〉 표본의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200	100.0
거주 지역별	서울	(248)	20.7
	인천/경기	(351)	29.3
	대전/충청	(123)	10.3
	광주/전라	(124)	10.3
	대구/경북	(122)	10.2
	부산/울산/경남	(194)	16.2
	강원	(38)	3.2
지역 규모별	대도시	(558)	46.5
	중소도시	(545)	45.4
	군지역	(97)	8.1
성별	남성	(590)	49.2
	여성	(610)	50.8

〈표 I-1〉 표본의 특성(계속)

응답자 연령별	20대	(199)	16.6
	30대	(239)	19.9
	40대	(268)	22.3
	50대	(236)	19.7
	60대 이상	(258)	21.5
세대주 연령별	30대 이하	(231)	19.3
	40대	(267)	22.3
	50대	(399)	33.3
	60대 이상	(303)	25.3
응답자 직업별	화이트칼라	(272)	22.7
	블루칼라	(258)	21.5
	자영업	(341)	28.4
	농/임/어업	(6)	0.5
	주부	(242)	20.2
	은퇴자	(32)	2.7
	무직/기타	(49)	4.1
세대주 직업별	화이트칼라	(392)	32.7
	블루칼라	(231)	19.3
	자영업	(475)	39.6
	농/임/어업	(5)	0.4
	주부	(15)	1.3
	은퇴자	(44)	3.7
	무직/기타	(38)	3.2
응답자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12)	9.3
	고졸	(586)	48.8
	대재 이상	(495)	41.3
	모름/무응답	(7)	0.6
세대주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14)	9.5
	고졸	(585)	48.8
	대재 이상	(493)	41.1
	모름/무응답	(8)	0.7
결혼 여부별	기혼	(959)	79.9
	미혼	(241)	20.1
연간가구 소득별	저소득(3000만 원 미만)	(214)	17.8
	중소득(3000~5000만 원 미만)	(528)	44.0
	고소득(5000만 원 이상)	(458)	38.2

주: 응답자 직업별 분석에서 은퇴자, 세대주 직업별 분석에서 주부, 은퇴자와 같이 30표본 이하의 경우 분석 결과의 활용 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함.

5. 구분 기준

■ 직업분류

- 화이트칼라: 경영/관리, 전문/자유직, 사무/기술직
- 블루칼라: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
- 자영업: 자영업
-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
- 주부: 주부
- 은퇴자: 은퇴자

■ 보험회사 그룹 구분

- 생명보험회사
 - － 대 형 사: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3개사)
 - － 중소형사: 흥국생명,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우리아비바(구 LIG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하나HSBC, 카디프생명, KB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IBK연금보험, NH농협생명(14개사)
 - － 외 국 사: 알리안츠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ACE생명(구 뉴욕생명), ING생명, AIA생명, 라이나생명, 푸르덴셜생명(8개사)
 - － 공제/기타: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기타 공제, 기타
- 손해보험회사
 - － 대 형 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4개사)
 - － 중소형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차티스 손해보험, 에이스화재, NH농협손해보험(8개사)
 - － 직 판: AXA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에르고다움다이렉트, 현대하리카다이렉트(4개사)
 - － 공제/기타: 우체국 등 기타 공제, 기타

■ 보험종목

○ 생명보험상품: 개인보험에 한함(단체보험 제외).

구분	설명
질병치료 중점 보장보험	주로 각종 암,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여성만성질환, 부인과질환 등과 같은 질병의 발병 및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비용 및 생활자금 보장 (예) 암, 질병, 여성 질병, 장기간병보험 등
재해중점 보장보험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 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각종 선택특약을 부가하여 재해로 인한 수술 및 입원비, 생활보조금 지급 등 추가보장이 가능 (예) 상해보험, 재해보험 등
종신 보험	계약자의 가입으로 평생보장이 가능하며, 어떠한 형태의 사망이든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입원 특약, 암 특약, 재해 특약, 성인병 특약 등과 같은 각종 특약을 조립하여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저축성 보험	실세금리를 반영한 이율로 적립하는 저축상품으로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납상품과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적립형상품 등과 함께 사망·장해 보험금 등의 보장성을 가미한 보험
연금 보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으로 경제 활동기(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각종 사고에 대한 위험보장이 가능하고 노년기(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매년 일정액의 연금 지급
교육 보험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으로 교육기간별로 적정 학자금을 받으며, 예기치 못한 부모의 사망 등과 같은 경제능력 상실 시에도 자녀의 학자금 및 자립자금 지원
치명적 질병 보험 (CI)	CI보험은 치명적 질병(Critical Illness) 발병 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활자금으로 선 지급하여 환자 및 가족들이 피보험자 사망 전에 고액의 치료비, 가족생활비, 간병비 등 필요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고 사망 시에는 잔여보험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하는 상품으로 2002년 처음 도입
변액 보험	변액보험은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상품

○ 손해보험상품: 개인(가계성)보험에 한함(기업성보험 제외).

구분		설명
자동차보험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장기 손해 보험	상해	신체의 상해를 보장하는 상해보험 (예) 운전자 보험 등
	건강	암, 성인병 등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예) 의료비, 질병 등
	종합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장 중 두 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 (예) 재물, 상해 등
	저축성	노후생활자금 준비 및 중장기 목돈마련 등을 위한 저축성보험
	어린이	자녀의 질병과 상해를 중점 보장하는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일상생활 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으로 일반 실손 보상의 손해보험과 달리 계약당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상품으로 보험기간은 1년 이하임
통합 보험		상해, 질병, 화재, 재물, 배상책임 및 자동차보험까지 하나의 보험 증권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기존 전위험담보보험(All Risk Policy)을 계약자의 니즈에 맞게 개량한 상품

■ 판매채널 분류

- 대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대형법인대리점(GA)등 전통채널
- 직판: 보험회사 인터넷 사이트,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은행: 은행, 증권회사 등
- 기타: 보험회사 임직원, TV 홈쇼핑 채널, 대형 할인점 등

Ⅱ.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가. 생명보험 가구 가입 현황

1) 조사 목적

- 국내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실태 조사를 통하여 가구당 보험가입 성향을 파악하고, 보험소비자의 잠재시장 발굴과 시장개척에 기여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4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5.8%로 2013년(83.0%) 대비 2.8%p 늘어나 2012년(86.3%) 수준을 회복하였고, 가입건수도 2013년(3.6건) 대비 0.4건 증가한 4.0건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소폭의 민간소비 회복세가 반영되고 은퇴 및 노후생활 준비의 공감대도 확산되어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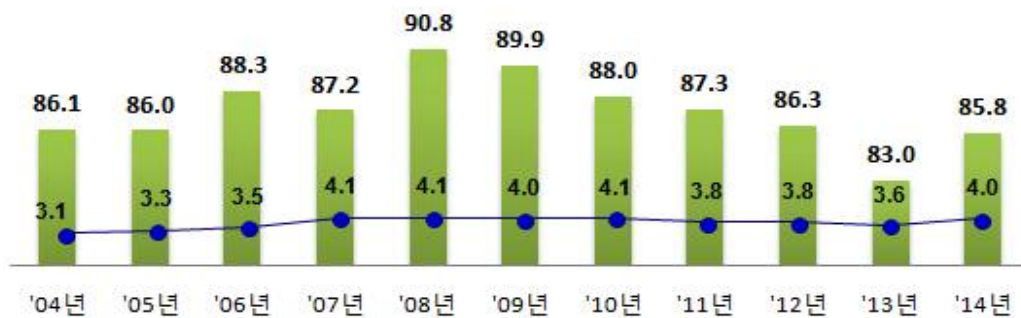
〈표 II-1〉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입률(%)	87.2	90.8	89.9	88.0	87.3	86.3	83.0	85.8
가입건수(건)	4.1	4.1	4.0	4.1	3.8	3.8	3.6	4.0

주: 2008년부터 표본추출방법이 변경됨(가구기준 → 개인기준, 이하 동일).

〈그림 II-1〉 2014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N=1,200 /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증가한 가운데 주부(+27.6%p), 블루칼라(+7.1%p), 저소득(+3.0%p), 중소득(+2.1%p) 가구 가입률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가입건수 역시 가입률 변화와 유사하게 직업별로 주부(+2.7건), 블루칼라(+0.8건)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소득규모별로는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중소득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음.

〈표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2013년	2014년	2013년 대비 가입률(%p)	2013년	2014년	2013년 대비 가입건수(건)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87.5	89.0	+1.5	4.3	4.5	+0.2
	블루칼라	77.4	84.5	+7.1	2.8	3.6	+0.8
	자영업	86.8	84.2	-2.6	3.9	3.8	-0.1
	농/임/어업	-	100.0	-	-	3.8	-
	주부	62.5	90.1	+27.6	1.6	4.3	+2.7
	은퇴자	85.2	78.1	-7.1	2.4	2.2	-0.2
	무직/기타	58.7	69.4	+10.7	2.1	3.6	+1.5
가구 소득	저소득	69.9	72.9	+3.0	1.8	1.8	0.0
	중소득	83.7	85.8	+2.1	3.6	3.5	-0.1
	고소득	92.0	91.9	-0.1	5.2	5.5	+0.3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군지역 가입률이 전년대비 6.8%p나 증가함.

〈표 II-3〉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2013년	2014년	2013년 대비 가입률(%p)	2013년	2014년	2013년 대비 가입건수(건)
지역 규모	대도시	85.2	87.1	1.9	3.7	3.8	0.1
	중소도시	81.5	84.6	3.1	3.7	4.1	0.4
	군지역	78.8	85.6	6.8	2.9	4.1	1.2

■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보험 종목별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은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이 75.5%로 가장 높아 기존 조사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고, 다음으로 종신보험 38.0%, 연금보험 30.0%, 치명적 질병보험(CI) 13.8%, 저축성보험 13.4%, 교육보험 4.7%, 그리고 변액보험 7.7% 순으로 조사됨.
- 종목별 가입건수도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이 2.5건으로 2013년에 이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치명적 질병보험이 2.0건, 종신보험, 교육보험, 변액보험이 각각 1.6건,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이 각각 1.4건으로 나타남.
- 질병 및 생명 등에 대한 보장보험 상품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노후 대비 및 저축성보험 상품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대부분의 보험 종목별 가입률이 2013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금보험은 7.2%p나 증가한 반면 변액보험은 5.9%p 감소함.

〈표 II-4〉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 및 가입건수: 보험 종목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입률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77.6	79.9	81.4	82.1	77.6	77.3	75.6	75.5
	종신보험	45.5	48.3	44.9	41.4	41.8	37.2	36.6	38.0
	저축성보험	16.4	18.9	15.9	14.3	13.5	11.8	12.2	13.4
	연금보험	22.1	21.0	21.1	22.6	26.1	21.0	22.8	30.0
	교육보험	17.7	8.8	6.6	6.8	5.8	5.8	5.2	4.7
	치명적 질병보험	10.9	11.3	11.6	10.8	12.9	13.6	12.7	13.8
	변액보험	7.7	11.8	10.2	9.6	9.6	10.8	8.9	7.7
가입건수 (건)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2.2	2.2	2.4	2.6	2.5	2.5	2.5	2.5
	종신보험	1.5	1.4	1.5	1.4	1.5	1.4	1.5	1.6
	저축성보험	1.4	1.3	1.3	1.3	1.3	1.4	1.3	1.4
	연금보험	1.3	1.2	1.2	1.3	1.3	1.3	1.3	1.4
	교육보험	1.6	1.4	1.4	1.5	1.5	1.5	1.5	1.6
	치명적 질병보험	1.4	1.4	1.4	1.7	1.9	1.7	1.8	2.0
	변액보험	1.2	1.2	1.2	1.3	1.3	1.4	1.6	1.6

나. 생명보험 개인 가입 현황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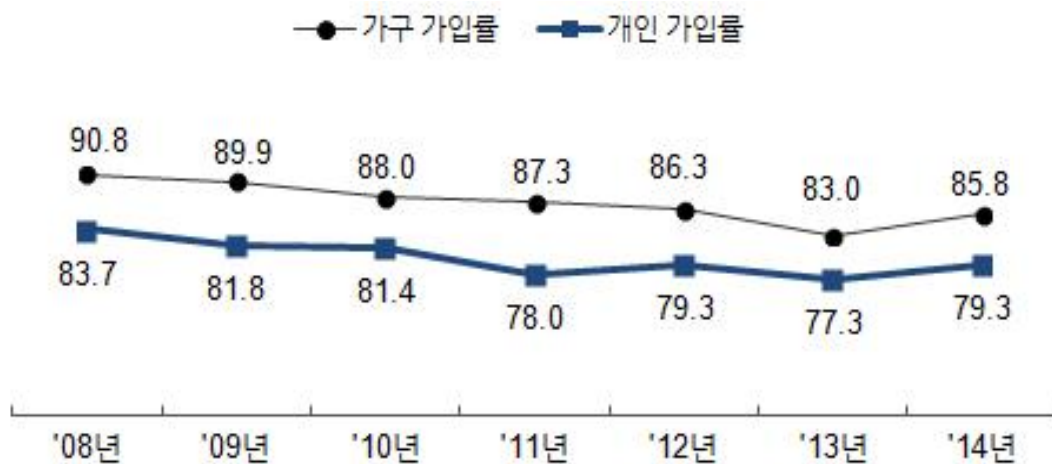
- 국내 개인별 보험가입 실태(가입 비율, 가입건수)를 조사하여 개인별 보험가입 성향과 잠재적인 확대 가능 시장을 파악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4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79.3%로 2013년(77.3%) 대비 2.0%p 상승하여 2012년 수준을 회복함.
- 2013년까지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과 함께 개인 가입률도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가구와 개인 보험가입률이 모두 상승하여 2012년 수준을 회복함.

〈그림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N=1,200 / 단위: %)



-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의 생명보험 가입률(기혼 81.4% > 미혼 70.5%)과 가입건수(기혼 1.8건 > 미혼 1.3건)가 높게 나타났고, 기혼자 중에서는 자녀가 없는 계층보다 자녀가 있는 계층의 생명보험 가입률과 가입건수가 높게 나타남.
- 2013년 조사결과 대비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미혼자와 자녀가 없는 계층의 가입률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기혼자 가입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미혼자 가입률은 전년대비 3.5%p 증가함.
 - 또한 자녀가 없는 계층의 가입률도 전년대비 8.1%p나 증가하여 자녀가 있는 계층보다 증가세가 크게 나타남.
 - 자녀가 있는 계층의 경우, 2명의 자녀가 있는 계층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률 및 가입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가입률 증가폭(+5.4%p)이 특히 크게 나타남.

〈표 II-5〉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결혼 여부별, 자녀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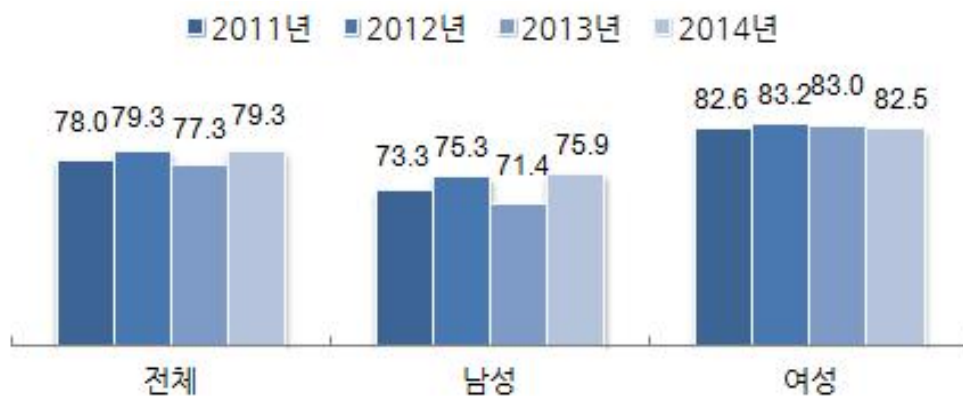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2013년	2014년	2013년 대비 가입률(%p)	2013년	2014년	2013년 대비 가입건수 (건)
결혼 여부	기혼	79.8	81.4	+1.6	1.7	1.8	+0.1
	미혼	67.0	70.5	+3.5	1.0	1.3	+0.3
자녀 수	없음	66.5	74.6	+8.1	1.1	1.3	+0.2
	1명	79.8	80.5	+0.7	1.5	1.8	+0.3
	2명	89.3	86.4	-2.9	2.1	2.1	0.0
	3명 이상	74.6	80.0	+5.4	1.6	2.0	+0.4

- 성별에 따른 생명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여성이 82.5%, 남성이 75.9%로, 여전히 여성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전년도(83.0%)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가입률이 전년도(71.4%) 대비 4.5%p 증가하면서 전체 가입률 상승에 더 크게 기여함.

〈그림 II-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N=1,200 / 단위: %)



- 가구 소득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중소득 가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고소득 가구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

〈표 II-6〉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3년 대비 가입률(%p)
저소득	69.4	62.5	67.5	68.7	+1.2
중소득	80.9	84.1	78.8	78.4	-0.4
고소득	79.6	85.8	82.8	85.2	+2.4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별, 결혼 여부별

- 여성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82.5%로 남성(75.9%)에 비하여 7.6%p 높음.
- 기혼자 가입률은 81.4%로 미혼자(70.5%)보다 10.9%p 높게 나타났으며, 가입건수는 기혼자 1.8건, 미혼자 1.3건으로 기혼자가 0.5건 더 높게 나타남.
- 기혼 여성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85.4%로 기혼 남성(76.9%)에 비하여 8.5%p 높으나, 미혼 여성 가입률은 66.7%로 미혼 남성(73.1%)에 비해 6.4%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 기혼과 미혼의 차이를 비교하면, 남성은 3.8%p의 차이를 보이지만, 여성은 18.7%p의 차이로 기혼과 미혼에 의한 생명보험 가입률의 차이는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가입건수에서도 기혼 여성은 평균 2.0건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혼 여성은 평균 1.2건으로 0.8건 가량의 차이가 있고, 향후 미혼여성의 잠재적 보험 가입 가능성 및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II-7〉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가입률(%)	81.4	70.5	75.9		82.5	
			76.9	73.1	85.4	66.7
가입건수(건)	1.8	1.3	1.5		1.9	
			1.5	1.3	2.0	1.2

주: 가입건수는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가입건수임.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자녀수별

- 기혼자 중 자녀가 있는 계층의 보험 가입률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계층의 보험 가입률은 74.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한편, 자녀가 있는 계층 가운데 특히 자녀가 2명(86.4%)인 계층의 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2013년과 동일한 경향을 보임.

〈표 II-8〉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자녀수별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가입률(%)	74.6	80.5	86.4	80.0
가입건수(건)	1.3	1.8	2.1	2.0
2013년 대비 가입률(%p)	+8.1	+0.7	-2.9	+5.4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 연령별로는 30대(81.2%), 40대(85.8%), 50대(85.6%)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가입건수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30대 1.8건, 40대 2.1건, 50대 1.9건).
- 30대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전년 대비 0.7%p 감소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전년대비 1.9%p~3.7%p 증가함.
- 한편, 20대(69.3%)와 60대 이상(72.5%) 생명보험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타 연령층 대비 낮았으며, 이는 2013년과 유사한 결과임.

〈표 II-9〉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률(%)	69.3	81.2	85.8	85.6	72.5
가입건수(건)	1.2	1.8	2.1	1.9	1.3
2013년 대비 가입률(%p)	+2.3	-0.7	+3.7	+2.2	+1.9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대도시가 81.9%로 가장 높고, 군지역 78.4%, 중소도시 76.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군지역 가입률이 중소도시보다 높다는 점은 2013년 조사와 다른 점임.

- 가입건수는 대도시가 1.6건, 중소도시 1.7건, 군지역 1.8건으로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가입건수가 높아 2013년과는 대조적임.

〈표 II-10〉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대도시	81.9	1.6
중소도시	76.7	1.7
군지역	78.4	1.8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 학력별로는 2013년 대비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가운데 중졸 이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70.5%로 고졸 이상(고졸 80.0%, 대재 이상 80.4%) 학력자보다 약 9.9%p 낮음.
- 가입건수 역시 1.1건으로 고졸 이상(고졸 1.6건, 대재 이상 1.9건) 학력자보다 0.5건 적음.
- 중졸 이하의 가입률은 2013년 조사(61.6%)에 비해 8.9%p 증가한 70.5%였고, 대재 이상의 가입률은 2013년 조사(79.6%)에 비해 0.8% 증가한 80.4%로 학력 수준에 의한 가입률의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1〉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중졸 이하	70.5	1.1
고졸	80.0	1.6
대재 이상	80.4	1.9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 직업별로는 주부가 8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화이트칼라(80.5%), 자영업(80.1%), 블루칼라(77.1%), 은퇴자(68.8%), 무직/기타(51.0%) 순으로 나타남.

- 가입건수 역시, 주부(1.9건), 화이트칼라(1.8건), 자영업(1.7건), 블루칼라(1.5건), 은퇴자(1.1건), 그리고 무직/기타(0.8건) 순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퇴자, 무직/기타와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가입률과 가입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II-1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화이트칼라	80.5	1.8
블루칼라	77.1	1.5
자영업	80.1	1.7
농/임/어업	83.3	1.8
주부	86.0	1.9
은퇴자	68.8	1.1
무직/기타	51.0	0.8

주: 농/임/어업 및 은퇴자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가구 소득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저소득 68.7% < 중소득 78.4% < 고소득 85.2%)과 가입건수(저소득 1.1건 < 중소득 1.6건 < 고소득 2.1건)가 모두 높게 나타남.

〈표 II-13〉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저소득	68.7	1.1
중소득	78.4	1.6
고소득	85.2	2.1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저축성보험 가입률이 전년대비 18.8%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모든 종목의 가입률이 증가하였으며, 질병보장보험(77.6%), 사망보장보험(38.0%), 저축성보험(37.3%), 변액보험(7.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질병보장보험은 여성(80.8%), 50대(82.6%), 주부(84.7%)에서 가입률이 특히 높은 특징을 보임.
- 사망보장보험 가입률은 여성(38.9%), 40대(45.9%), 화이트칼라(46.7%), 주부(39.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저축성보험은 여성(40.2%), 40대(49.3%), 화이트칼라(50.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4〉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종목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특성별		보험 종목	질병보장 보험	사망보장 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기타
성별	남성		74.2	37.1	34.4	6.3	17.6
	여성		80.8	38.9	40.2	9.0	20.8
연령	20대		75.9	38.2	36.7	5.5	17.6
	30대		73.6	42.3	43.9	13.4	18.8
	40대		81.3	45.9	49.3	11.2	23.9
	50대		82.6	42.8	38.1	5.9	21.2
	60대 이상		74.0	21.3	18.6	1.9	14.3
직업	화이트칼라		76.1	46.7	50.7	9.6	20.6
	블루칼라		76.4	32.6	35.3	7.8	17.1
	자영업		76.0	38.4	33.1	5.9	19.9
	농/임/어업		100.0	33.3	33.3	0.0	0.0
	주부		84.7	39.3	34.7	9.5	18.6
	은퇴자		78.1	9.4	15.6	0.0	25.0
	무직/기타		65.3	28.6	30.6	6.1	20.4
2014년 가입률(%)			77.6	38.0	37.3	7.7	19.3
2013년 가입률(%)			67.9	24.8	18.5	6.2	10.0
차이(%p)			+9.7	+13.2	+18.8	+1.5	+9.3

주: 농/임/어업 종사자는 표본수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가.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1) 조사 목적

- 개인별 생명보험 가입 경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개발 가능한 가입 경로를 파악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3년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도 생명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대면채널(96.4%), 특히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을 통해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전통적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대면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가입이 전체의 95% 이상을 유지하면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음.
 - 직판채널은 1.9%, 은행²⁾을 통한 가입은 3.2%로 생명보험 가입 채널로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5〉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면	89.9	95.3	95.4	96.3	96.3	96.0	95.5	96.4
직판	8.1	3.9	2.0	1.6	2.1	2.6	2.4	1.9
은행	2.0	4.6	3.1	2.5	1.9	1.6	3.1	3.2

주: 1) 상기 구성비는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

2) 판매채널의 구분은 〈I. 조사의 개요〉 참고.

3) 2008, 2009년은 복수응답을 포함하며, 기타 채널은 생략함(이하 동일).

- 2) 최근 저축성보험의 성장과 함께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가운데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나, 본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 응답자의 보험가입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2013년에 이어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16〉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6.2	96.6
직판	1.3	2.4
은행	3.6	2.8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전 연령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직판과 은행의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5% 미만의 수준으로 매우 낮음.

〈표 II-17〉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96.4	95.9	97.8	95.0	96.8
직판	2.2	3.1	1.7	2.0	0.5
은행	4.3	2.6	3.0	3.5	2.7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전 지역에 걸쳐 95% 내외 수준으로 높음.
- 은행채널은 군지역에서 9.2%, 직판채널은 중소도시(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8〉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도시	대면	92.2	95.7	96.7	95.7	95.9	96.8	96.2	95.8
	직판	6.3	2.9	2.0	2.4	1.6	2.1	2.7	1.8
	은행	1.6	4.3	1.5	2.0	1.4	1.7	2.9	3.3
중소도시	대면	87.2	95.0	95.0	97.0	96.6	94.8	94.8	97.1
	직판	10.2	4.7	2.0	0.9	2.9	3.2	2.0	2.4
	은행	2.6	4.3	3.4	3.0	2.5	1.5	2.9	1.9
군지역	대면	92.8	94.6	90.8	96.6	96.5	97.4	94.6	96.1
	직판	6.8	5.4	2.3	1.1	1.2	2.6	2.7	0.0
	은행	0.5	7.6	9.2	2.3	2.3	1.3	5.4	9.2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대부분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내외 수준으로 높음.

〈표 II-19〉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 기타
대면	95.9	96.0	98.2	60.0	98.1	86.4	88.0
직판	4.6	2.5	0.0	0.0	1.0	0.0	4.0
은행	4.1	4.0	1.1	60.0	1.4	9.1	8.0

주: 농/임/어업, 은퇴자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모든 학력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내외로 가장 높은 가운데, 중졸 이하 계층에서는 은행(5.2%)을 통한 가입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II-20〉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93.5	97.4	95.8
직판	1.3	0.7	3.4
은행	5.2	3.0	2.9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가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면채널 가입이 95%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소득층에서는 직판(3.1%), 저소득층에서는 은행(4.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1〉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5.2	96.9	96.4
직판	0.0	1.4	3.1
은행	4.1	3.1	2.8

나. 생명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1) 조사 목적

- 보험 종목별 생명보험 가입 경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종목별 가입경로 선택 성향을 파악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모든 보험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직판 채널과 은행을 통한 가입은 대부분 보험 종목에서 5% 이하로 낮게 나타남.
- 보험 상품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축의 성격이 강한 저축성보험은 대면채널 (94.5%)을 통한 가입률이 타 보험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낮고, 은행(4.9%)을 통한 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2〉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저축성보험	사망보장보험	질병보장보험	변액보험
대면	94.5	98.8	95.6	100.0
직판	1.3	0.6	1.4	0.0
은행	4.9	0.3	1.9	0.0

3) 저축성보험

■ 저축성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저축성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4.5%로 가장 높고, 은행은 4.9%,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23〉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면	91.5	86.9	92.7	96.5	94.7	89.7	93.2	94.5
직판	4.4	1.6	2.7	0.8	2.0	2.8	0.9	1.3
은행	4.1	9.6	4.1	2.4	2.0	3.7	5.4	4.9

■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여성이 94.8%로 남성(94.1%)보다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남성은 은행(5.9%)을 통한 가입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4〉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4.1	94.8
직판	0.7	1.7
은행	5.9	4.0

■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40대가 96.9%로 특히 높음.
- 반면, 30대(92.0%), 50대(92.4%)가 타 연령 대비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대는 은행을 통한 가입이 7.5%로 타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25〉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95.0	92.0	96.9	92.4	96.8
직판	0.0	1.3	1.0	3.0	0.0
은행	7.5	5.3	3.1	4.5	6.5

■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저축성보험 가입이 중소도시(98.0%), 대도시(91.9%), 군지역(85.0%)순으로 나타남.

〈표 II-26〉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도시	대면	90.8	91.7	96.5	96.4	96.9	90.0	92.5	91.9
	직판	4.2	1.4	2.4	1.8	0.8	2.7	1.9	0.7
	은행	5.0	6.2	1.2	1.8	2.4	4.5	3.7	7.4
중소도시	대면	90.3	83.1	91.7	96.6	91.1	89.5	95.0	98.0
	직판	5.6	1.4	2.8	0.0	4.4	3.5	0.0	2.0
	은행	4.1	11.3	4.6	2.5	2.2	2.3	5.9	1.3
군지역	대면	100.0	80.8	84.0	95.7	96.7	88.9	85.7	85.0
	직판	0.0	3.8	4.0	0.0	0.0	0.0	0.0	0.0
	은행	0.0	19.2	12.0	4.3	0.0	5.6	14.3	15.0

주: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모든 직업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자영업에서 98.7%로 특히 높게 나타남.
- 한편, 은행을 통한 가입은 화이트칼라(7.1%)와 주부(3.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27〉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91.8	94.0	98.7	0.0	96.4	100.0	83.3
직판	2.0	1.5	0.0	0.0	1.8	0.0	0.0
은행	7.1	3.0	2.6	100.0	3.6	0.0	16.7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많은 가운데, 대재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직판(2.1%)을 통한 가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8〉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100.0	94.2	94.4
직판	0.0	0.6	2.1
은행	14.3	4.5	4.9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소득에 상관없이 대면채널 가입 비율이 95% 내외로 압도적인 가운데, 은행을 통한 가입 비율은 중소득(6.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9〉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6.0	94.0	94.6
직판	0.0	0.9	1.8
은행	0.0	6.8	4.2

주: 저소득은 표본수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4) 사망보장보험

■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 사망보장보험 가입자의 98.8%가 대면채널을 통하여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판(0.6%)과 은행(0.3%)을 통한 가입은 1% 이하 수준임.

〈표 II-30〉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면	97.4	98.3	96.3	96.9	97.2	95.4	97.7	98.8
직판	1.6	0.2	1.1	0.3	0.9	1.1	0.3	0.6
은행	1.0	1.2	1.4	0.9	0.3	1.4	0.7	0.3

■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자와 여자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사망보장보험 가입이 98% 이상으로 압도적임.

〈표 II-31〉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8.2	99.4
직판	1.2	0.0
은행	0.6	0.0

■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모든 연령대에서 95%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20대, 40대, 60대 이상에서는 모두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32〉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100.0	97.3	100.0	97.3	100.0
직판	0.0	0.0	0.0	2.7	0.0
은행	0.0	1.3	0.0	0.0	0.0

■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대면채널을 통한 사망보장보험 가입 비율은 95% 내외 수준이며, 직판과 은행을 통한 가입 비율은 1%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33〉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도시	대면	97.7	98.0	98.7	94.6	98.7	96.3	96.7	98.7
	직판	1.7	0.5	0.6	0.7	0.0	0.0	0.7	0.6
	은행	0.6	1.5	0.6	1.4	0.0	1.5	0.0	0.6
중소도시	대면	98.4	99.5	94.5	99.3	95.9	94.4	98.5	98.6
	직판	0.5	0.0	1.2	0.0	2.1	1.6	0.0	0.7
	은행	1.1	0.0	1.8	0.7	0.0	1.6	1.5	0.0
군지역	대면	93.5	93.5	94.1	96.4	95.8	96.0	100.0	100.0
	직판	4.3	0.0	2.9	0.0	0.0	4.0	0.0	0.0
	은행	2.2	6.5	2.9	0.0	4.2	0.0	0.0	0.0

주: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모든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비율이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4〉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무직/기타
대면	97.8	96.4	100.0	100.0	100.0	100.0
직판	0.0	3.6	0.0	0.0	0.0	0.0
은행	1.1	0.0	0.0	0.0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사망보장보험 가입이 높게 나타남.

〈표 II-35〉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100.0	99.4	97.9
직판	0.0	0.6	0.7
은행	0.0	0.0	0.7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압도적으로 높음.

〈표 II-36〉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100.0	99.3	97.9
직판	0.0	0.0	1.4
은행	0.0	0.7	0.0

주: 저소득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질병보장보험

■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 질병보장보험은 대면채널 가입률이 95.6%로 가장 높아 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설계사와 같은 전통적 채널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표 II-37〉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면	86.9	93.0	94.4	95.4	95.9	94.9	94.2	95.6
직판	11.9	3.0	1.4	1.2	1.1	2.1	2.1	1.4
은행	1.3	2.0	1.9	1.5	1.2	0.6	1.7	1.9

■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8〉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5.0	96.0
직판	1.0	1.8
은행	2.1	1.8

■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전 연령대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내외로 나타났으며, 직판과 은행을 통한 가입은 3% 이하임.

〈표 II-39〉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94.8	95.6	97.6	93.4	95.9
직판	2.6	2.5	1.0	1.1	0.6
은행	2.6	0.6	1.5	2.7	2.3

■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대도시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95% 내외 수준으로 높음.

〈표 II-40〉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도시	대면	91.7	94.2	95.7	95.1	95.0	95.1	94.8	95.0
	직판	7.5	2.2	2.0	1.2	1.3	1.6	2.1	1.2
	은행	0.8	1.9	1.0	1.0	0.8	0.7	1.3	1.7
중소도시	대면	81.6	91.6	93.3	95.5	96.8	94.0	93.6	96.2
	직판	16.4	3.8	1.1	1.0	0.9	2.9	1.9	1.9
	은행	2.0	1.7	2.2	2.1	1.4	0.6	1.9	1.4
군지역	대면	94.1	92.7	92.9	96.1	96.2	98.4	94.1	95.5
	직판	5.9	3.7	0.0	1.3	1.3	1.6	2.9	0.0
	은행	0.0	3.7	5.7	1.3	2.6	0.0	2.9	6.0

■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직업별로 모든 직업군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1〉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95.6	93.8	97.1	60.0	97.9	85.0	90.5
직판	3.9	1.1	0.0	0.0	1.0	0.0	4.8
은행	1.1	3.4	0.8	40.0	0.5	10.0	4.8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수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모든 학력수준에서 95% 이상으로 높음.
- 직판과 은행을 통한 가입률은 1%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졸 이하에서는 모두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42〉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100.0	99.4	97.9
직판	0.0	0.6	0.7
은행	0.0	0.0	0.7

주: 중졸 이하는 표본수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97% 이상으로 높으며, 저소득층에서는 모두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43〉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100.0	99.3	97.9
직판	0.0	0.0	1.4
은행	0.0	0.7	0.0

다.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1) 조사 목적

-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 구입 의향과 가입 경로를 파악하여 성장 가능성이 있는 판매채널을 알아보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보험 가입 시 판매채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5.8%로 가장 높았으며, 직판이 7.1%, 은행은 8.8%로 나타남.

- 직판채널(7.1%)과 은행채널(8.8%)의 향후 선호도가 현재 채널 선호도(직판 1.9%, 은행 3.2%)보다 높다는 점에서 향후 두 채널의 잠재적 성장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임.

〈표 II-44〉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단위: %)

구분	현행	향후 선호
대면	96.4	85.8
직판	1.9	7.1
은행	3.2	8.8
기타	1.8	4.9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3) 세부 분석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 남성과 여성 모두, 향후 생명보험 가입 시 선호 채널로 대면채널을 가장 많이 꼽음.

〈표 II-45〉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82.2	89.8
직판	9.9	4.1
은행	8.9	8.7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모든 연령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0% 내외로 높은 가운데, 30대가 89.4%로 가장 높고, 20대는 79.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한편, 20대의 직판채널 선호도는 16.0%로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6〉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20대	79.8	16.0	7.4
30대	89.4	6.7	9.6
40대	86.5	6.7	5.8
50대	85.5	0.0	16.1
60대 이상	88.9	0.0	6.7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향후 대면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가입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한편, 직판채널과 은행채널에 대한 선호는 중소도시, 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7〉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대도시	79.7	9.6	10.2
중소도시	89.4	5.6	8.1
군지역	97.1	2.9	5.9

주: 군지역은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모든 직업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주부에서 94.9%로 특히 높음.
- 한편,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블루칼라(1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8〉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82.7	81.1	89.5	0.0	94.9	66.7	76.9
직판	9.1	12.6	3.8	0.0	1.3	0.0	15.4
은행	12.7	7.4	6.7	100.0	6.3	16.7	7.7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향후 생명보험 가입 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모든 학력 계층에서 83% 이상으로 가장 높음.

〈표 II-49〉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중졸 이하	94.4	0.0	5.6
고졸	87.7	5.3	7.0
대재 이상	83.9	9.2	10.1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모든 보험 종목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5% 내외 수준으로 가장 높음.
- 한편,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질병보장보험(8.7%)이, 은행채널에 의한 선호도는 저축성보험(13.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0〉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질병보장보험	84.1	8.7	2.4
사망보장보험	90.8	5.3	1.3
저축성보험	81.7	5.0	13.2
변액보험	92.9	1.8	3.6

주: 변액보험은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라.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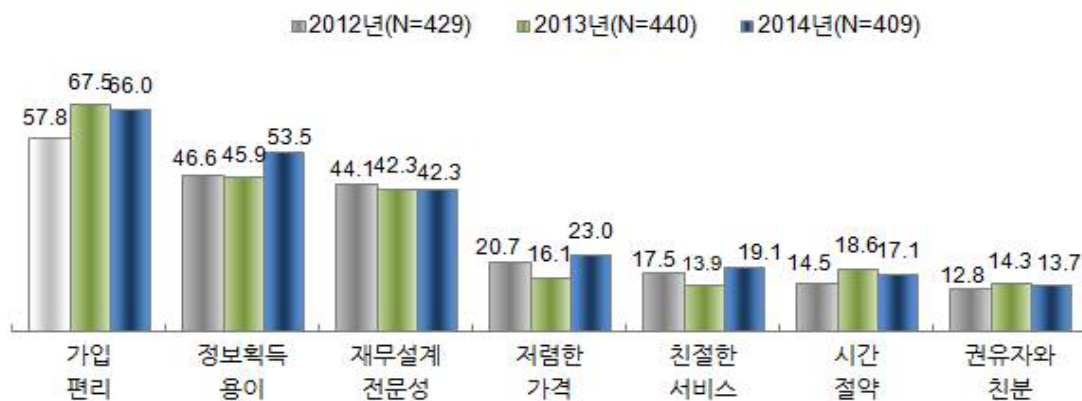
- 향후 1년 내 상품 구입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입경로에 대한 선호 이유를 종목별로 파악하여, 향후 새로운 판매채널 개발의 참고 자료로 활용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선호하는 가입 경로에 대한 이유로는 가입 편리성(58.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정보획득의 용이성(49.3%), 재무 설계의 전문성(34.5%)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4〉 생명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 향후 보험 가입 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가입 편리성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정보획득의 용이성(57.5%), 재무 설계의 전문성(4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직판채널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시간 절약(82.8%)과 가입 편리(79.3%)를 선택했고, 은행채널의 경우에는 높은 접근성을 활용한 가입의 편리성(72.2%)을 선호하는 이유로 선택함.

〈표 II-51〉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가입 편리	64.4	79.3	72.2
정보획득 용이	57.5	37.9	58.3
재무 설계 전문성	44.7	27.6	66.7
저렴한 가격	24.5	20.7	22.2
친절한 서비스	20.8	13.8	22.2
시간 절약	10.3	82.8	25.0
권유자 친분	15.4	3.4	16.7

주: 1)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2) 직판과 은행채널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이유: 대면채널

- 보험 종목별 향후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선호 이유로는 모든 보험 종목에서 가입 편리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정보획득 용이성과 재무 설계의 전문성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남.
- 변액보험을 대면채널로 선호하는 이유의 경우 다른 보험 상품과는 달리 재무 설계의 전문성(46.2%)이 가입의 편리성(59.6%)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 II-52〉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대면채널(복수응답)

(단위: %)

구분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가입 편리	55.7	55.1	54.7	59.6
정보획득 용이	55.2	53.6	50.8	44.2
재무 설계 전문성	40.2	43.5	46.4	46.2
저렴한 가격	20.1	20.3	21.2	17.3
친절한 서비스	5.2	17.4	17.3	17.3
시간 절약	17.2	2.9	16.2	17.3
권유자 친분	11.5	7.2	4.5	11.5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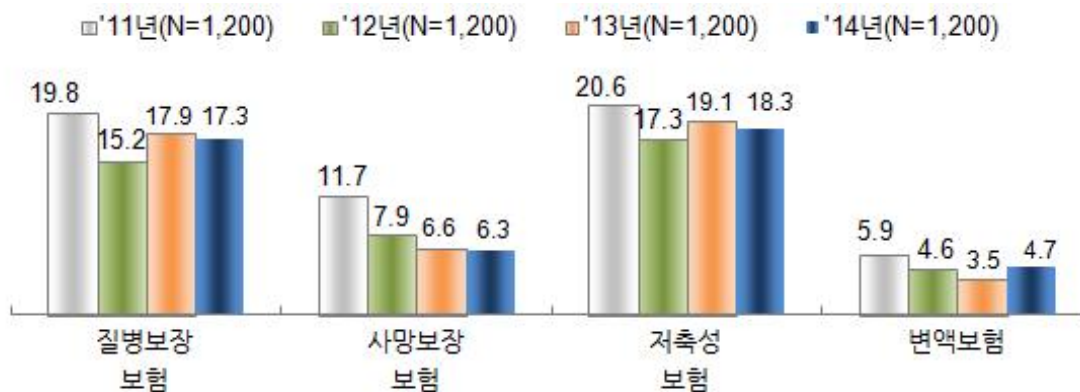
1) 조사 목적

- 향후 1년 이내 생명보험 상품 종목별 가입 의향을 조사하여 미래 보험가입 수요 예측과 시장 성장성 분석에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모든 보험 종목의 가입 의향 비율이 20% 미만 수준으로 나타남.
 - 종목별로는 변액보험의 가입 의향이 전년대비 1.2%p 상승한 4.7%로 나타났으며, 질병보장보험(17.3%), 사망보장보험(6.3%), 저축성보험(18.3%)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5〉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변액보험 가입 의향은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 그리고 저축성보험은 소폭 감소함.

- 변액보험의 향후 가입 의향이 전년도(3.5%)에 비하여 4.7%로 높아져 수요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음.

〈표 II-53〉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질병보장 보험	사망보장 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기타
2013년	17.9	6.6	19.1	3.5	4.0
2014년	17.3	6.3	18.3	4.7	4.9
2013년 대비 가입 의향(%p)	-0.6	-0.3	-0.8	+1.2	+0.9

- 각 보험 종목별 비가입자의 향후 가입 의향을 살펴보면,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가입 의향이 24.6%로 가장 높았음.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의 뒤를 이어 연금보험 10.8%, 저축성보험 10.5%, 종신보험 8.1%, 치명적 질병보험 8.0%, 재해중점보장보험 5.2% 등의 순이며, 그 외 보험 종목의 향후 가입 의향은 5% 이하로 나타남.

〈표 II-54〉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가입자	비가입자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67.1	5.6	24.6
재해중점보장보험	13.4	3.1	5.2
종신보험	26.8	1.6	8.1
저축성보험	8.5	9.8	10.5
연금보험	19.2	3.5	10.8
교육보험	1.5	0.0	1.6
치명적 질병보험	9.8	5.9	8.0
변액연금보험	2.3	0.0	2.6
변액유니버설보험	1.9	0.0	2.0
변액종신보험	1.2	0.0	1.5

나.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성별, 결혼 여부별

- 미혼자 가입 의향은 모든 보험 종목에서 기혼자보다 높게 나타남.
- 미혼 남성은 저축성보험 가입 의향이 31.0%로 가장 높았고, 질병보장보험이 24.1%로 뒤를 이음.
- 미혼 여성은 질병보장보험(27.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축성보험(17.7%), 사망보장보험(8.3%)순으로 나타남.

〈표 II-55〉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

구분		질병보장 보험	사망보장 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기타보험
남성	기혼	13.9	4.7	15.7	5.6	3.6
	미혼	24.1	15.9	31.0	4.8	12.4
여성	기혼	16.3	4.7	16.9	4.1	3.9
	미혼	27.1	8.3	17.7	3.1	5.2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별

- 기타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 종목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20대의 향후 보험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특히, 20대는 저축성보험(27.6%)과 질병보장보험(26.6%)의 가입 의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56〉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별

(단위: %)

구분	질병보장 보험	사망보장 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기타
20대	26.6	14.1	27.6	5.5	10.1
30대	20.1	7.9	25.5	6.3	6.3
40대	18.3	5.6	19.8	5.6	3.7
50대	12.7	4.7	15.7	4.2	3.0
60대 이상	10.5	1.2	5.0	1.9	2.7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직업별

- 화이트칼라는 모든 보험 종목에서 보험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저축성보험(20.6%)과 질병보장보험(20.2%)의 가입 의향이 다른 보험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7〉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직업별

(단위: %)

구분	질병보장 보험	사망보장 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기타
화이트칼라	20.2	8.1	20.6	7.0	5.9
블루칼라	19.8	8.9	19.8	4.3	5.4
자영업	14.1	4.7	17.3	2.9	3.8
농/임/어업	16.7	0.0	0.0	0.0	0.0
주부	16.9	3.7	17.8	5.8	5.0
은퇴자	9.4	0.0	9.4	3.1	3.1
무직/기타	16.3	12.2	14.3	2.0	6.1

주: 은퇴자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가구 소득별

- 저축성보험의 가입 의향은 고소득(21.6%) 가구가 저소득(7.0%), 중소득(19.9%) 가구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명보험 가입 의향이 높게 나타남.

〈표 II-58〉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질병보장 보험	사망보장 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기타
저소득	16.4	4.2	7.0	1.9	4.7
중소득	17.2	6.8	19.9	4.0	4.0
고소득	17.7	6.8	21.6	6.8	6.1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가. 생명보험 보상 위험 분석 및 보상 서비스

1) 조사 목적

- 생명보험회사로부터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응답자의 관련 경험 자료를 조사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가입 당시 직원의 도움 여부 및 만족도 등을 분석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 가구(N=1,030) 중 26.1%가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도(22.3%) 대비 3.8%p 증가함.

〈그림 II-6〉 생명보험 보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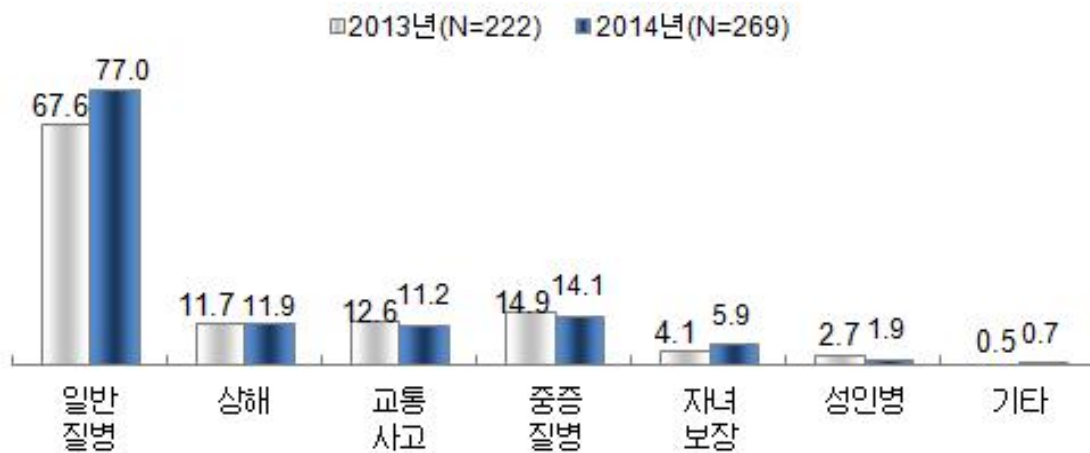
(N=1,030 / 단위: %)



- 보상 항목으로 여전히 일반질병이 77.0%로 가장 많고, 그 외 중증질병(14.1%), 상해(11.9%), 교통사고(11.2%), 자녀 보장(5.9%), 그리고 성인병(1.9%) 등의 순임.
- 교통사고(-1.4%p)와 성인병(-0.8%p), 중증질병(-0.8%p)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일반질병(+9.4%p), 상해(+0.2%p), 자녀보장(+1.8%p)에 의한 보험금 지급 비율은 상승함.

〈그림 II-7〉 생명보험 보상 항목(복수응답)

(단위: %)



- 한편, 보험금 수령자(N=269) 10명 중 약 8명(78.8%)이 보험금 지급 신청 절차 및 과정에서 가입 당시 설계사 및 직원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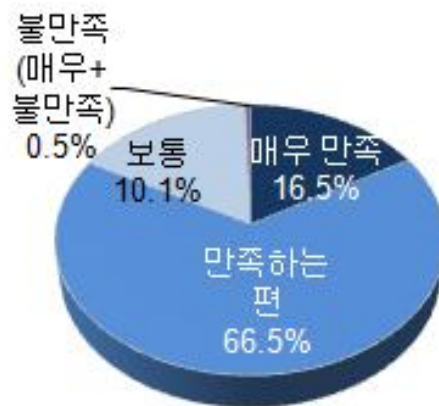
〈그림 II-8〉 보험금 지급 시 도움 여부

(N=269)



- 보험금 지급 시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 및 직원의 도움을 받은 응답자(N=212)의 83.0%가 보험설계사 및 직원의 도움에 대해 만족(만족하는 편 66.5% + 매우 만족 16.5%)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가입 당시 설계사 및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진행과정에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림 II-9〉 보험금 지급 시 도움에 대한 만족도 (N=212)



3) 세부분석

- 생명보험 보상 위험: 연령별
- 일반질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전 연령층에서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30대에서 83.7%로 가장 높았음.
- 중증질병은 60대 이상(18.2%), 상해는 40대(15.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 -59〉 생명보험 보상 항목: 연령별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일반질병	77.0	75.0	83.7	72.3	79.4	75.8
중증질병	14.1	15.6	4.7	12.3	17.5	18.2
상해	11.9	21.9	9.3	15.4	6.3	10.6
교통사고	11.2	9.4	7.0	18.5	7.9	10.6
자녀에 대한 보장	5.9	0.0	4.7	16.9	3.2	1.5
성인병	1.9	0.0	0.0	3.1	3.2	1.5
저축	1.1	0.0	0.0	1.5	1.6	1.5
사망	0.4	0.0	0.0	1.5	0.0	0.0
재산손실	0.4	0.0	0.0	0.0	1.6	0.0
기타	0.7	3.1	0.0	0.0	0.0	1.5
생명보험 전체	26.1	19.0	20.6	27.2	30.0	32.4

주: 생명보험 전체는 보상 경험률이며, 20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보상 위험: 지역, 가구 소득별

- 지역 규모, 소득에 상관없이 일반질병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가장 많은 가운데, 대도시(70.8%)의 보상 경험이 중소도시에 비해 높고, 중증질병 역시 대도시(17.9%)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상해로 인한 보상 경험은 중소도시(13.1%)가 대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저소득 가구에서 일반질병에 대한 보상 경험이 80.0%로 중소득, 고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증질병에 대한 보상 경험은 중소득(15.8%)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60〉 생명보험 보상 항목: 지역,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전체	거주 지역별			가구 소득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일반질병	77.0	70.8	82.0	78.0	80.0	77.2	75.9
중증질병	14.1	17.9	11.5	12.2	11.4	15.8	13.5
상해	11.9	12.3	13.1	7.3	5.7	10.9	14.3
교통사고	11.2	12.3	9.8	12.2	5.7	7.9	15.0
자녀에 대한 보장	5.9	5.7	6.6	4.9	0.0	4.0	9.0
성인병	1.9	1.9	1.6	2.4	5.7	2.0	0.8
저축	1.1	0.9	1.6	0.0	2.9	0.0	1.5
사망	0.4	0.9	0.0	0.0	0.0	0.0	0.8
재산손실	0.4	0.9	0.0	0.0	0.0	1.0	0.0
기타	0.7	0.9	0.8	0.0	2.9	1.0	0.0
생명보험 전체	26.1	21.8	26.5	49.4	22.4	22.3	31.6

주: 생명보험 전체는 보상 경험률이며,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보험금 지급 시 도움 여부: 특성별

○ 보험금 지급 시 가입 당시 설계사 및 직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7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군지역(90.2%), 남성(81.9%), 30대(90.7%), 화이트칼라(79.0%), 중졸 이하(93.3%), 그리고 저소득(9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61〉 보험금 지급 시 도움 여부: 특성별

(단위: %)

특성별		예	아니오
지역규모	대도시	72.6	27.4
	중소도시	80.3	19.7
	군지역	90.2	9.8
성별	남성	81.9	18.1
	여성	76.5	23.5
응답자 연령	20대	71.9	28.1
	30대	90.7	9.3
	40대	75.4	24.6
	50대	74.6	25.4
	60대 이상	81.8	18.2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79.0	21.0
	블루칼라	72.0	28.0
	자영업	78.1	21.9
	농/임/어업	100.0	0.0
	주부	87.1	12.9
	은퇴자	71.4	28.6
	무직/기타	66.7	33.3
응답자 학력	중졸 이하	93.3	6.7
	고졸	76.2	23.8
	대재 이상	78.5	21.5
가구 소득	저소득	91.4	8.6
	중소득	77.2	22.8
	고소득	76.7	23.3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보험금 지급 시 도움에 대한 만족도: 특성별

○ 보험금 지급 신청 및 과정에서 설계사 및 직원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계층에서 4점 내외 수준인 가운데, 군지역(4.03점), 남성(4.00점), 40대(4.08점), 자영업(4.04점), 중졸 이하(4.14점), 그리고 중소득(4.01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Ⅱ-62〉 보험금 지급 시 도움에 대한 만족도: 특성별

(단위: %)

특성별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점)
지역규모	대도시	0.0	14.3	85.7	3.94
	중소도시	1.0	17.3	81.6	4.01
	군지역	0.0	18.9	81.1	4.03
성별	남성	0.0	16.8	83.2	4.00
	여성	0.9	16.2	82.9	3.97
응답자 연령	20대	0.0	13.0	87.0	3.91
	30대	2.6	17.9	79.5	3.87
	40대	0.0	16.3	83.7	4.08
	50대	0.0	21.3	78.7	3.94
	60대 이상	0.0	13.0	87.0	4.06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0.0	20.4	79.6	3.92
	블루칼라	0.0	19.4	80.6	4.00
	자영업	0.0	14.0	86.0	4.04
	농/임/어업	0.0	33.3	66.7	3.67
	주부	1.9	14.8	83.3	3.98
	은퇴자	0.0	20.0	80.0	4.20
	무직/기타	0.0	0.0	100.0	4.00
응답자 학력	중졸 이하	0.0	10.7	89.3	4.14
	고졸	0.0	15.6	84.4	4.03
	대재 이상	1.4	20.5	78.1	3.85
가구 소득	저소득	0.0	21.9	78.1	3.97
	중소득	0.0	14.1	85.9	4.01
	고소득	1.0	16.7	82.4	3.97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나.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1) 조사 목적

- 소비자의 생명보험 상품 가입 이유를 파악하여 향후 보험 상품 판매, 특히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위험에 대비한 보장(95.5%)을 생명보험 가입 이유로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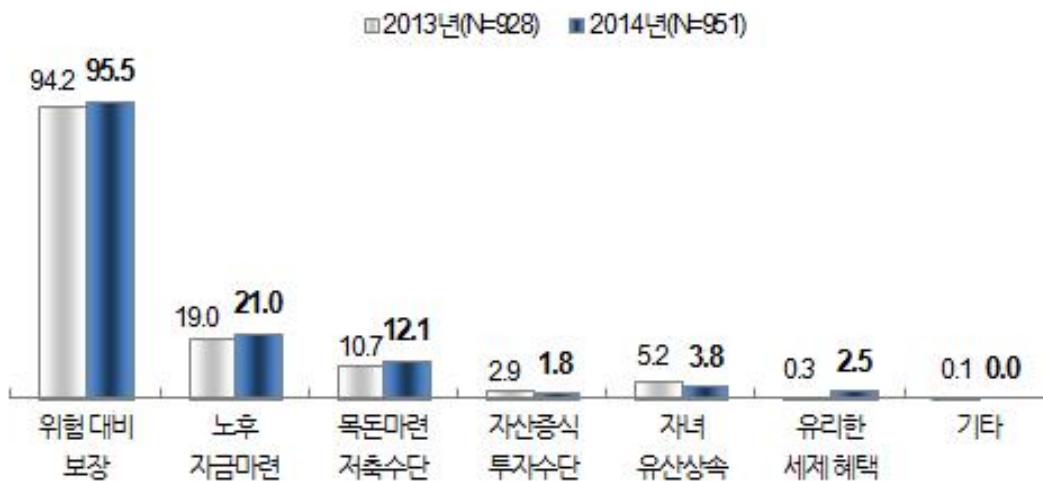
○ 이는 생명보험이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보험의 근본적인 목적이 적절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노후자금 마련(21.0%)과 목돈마련 저축수단(12.1%) 이유가 전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노후준비와 저축수단으로써의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전년에 비하여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유산상속, 자산증식, 자녀교육, 세제혜택을 위한 보험 가입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음.

〈그림 II-10〉 생명보험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 보험종목별 가입 이유

○ 보험종목별로 가입 이유를 살펴보면, 질병보장보험(97.8%)과 사망보장보험(70.1%)의 경우 위험보장을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가입 이유로 노후자금 마련(54.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외에도 저축수단(26.9%), 위험에 대비한 보장(21.1%)을 가입 이유로 꼽아 노후 대비 자금 마련, 저축수단 기능, 그리고 위험보장 등 다양한 목적이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에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변액보험은 노후자금 마련(39.7%), 위험에 대비한 보장(38.1%)을 가입 이유로 꼽았으며, 특히 자산증식(4.8%)에 대한 비율이 다른 보험 상품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3〉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 보장	노후자금 마련	세제혜택	저축수단	자산증식	유산상속	기타
질병보장보험	97.8	1.0	1.0	0.4	0.1	0.1	-
사망보장보험	70.1	5.9	3.1	10.0	1.9	8.7	0.3
저축성보험	21.1	54.5	1.6	26.9	2.9	1.6	0.3
변액보험	38.1	39.7	1.6	15.9	4.8	3.2	-
기타	98.1	1.2	0.6	-	-	-	-

3) 저축성보험

■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높음.
-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은 여성(31.2%)과 20대(45.0%)에서 가장 높고, 위험에 대비한 보장은 여성(23.1%), 20대(25.0%)와 60대 이상(25.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64〉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노후자금 마련	60.7	49.7	30.0	56.0	60.4	57.6	58.1
저축수단	21.5	31.2	45.0	26.7	20.8	28.8	19.4
위험보장	18.5	23.1	25.0	18.7	21.9	18.2	25.8
자산증식	3.0	2.9	7.5	4.0	3.1	0.0	0.0
세제혜택	0.7	2.3	2.5	4.0	0.0	1.5	0.0
유산상속	0.0	2.9	2.5	0.0	2.1	3.0	0.0
기타	0.7	0.0	0.0	0.0	0.0	1.5	0.0

주: 20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지역 규모에 상관 없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음.
-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로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은 대도시(27.9%)와 중소도시(27.6%)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군지역(15.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5〉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노후자금 마련	52.2	55.9	60.0
저축수단	27.9	27.6	15.0
위험보장	23.5	17.8	30.0
자산증식	4.4	1.3	5.0
세제혜택	2.2	1.3	0.0
유산상속	1.5	2.0	0.0
기타	0.0	0.7	0.0

주: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모든 직업군에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가 가장 높은 가운데, 블루칼라(58.2%)가 가장 높음.
- 한편,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은 자영업(35.9%)에서, 위험보장은 화이트칼라(2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6〉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노후자금 마련	57.1	58.2	50.0	100.0	50.0	100.0	50.0
저축수단	22.4	22.4	35.9	0.0	28.6	0.0	33.3
위험보장	24.5	17.9	21.8	0.0	19.6	0.0	16.7
자산증식	2.0	6.0	1.3	0.0	3.6	0.0	0.0
세제혜택	3.1	1.5	0.0	0.0	1.8	0.0	0.0
유산상속	0.0	1.5	1.3	0.0	5.4	0.0	0.0
기타	0.0	0.0	1.3	0.0	0.0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사망보장보험

■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한 이유로 남녀노소 모두 위험보장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20대(84.2%)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한편, 저축수단은 여성(12.3%)과 40대(14.6%), 자산증식은 남성(12.6%)과 30대(1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7〉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위험보장	70.1	70.1	84.2	66.7	65.2	72.6	69.6
저축수단	7.8	12.3	2.6	6.7	14.6	12.3	8.7
자산증식	12.6	4.5	0.0	13.3	9.0	5.5	13.0
노후자금 마련	6.0	5.8	10.5	5.3	5.6	4.1	6.5
유산상속	1.8	4.5	2.6	4.0	4.5	1.4	2.2
세제혜택	1.2	2.6	0.0	4.0	1.1	2.7	0.0

주: 20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이유로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가장 높음.
- 한편, 저축수단으로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중소도시(15.9%)가 군 지역(7.1%), 대도시(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8〉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위험보장	71.6	69.6	64.3
저축수단	5.2	15.9	7.1
유산상속	12.9	4.3	7.1
노후자금 마련	3.2	8.0	10.7
세제혜택	5.2	0.0	7.1
자산증식	1.9	1.4	3.6
기타	0.0	0.7	0.0

주: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모든 직업군에서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로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60% 이상으로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주부(73.3%), 블루칼라(71.4%), 화이트칼라

(7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저축수단 목적으로 한 보험 가입은 주부(1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9〉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위험보장	70.3	71.4	66.7	100.0	73.3	100.0	66.7
저축수단	3.3	7.1	14.8	0.0	15.0	0.0	0.0
유산상속	9.9	8.9	11.1	0.0	3.3	0.0	0.0
노후자금 마련	5.5	10.7	3.7	0.0	6.7	0.0	0.0
세제혜택	4.4	1.8	2.8	0.0	1.7	0.0	33.3
자산증식	6.6	0.0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9	0.0	0.0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질병보장보험

■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로는 남녀노소 모두 위험 대비 목적 응답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70〉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위험보장	97.9	97.8	97.4	96.3	100.0	96.7	98.3
노후자금 마련	0.5	1.3	0.9	1.9	0.0	0.5	1.7
세제혜택	1.0	0.9	0.9	0.6	0.0	2.7	0.6
저축수단	0.3	0.4	0.9	0.0	0.5	0.5	0.0
자산증식	0.3	0.0	0.0	0.6	0.0	0.0	0.0
유산상속	0.3	0.0	0.0	0.6	0.0	0.0	0.0

■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 전 지역에서 위험보장을 위해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95% 이상임.

〈표 II-71〉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위험보장	97.5	97.8	100.0
노후자금 마련	0.2	1.6	1.5
세제혜택	1.5	0.5	0.0
저축수단	0.2	0.5	0.0
자산증식	0.2	0.0	0.0
유산상속	0.2	0.0	0.0

■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위험에 대비한 보장으로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모든 직업군에서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2〉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위험보장	97.2	98.9	97.5	100.0	97.9	95.0	100.0
저축수단	1.7	0.0	0.4	0.0	1.6	5.0	0.0
자산증식	0.6	0.6	1.7	0.0	0.5	5.0	0.0
노후자금 마련	0.0	0.0	0.4	0.0	1.0	0.0	0.0
세제혜택	0.0	0.6	0.0	0.0	0.0	0.0	0.0
기타	0.6	0.0	0.0	0.0	0.0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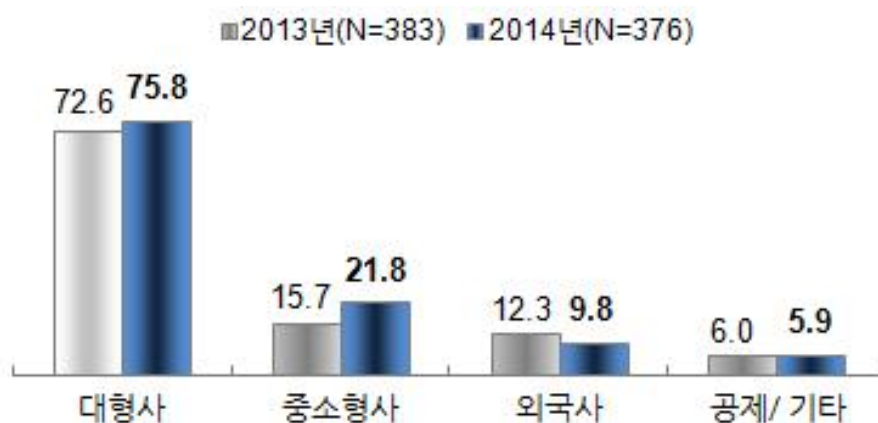
- 생명보험 회사군을 3개로 구분하여 국내 대형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별 가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각 회사별 잠재 수요층을 예측하여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내 생명보험회사 가입자(N=376) 10명 중 약 7명(75.8%)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3개 대형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 시장 내 대형 보험회사의 점유율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중소형사 21.8%, 외국사 9.8%, 공제/기타 5.9% 순임.
 - 대형사(+3.2%p)와 중소형사(+6.1%p)는 2013년 대비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외국사(-2.5%p), 공제/기타(-0.1%p)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1〉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단위: %)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성별

- 대형사 가입률은 남녀 모두에서 70%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대형사(76.9%)와 중소형사(24.5%)에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표 II-73〉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성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남성	74.4	18.1	10.6	6.3
여성	76.9	24.5	9.3	5.6

■ 생명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연령별

- 대형사의 가입률은 전 연령에서 65%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20대 (77.1%)와 30대(78.8%)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중소형사의 가입률은 40대(25.9%), 60대 이상(22.2%), 외국사 가입률은 60대 이상(1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4〉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연령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20대	77.1	18.8	6.3	4.2
30대	78.8	21.2	11.1	3.0
40대	76.5	25.9	10.6	10.6
50대	73.3	21.7	8.3	6.7
60대 이상	66.7	22.2	16.7	5.6

■ 생명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규모별로 대형사의 가입률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형사 가입률은 중소도시(2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5〉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대도시	76.6	19.4	11.4	5.1
중소도시	75.7	24.3	8.5	5.6
군지역	70.8	20.8	8.3	12.5

주: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직업별

- 대형사 가입률은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소형사 가입률은 화이트칼라(26.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76〉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직업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화이트칼라	73.5	26.5	11.5	4.4
블루칼라	78.8	20.0	8.8	5.0
자영업	76.1	21.7	10.9	7.6
농/임/어업	0.0	100.0	0.0	0.0
주부	77.6	15.8	7.9	7.9
은퇴자	60.0	20.0	20.0	0.0
무직/기타	77.8	22.2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학력별

- 모든 학력수준에서 대형사 가입률이 높은 가운데, 고졸(80.5%) 비율이 특히 높음.
- 한편, 중소형사 가입률은 중졸 이하(3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력수준이 낮아질수록 중소형사의 가입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Ⅱ-77〉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학력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중졸 이하	61.5	30.8	0.0	7.7
고졸	80.5	20.8	6.9	8.2
대재 이상	73.0	22.1	12.7	3.9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가구 소득별

- 모든 소득 계층에서 대형사를 통한 가입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저소득(82.1%) 이 중소득(71.1%)과 고소득(77.9%)가구에 비해 대형사 가입률이 더 높게 나타남.

〈표 Ⅱ-78〉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저소득	82.1	23.1	10.3	0.0
중소득	71.1	22.5	11.3	5.6
고소득	77.9	21.0	8.7	7.2

라. 생명보험 가입 회사 변경 의향

1) 조사 목적

- 기존 보험회사를 다른 보험회사로 변경할 것인지, 또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 회사를 다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의향과 그 이유를 파악하고자 함.
- 생명보험회사의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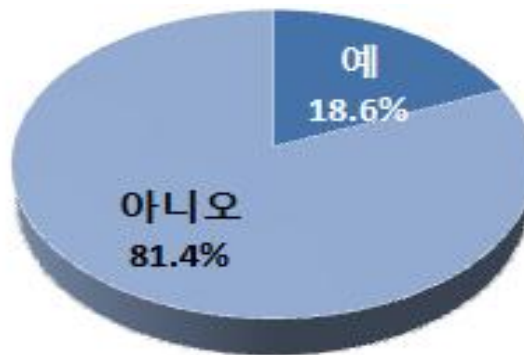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보험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면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현재 생명보험 가입자(N=951) 10명 중 약 2명(18.6%) 정도만이 변경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보험료 수준에 의한 회사변경 요인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 생명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을 살펴보면 대도시(25.4%)는 중소도시(12.4%), 군지역(11.8%)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II-12〉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N=951)



〈표 II-79〉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거주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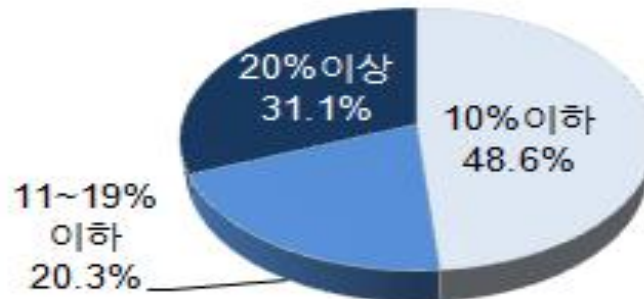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대도시	25.4	74.6
중소도시	12.4	87.6
군지역	11.8	88.2

■ 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177)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면 보험회사를 변경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10% 이하가 48.6%로 가장 많았고, 11~19% 이하 20.3%, 20% 이상 31.1%로 나타났으며, 평균 현 보험료의 14.3% 정도 저렴할 경우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3〉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가격

(N=177)



- 한편,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보험회사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응답자(N=774)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입한 보험회사의 신뢰성을 53.4%로 가장 많이 꼽음.

○ 다음으로 상품을 권유해 준 사람과 인간적 관계 27.3%, 제공된 서비스 만족 12.3%, 회사의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 5.2%, 기타 1.9% 순으로 나타남.

- 보험설계사 등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상품을 권유해 준 사람 또는 보험 설계사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 II-14〉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N=774 / 단위: %)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특성별

-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현 가입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21.1%)와 40대(20.9%), 주부(2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80〉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특성별

(단위: %)

특성별		예	아니오
응답자 연령	20대	15.9	84.1
	30대	21.1	78.9
	40대	20.9	79.1
	50대	16.8	83.2
	60대 이상	17.1	82.9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9.6	80.4
	블루칼라	17.6	82.4
	자영업	15.4	84.6
	농/임/어업	20.0	80.0
	주부	25.0	75.0
	은퇴자	9.1	90.9
	무직/기타	8.0	92.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가격: 특성별

- 현 보험료를 10% 이하로 인하할 때 보험회사를 변경하겠다는 응답은 군지역(77.8%), 40대(56.3%), 주부(53.8%), 월 보험료 61만 원 이상(54.5%) 납입 가구에서 특히 높음.
- 반면, 20% 이상 인하했을 때, 보험회사를 변경하겠다는 응답은 중소도시(40.4%), 60대 이상(40.6%), 월 보험료 30만 원 이하(50.0%) 납입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1〉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가격: 특성별

(단위: %)

특성별		10% 이하	11~19% 이하	20% 이상	평균
지역 규모	대도시	50.0	20.7	29.3	13.7
	중소도시	40.4	19.2	40.4	16.2
	군지역	77.8	22.2	0.0	11.1
응답자 연령	20대	40.9	22.7	36.4	15.4
	30대	46.3	19.5	34.1	14.1
	40대	56.3	20.8	22.9	13.5
	50대	47.1	26.5	26.5	13.8
	60대 이상	46.9	12.5	40.6	15.6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48.8	27.9	23.3	14.3
	블루칼라	42.9	20.0	37.1	14.6
	자영업	45.2	28.6	26.2	14.2
	농/임/어업	100.0	0.0	0.0	10.0
	주부	53.8	9.6	36.5	13.5
	은퇴자	0.0	0.0	100.0	40.0
	무직/기타	100.0	0.0	0.0	10.0
월 납입 보험료	30만 원 이하	40.5	9.5	50.0	16.3
	31만 원~60만 원	49.5	24.2	26.4	14.2
	61만 원 이상	54.5	22.7	22.7	12.6

주: 군지역, 20대,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거주 지역별

-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중소도시에서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상품 권유자와의 인간적 관계 때문이라는 응답은 대도시(32.3%)에서 높게 나타나 중소도시(22.7%), 군지역(26.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2〉 생명보험회사 변경 비의향 이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회사에 대한 신뢰성	50.4	56.8	49.3
상품 권유자와 인간적 관계	32.3	22.7	26.9
제공된 서비스 만족	9.4	14.8	13.4
회사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	6.5	3.3	9.0
기타	1.5	2.5	1.5

■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연령별

- 회사에 대한 신뢰성 때문이라는 의견은 전 연령에서 높은 가운데, 50대에
서 58.9%로 특히 높음.
- 한편, 상품 권유자와 인간적 관계는 30대(29.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3〉 생명보험회사 변경 비의향 이유: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회사에 대한 신뢰성	53.4	51.6	54.4	58.9	47.7
상품 권유자와 인간적 관계	28.4	29.4	26.9	25.0	27.1
제공된 서비스 만족	11.2	12.4	12.6	11.3	13.5
회사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	5.2	4.6	4.9	2.4	9.0
기타	1.7	2.0	1.1	2.4	2.6

■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학력별

-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모든
학력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상품 권유자와 인간적 관계에 대해서는 중졸 이하(34.3%)가 고졸(28.7%), 대
재 이상(24.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4〉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회사에 대한 신뢰성	41.8	52.2	56.6
상품 권유자와 인간적 관계	34.3	28.7	24.5
제공된 서비스 만족	11.9	12.5	11.9
회사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	7.5	4.7	5.3
기타	4.5	1.8	1.6

마.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분석

1) 조사 목적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보험 상품 만족도를 보험 종목별로 파악하여 서비스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내 가입한 5가지 보험 종목의 만족도는 3.8점 내외 수준으로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3년 내 생명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질병보장보험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저축성보험(8.9%), 그리고 사망보장보험(8.1%) 순으로 나타남.
 - 보험 종목별로는 변액보험(3.96점), 저축성보험(3.91점), 질병보장보험(3.83점), 그리고 사망보장보험(3.71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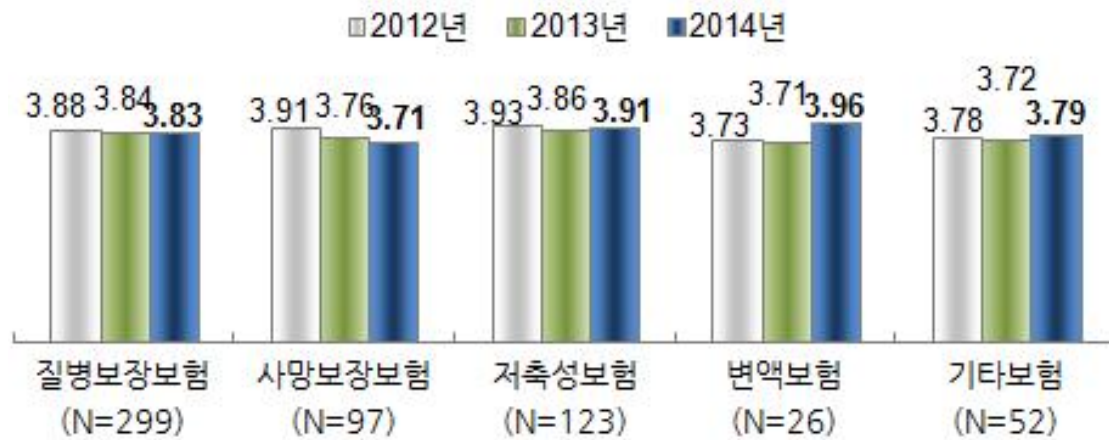
〈표 II-85〉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상품 만족도

구분	3년 내 가입률(%)	상품 만족도(점, 5점 척도)
질병보장보험	23.4	3.83
사망보장보험	8.1	3.71
저축성보험	8.9	3.91
변액보험	2.2	3.96
기타	4.3	3.79

주: 최근 3년 내 가입률로 전체 가입률과 차이가 있음.

〈그림 II-15〉 생명보험 종목별 만족도

(단위: 점, 5점 만점)



주: 사례 수는 2014년 기준임.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성별

- 전반적으로 생명보험상품 만족도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사망보장보험은 남성(3.67점)에 비해 여성(3.84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86〉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성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남성	여성
질병보장보험	3.81	3.86
사망보장보험	3.67	3.84
저축성보험	3.83	3.88
변액보험	3.67	3.74
기타	3.80	3.63

주: 변액보험, 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연령별

- 질병보장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40대(3.86점)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저축성보험은 20대의 만족도가 4.0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표 II-87〉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연령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질병보장보험	3.85	3.79	3.86	3.82	3.79
사망보장보험	3.83	3.63	3.88	3.54	3.33
저축성보험	4.03	3.94	3.82	3.81	4.00
변액보험	4.00	3.83	4.33	3.75	4.00
기타	3.82	3.82	3.67	4.00	3.83

주: 사망보장보험 내 20대, 50대, 60대 이상, 저축성보험 내 50대, 60대 이상, 변액보험과 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거주 지역별

- 전반적으로 지역별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질병보장보험(3.83점), 사망보장보험(3.81점)에 대한 만족도는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았고, 반면 저축성보험(3.95점)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았음.

〈표 II-88〉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거주 지역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질병보장보험	3.81	3.83	3.89
사망보장보험	3.64	3.81	3.71
저축성보험	3.95	3.88	3.67
변액보험	3.75	4.13	3.50
기타	3.64	3.83	4.00

주: 군지역, 변액보험 및 기타 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직업별

- 질병보장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자영업(3.85점),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화이트칼라(3.76점), 저축성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자영업(4.03점)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89〉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직업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질병보장보험	3.76	3.72	3.85	4.00	3.98	4.20	3.75
사망보장보험	3.76	3.57	3.63	-	4.00	-	4.00
저축성보험	3.85	3.93	4.03	-	3.84	-	-
변액보험	4.67	3.50	3.88	-	-	-	4.00
기타	3.54	3.82	3.83	-	4.00	4.00	4.00

주: 사망보장보험 내 블루칼라, 무직/기타, 저축성보험 내 무직/기타, 변액보험, 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학력별

○ 학력수준에 의한 보험 상품별 만족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90〉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학력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질병보장보험	4.17	3.79	3.83
사망보장보험	3.50	3.63	3.78
저축성보험	4.00	3.96	3.88
변액보험	4.00	4.11	3.88
기타	4.00	3.85	3.72

주: 중졸 이하, 변액보험, 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가구 소득별

○ 질병보장보험과 사망보장보험은 가구 소득에 따른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저축성보험 만족도에서 고소득(3.91점)가구와 저소득(3.56점)가구의 격차는 다른 보험상품의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표 II-91〉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가구 소득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질병보장보험	3.77	3.81	3.85
사망보장보험	3.56	3.69	3.75
저축성보험	3.56	4.00	3.91
변액보험	-	4.11	3.88
기타	3.88	3.87	3.72

주: 저소득층, 변액보험, 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바.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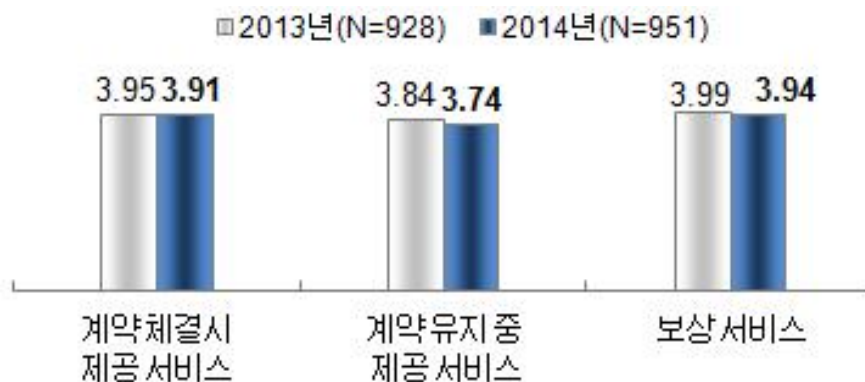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소비자 특성별로 분석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향후 생명보험회사의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자(N=951)를 대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보상 서비스가 3.94점, 계약 체결 시 서비스가 3.91점, 계약 유지서비스가 3.74점으로 서비스 단계별 만족도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그림 II-16〉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5점 만점)



주: 보상 서비스(N=251)는 보상 경험자의 만족도만을 측정함.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성별

○ 생명보험 서비스에 대한 남성과 여성과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92〉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성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남성	여성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3.90	3.93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73	3.76
보상서비스	3.94	3.93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연령별

-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만족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3.8점 이상으로 높음.
-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3.7점 이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는 3.68점으로 나타남.
- 보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3.8점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40대에서 4.05점으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II-93〉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연령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3.94	3.97	3.93	3.89	3.84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76	3.76	3.75	3.76	3.68
보상서비스	3.83	4.00	4.05	3.85	3.92

주: 보상서비스 내 20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거주 지역별

-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4.05점),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4.04점), 보상서비스(4.00점)에 대한 만족도는 군지역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94〉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거주 지역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3.89	3.91	4.05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69	3.74	4.04
보상서비스	3.89	3.96	4.00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직업별

- 계약 체결 시와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만족도, 보상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별로 비슷하게 나타남.

〈표 II-95〉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직업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3.94	3.87	3.89	4.00	3.96	3.82	3.96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80	3.67	3.74	3.80	3.74	3.77	3.84
보상서비스	3.89	3.83	3.96	4.00	4.02	4.00	4.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 계약 체결 시와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는 학력별로 만족도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보상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재 이상(3.98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96〉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3.94	3.91	3.92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81	3.73	3.75
보상서비스	3.96	3.90	3.98

주: 보상서비스 내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97〉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3.87	3.91	3.94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76	3.72	3.76
보상서비스	3.93	3.95	3.93

사.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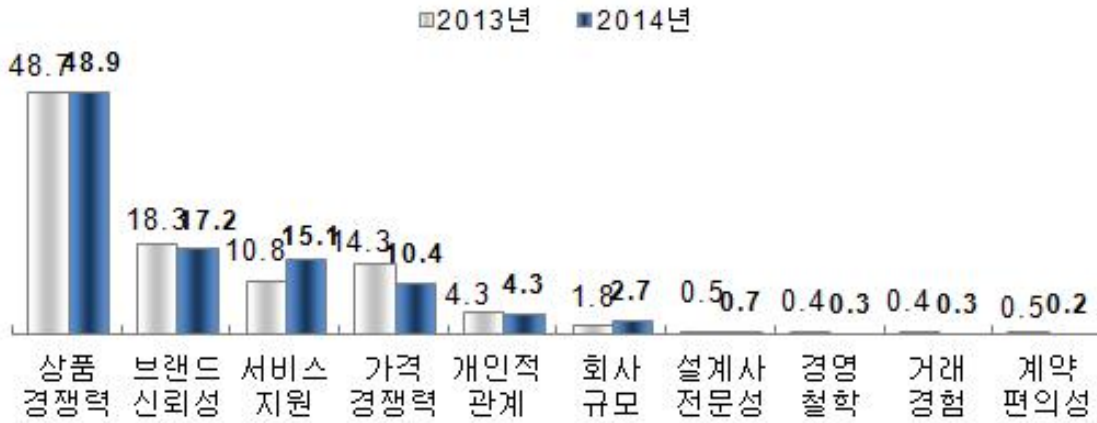
- 향후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의 고려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보험 니즈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소비자는 무엇보다 상품 경쟁력(48.9%)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성(17.2%), 가격 경쟁력(15.1%), 서비스 지원(10.4%), 개인적 관계(4.3%) 등의 순임.
- 상품 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전년 대비 0.2%p, 서비스 지원은 전년대비 4.3%p 증가한 반면, 브랜드 신뢰성은 1.1%p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II-17〉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N=1,200 / 단위: %)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성별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남녀 모두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98〉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성별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상품 경쟁력	48.9	50.7	47.2
브랜드 신뢰성	17.2	16.1	18.2
가격 경쟁력	15.1	14.7	15.4
서비스 지원	10.4	10.8	10.0
개인적 관계	4.3	3.7	4.8
회사규모	2.7	2.9	2.5
전문성	0.7	0.2	1.1
거래 경험	0.3	0.2	0.5
경영철학	0.3	0.3	0.3
계약 편리성	0.2	0.3	0.0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연령별

- 연령에 따른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의 큰 차이는 없는 가운데, 브랜드 신뢰성은 20대(20.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99〉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상품 경쟁력	48.7	51.9	53.0	41.9	48.4
브랜드 신뢰성	20.6	18.0	13.1	15.7	19.4
가격 경쟁력	13.1	12.6	17.2	16.5	15.5
서비스 지원	12.1	8.4	11.2	12.3	8.5
개인적 관계	3.5	3.3	2.6	6.4	5.4
회사규모	2.0	3.8	1.5	4.7	1.6
전문성	0.0	1.3	0.4	1.3	0.4
거래 경험	0.0	0.0	0.4	0.8	0.4
경영철학	0.0	0.4	0.4	0.4	0.4
계약 편리성	0.0	0.4	0.4	0.0	0.0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거주 지역별

-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지역 규모가 클수록 높아 대도시에서 49.5%로 가장 높음.
- 브랜드 신뢰성(19.6%), 서비스 지원(15.5%), 그리고 개인적 관계(5.2%)는 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00〉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상품 경쟁력	49.5	49.0	45.4
브랜드 신뢰성	18.3	15.6	19.6
가격 경쟁력	13.4	17.2	12.4
서비스 지원	9.5	10.5	15.5
개인적 관계	4.7	3.7	5.2
회사규모	3.4	2.0	2.1
전문성	0.5	0.9	0.0
거래 경험	0.2	0.6	0.0
경영철학	0.4	0.4	0.0
계약 편리성	0.2	0.2	0.0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직업별

- 모든 직업군에서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블루칼라(57.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표 II-101〉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주부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
상품 경쟁력	49.5	57.1	45.9	40.0	40.0	45.5	39.5
브랜드 신뢰성	14.0	13.0	20.4	20.0	20.0	22.7	26.3
가격 경쟁력	16.1	14.3	14.3	0.0	20.0	18.2	15.8
서비스 지원	11.7	6.9	11.6	0.0	0.0	9.1	10.5
개인적 관계	4.3	4.3	3.8	40.0	13.3	2.3	2.6
회사규모	2.3	2.6	3.2	0.0	6.7	0.0	2.6
전문성	0.8	1.3	0.4	0.0	0.0	0.0	0.0
거래 경험	0.8	0.4	0.0	0.0	0.0	0.0	0.0
경영철학	0.3	0.0	0.2	0.0	0.0	2.3	2.6
계약 편리성	0.3	0.0	0.2	0.0	0.0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학력별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은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었음.

〈표 II-102〉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상품 경쟁력	39.5	50.1	49.5
브랜드 신뢰성	24.6	15.6	17.6
서비스 지원	13.2	16.2	14.2
가격 경쟁력	9.6	10.1	10.8
개인적 관계	8.8	4.3	3.2
회사 규모	2.6	2.2	3.2
전문성	0.0	1.0	0.4
경영철학	0.9	0.2	0.4
거래 경험	0.9	0.2	0.4
계약 편의성	0.0	0.2	0.2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가.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 현황

1) 조사 목적

- 국내 가구의 손해보험 가입 실태(가입 비율, 가입건수) 조사를 통하여 가구별 보험 가입자 성향과 추가 판매 가능성 예측에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4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87.7%로 2013년(86.8%) 대비 0.9%p, 가입건수는 가구당 3.3건으로 2013년(3.1건) 대비 0.2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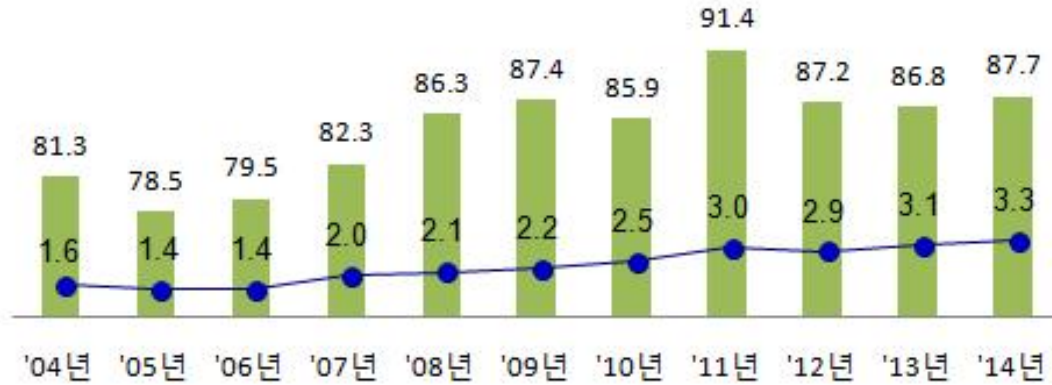
〈표 Ⅲ-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입률(%)	82.3	86.3	87.4	85.9	91.4	87.2	86.8	87.7
가입건수(건)	2.0	2.1	2.2	2.5	3.0	2.9	3.1	3.3

주: 2008년부터 표본추출방법이 변경됨(가구기준 → 개인기준, 이하 동일).

〈그림 Ⅲ-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추이

(N=1,200 /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 2013년까지 감소했던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이 2014년 조사에서는 소폭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계층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을 살펴보면, 블루칼라(+2.5%p), 자영업(+0.7%), 저소득 가구(+0.6%p)에서 소폭 증가한 반면, 은퇴자(-2.2%p), 중소득(-1.8%p), 고소득(-1.6%p) 가구에서는 감소함.

〈표 Ⅲ-2〉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2013년	2014년	2013년 대비 가입률(%p)	2013년	2014년	2013년 대비 가입건수(건)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95.7	94.6	-1.1	3.7	3.9	+0.2
	블루칼라	80.2	82.7	+2.5	2.5	3.2	+0.7
	자영업	88.6	89.3	+0.7	3.3	3.2	-0.1
	농/임/어업	-	40.0	-	-	1.7	+1.7
	주부	50.0	60.0	+10.0	1.1	3.4	+2.3
	은퇴자	70.4	68.2	-2.2	1.7	1.5	-0.2
	무직/기타	65.2	65.8	+0.6	2.1	3.3	+1.2
가구 소득	저소득	63.0	63.6	+0.6	1.4	1.4	+0.0
	중소득	92.7	90.9	-1.8	3.3	3.2	-0.1
	고소득	96.8	95.2	-1.6	4.1	4.4	+0.3

주: 농/임/어업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세부 분석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대도시(86.6%), 중소도시(88.8%), 군지역(85.6%) 모든 지역에서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대도시와 중소도시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군지역 가입률은 전년대비 8.7%p 증가함.

〈표 III-3〉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도시	80.7	87.4	85.0	84.4	88.3	88.3	86.1	86.9
중소도시	84.6	85.7	89.8	86.6	94.1	87.0	89.5	88.8
군지역	80.0	82.9	88.2	90.3	94.5	82.4	76.9	85.6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저소득 63.6% < 중소득 90.9% < 고소득 95.2%) 높음.
- 고소득과 중소득 가구 가입률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반면, 저소득 가구 가입률은 전년대비 0.6%p 증가함.

〈표 III-4〉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저소득	65.4	76.8	76.3	70.7	79.9	66.6	63.0	63.6
중소득	87.5	89.5	92.1	92.4	94.9	92.4	92.7	90.9
고소득	91.3	93.6	95.8	96.1	94.9	96.0	96.8	95.2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보험 종목별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률은 전년도와 달리 장기손해 건강보험이 5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기손해 상해보험(47.0%)이며,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그 외 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 종목별 가입률의 경우 장기손해 건강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의 가입률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함.
- 종목별 가입건수의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가운데, 장기손해 건강보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합보험 1.9건, 장기손해 어린이보험과 장기손해 저축성보험은 각각 1.5건, 장기손해 상해보험과 상해보험은 각각 1.4건으로 나타남.

〈표 Ⅲ-5〉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및 가입건수: 종목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입률 (%)	자동차보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기손해 상해보험	41.6	48.3	42.3	45.5	49.8	43.9	44.0	47.0
	장기손해 건강보험	14.8	17.1	20.2	34.0	42.7	41.3	52.0	50.2
	장기손해 종합보험	9.3	6.3	5.8	5.9	7.1	6.1	6.6	8.9
	장기손해 저축성보험	3.4	2.9	2.8	2.0	3.5	4.0	4.2	4.6
	장기손해 어린이보험	5.8	7.3	8.3	5.6	6.4	10.2	5.0	5.5
	상해보험	3.1	3.3	3.3	3.5	4.2	3.7	2.5	3.9
	통합보험	-	-	4.7	2.5	5.0	9.3	7.5	9.0
가입건수 (건)	자동차보험	1.2	1.2	1.2	1.1	1.2	1.1	1.1	1.2
	장기손해 상해보험	1.2	1.2	1.2	1.2	1.3	1.3	1.3	1.4
	장기손해 건강보험	1.6	1.6	1.7	2.3	2.3	2.3	2.5	2.5
	장기손해 종합보험	1.2	1.2	1.2	1.2	1.1	1.2	1.2	1.3
	장기손해 저축성보험	1.3	1.3	1.5	1.2	1.2	1.3	1.2	1.5
	장기손해 어린이보험	1.7	1.6	1.6	1.7	1.6	1.6	1.8	1.5
	상해보험	1.1	1.1	1.2	1.6	1.7	1.9	1.5	1.4
	통합보험	-	-	1.6	1.9	1.8	1.8	1.9	1.9

주: 1)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2008년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함.

2) 통합보험은 2009년 조사부터 추가되었음.

나.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 현황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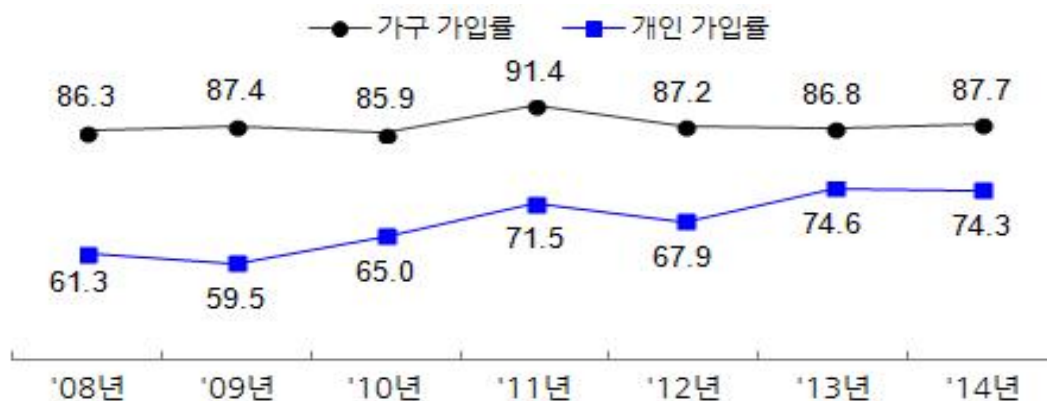
-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 실태(가입 비율, 가입건수) 조사를 통하여 가입자 성향과 잠재적 확대 가능 시장 등을 살펴보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4년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소폭 감소(-0.3%p)한 반면, 가구 가입률은 87.7%로 2013년(86.8%) 대비 0.9%p 상승함.

〈그림 Ⅲ-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N=1,200 / 단위: %)



-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40대(87.3%, 2.0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보다는 기혼(77.3%, 1.6건)에서, 그리고 고소득(79.7%, 1.8건)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50대(81.4%), 60대 이상(59.7%)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20대(55.8%), 30대(83.7%), 40대(87.3%)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함.

〈표 Ⅲ-6〉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연령, 결혼 여부, 가구 소득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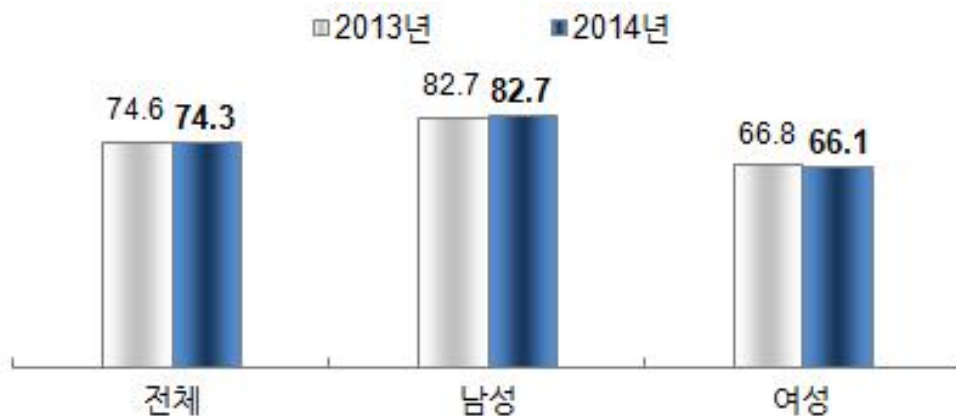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2013년	2014년	2013년 대비 가입률(%p)	2013년	2014년	2013년 대비 가입률(%p)
연령	20대	65.5	55.8	-9.7	0.9	1.0	+0.1
	30대	85.1	83.7	-1.4	1.8	1.7	-0.1
	40대	88.4	87.3	-1.1	2.0	2.0	0.0
	50대	81.2	81.4	+0.2	1.6	1.7	+0.1
	60대 이상	50.8	59.7	+8.9	0.8	1.0	+0.2
결혼 여부	기혼	76.0	77.3	+1.3	1.5	1.6	+0.1
	미혼	68.7	62.2	-6.5	1.1	1.1	0.0
가구 소득	저소득	53.6	56.5	+2.9	0.9	1.0	+0.1
	중소득	82.2	76.7	-5.5	1.6	1.5	-0.1
	고소득	79.8	79.7	-0.1	1.6	1.8	+0.2

■ 성별 기준 손해보험 가입률의 경우, 남성이 82.7%, 여성이 66.1%로 여전히 남성의 가입률이 더 높음.

○ 남성의 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여성은 전년대비 0.7%p 감소함.

〈그림 Ⅲ-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N=1,200 / 단위: %)



3) 세부분석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별, 결혼 여부별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남성(82.7%)이 여성(66.1%) 보다 높은 가운데, 특히 기혼 남성의 가입률이 87.4%로 높음.

－ 기혼 남성은 가계 소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Ⅲ-7〉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구분	남성		여성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가입률(%)	82.7		66.1	
	87.4	68.3	68.5	53.1
가입건수(건)	1.8		1.3	
	1.9	1.4	1.4	0.7

주: 가입건수는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가입건수임.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 60대 이상 손해보험 가입률이 전년대비 8.9%p 증가한 가운데, 20대(-9.7%p), 30대(-1.4%p), 40대(-1.1%p) 손해보험 가입률은 감소함.

○ 가입건수는 20대 1.0건, 30대 1.7건, 40대 2.0건, 50대 1.7건, 60대 이상 1.0건으로 나타남.

〈표 Ⅲ-8〉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률(%)	55.8	83.7	87.3	81.4	59.7
가입건수(건)	1.0	1.7	2.0	1.7	1.0
2013년 대비 가입률(%p)	-9.7	-1.4	-1.1	0.2	8.9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별 가입률은 중소도시 75.2%, 군지역 74.2%, 대도시 73.3% 순으로 나타났으나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지역별 가입건수도 군지역 1.7건, 중소도시 1.6건, 대도시 1.4건 순으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표 Ⅲ-9〉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대도시	73.3	1.4
중소도시	75.2	1.6
군지역	74.2	1.7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중졸 이하 저학력 층의 가입률은 50.9%, 가입건수는 0.7건이며, 가입건수는 대학 재학 이상(1.7건)에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 Ⅲ-10〉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중졸 이하	50.9	0.7
고졸	74.2	1.5
대재 이상	79.8	1.7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2.7%), 자영업자(83.3%) 가입률은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주부(63.2%), 은퇴자(53.1%), 무직/기타(49.0%) 등 비경제활동 계층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 가입건수 역시 화이트칼라(1.7건), 자영업(1.8건)은 1.5건 이상인 반면, 주부(1.1건), 은퇴자(1.0건), 무직/기타(0.7건)는 1건 내외로 상대적으로 적음.

〈표 Ⅲ-11〉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화이트칼라	82.7	1.7
블루칼라	71.7	1.4
자영업	83.3	1.8
농/임/어업	50.0	1.2
주부	63.2	1.1
은퇴자	53.1	1.0
무직/기타	49.0	0.7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중소득(76.7%)과 고소득(79.7%) 가구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75% 내외 수준으로 높은 반면, 저소득 가구 가입률은 56.5%로 낮음.
- 가입건수 역시 고소득(1.8건)과 중소득 가구(1.5건) 가입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저소득 가구 가입건수: 1.0건) 소득 수준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건수의 차이를 보임.

〈표 Ⅲ-1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저소득	56.5	1.0
중소득	76.7	1.5
고소득	79.7	1.8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장기손해 건강보험이 43.2%로 가장 높고, 이어서 장기손해 상해보험이 30.9%, 그 외 보험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낮음.
- 장기손해 건강보험 가입률은 여성(46.7%), 40대(48.1%), 50대(48.3%), 중소득 이상 가구(중소득 46.2%, 고소득 46.1%)에서 높게 나타남.

- 장기손해 상해보험은 남성(42.2%), 40대(42.9%), 그리고 고소득(39.1%), 가구와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11.4% < 고졸 30.1% < 대재 이상 36.1%) 가입률이 높음.

〈표 Ⅲ-13〉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종목별

(단위: %)

특성별 \ 종목별		장기 상해	장기 건강	장기 종합	장기 저축성	장기 어린이	상해 보험	통합
성별	남성	42.2	39.5	4.4	2.0	1.0	1.7	6.1
	여성	20.0	46.7	5.6	3.0	2.3	2.8	6.9
연령	20대	17.1	38.2	2.5	0.5	0.5	1.0	9.0
	30대	38.1	46.9	3.3	2.9	4.2	2.9	6.7
	40대	42.9	48.1	6.3	3.4	2.6	2.6	8.6
	50대	31.8	48.3	6.4	3.8	0.4	2.5	5.1
	60대 이상	21.7	33.7	5.8	1.6	0.4	1.9	3.5
학력	중졸 이하	11.4	28.1	3.5	0.0	0.0	0.0	3.5
	고졸	30.1	43.1	5.1	2.1	1.5	2.4	5.0
	대재 이상	36.1	47.1	5.1	3.4	2.0	2.6	8.9
가구 소득	저소득	19.2	29.4	5.1	0.9	0.5	1.9	3.7
	중소득	28.6	46.2	3.0	1.7	1.7	1.5	7.0
	고소득	39.1	46.1	7.2	4.1	2.2	3.3	7.2
2014년 가입률		30.9	43.2	5.0	2.5	1.7	2.3	6.5
2013년 가입률		30.0	44.7	4.2	2.8	1.0	1.6	5.8
차이(%p)		+0.9	-1.5	+0.8	-0.3	+0.7	+0.7	+0.7
가입건수(건)		1.0	1.1	1.0	1.4	1.4	1.1	1.1

주: 가입상품 건수 기준임.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가.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1) 조사 목적

- 손해보험 가입자들이 선택한 채널 구성비를 분석하여 판매채널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등 대면채널 (94.2%)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채널인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과 통신판매 등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전년대비 1.1%p 상승한 9.1%로 나타나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임.
- 한편, 은행, 증권회사 등을 통한 가입률은 1.3%로 매우 낮음.

〈표 Ⅲ-14〉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면	88.3	91.2	92.3	92.6	95.5	92.7	93.2	94.2
직판	11.2	8.0	6.3	7.7	4.7	6.2	8.0	9.1
은행	0.5	2.6	1.4	0.5	0.5	1.1	1.9	1.3

- 주: 1) 2008년부터 표본추출 기준을 가구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변경함(이하 동일).
 2) 상기 채널별 구성비는 주로 개인 보험 빈도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써 실제 채널별 보험료 기준의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이하 동일).
 3) 2008년 이후는 복수응답 구성비임.
 4)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이하 동일).
 5) 기타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3)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남성에서 직판채널(10.2%)을 통한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15〉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3.6	94.8
직판	10.2	7.7
은행	1.0	1.7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모든 연령에서 대면채널 가입률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60대 이상(3.2%)에서는 대면채널 가입률이 9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직판채널(3.2%)을 이용한 가입률은 3.2%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Ⅲ-16〉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하
대면	91.9	93.5	94.4	93.8	96.8
직판	8.1	10.5	11.1	10.4	3.2
은행	1.8	0.5	2.6	1.0	0.6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군지역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90% 이상으로 높음.
- 직판채널 가입률은 대도시 9.3%, 중소도시 9.5%, 그리고 군지역 5.6%로 나타남.
- 은행채널 가입률은 대도시 0.7%, 중소도시 1.5%, 그리고 군지역 4.2%로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Ⅲ-17〉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대면	93.4	94.4	97.2
직판	9.3	9.5	5.6
은행	0.7	1.5	4.2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모든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화이트칼라(11.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1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93.3	95.1	94.0	66.7	94.8	100.0	91.7
직판	11.6	9.2	8.1	0.0	8.5	0.0	8.3
은행	2.2	1.6	0.7	33.3	0.7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모든 학력에서 90% 이상으로 높음.
- 직판채널 가입률은 대재 이상(11.9%)의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19〉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100.0	95.2	92.2
직판	0.0	7.8	11.9
은행	0.0	1.6	1.3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소득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판채널 가입률은 저소득 3.3%, 중소득 7.4%, 고소득 12.9%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0〉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8.3	94.6	92.3
직판	3.3	7.4	12.9
은행	0.0	1.2	1.9

나. 손해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1) 조사 목적

- 손해보험 가입 경로 실태 조사를 통하여 보험 종목별 가입경로 선택 성향과 판매 채널의 효율성 제고 방안 도출에 참고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보험 종목별 가입 채널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보험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음.
 - 직판채널과 은행을 통한 가입은 모든 보험 종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3개 보험 종목 중에서도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장기손해보험이 93.6%로 가장 높고,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은 89.0%로 동일하게 나타남.

- 직판 채널을 통한 가입은 자동차보험이 10.8%로 타 보험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1〉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보험 종목별

(단위: %)

구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대면	89.0	93.6	89.0
직판	10.8	4.8	6.0
은행	-	1.4	3.0

주: 1) 기타 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2) 자동차보험은 은행채널이 없으므로 은행채널 통계는 제외함(이하 동일).

3) 자동차보험의 채널별 사례 수는 총 575표본 중 대면이 512표본, 직판이 62표본임.

3)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내외 수준으로 높은 가운데,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여성(14.1%)이 남성(9.7%)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22〉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0.3	85.2
직판	9.7	14.1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모든 연령에서 85%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60대 이상에서는 95% 이상이 대면채널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표 Ⅲ-23〉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88.0	86.8	89.1	87.8	95.2
직판	12.0	13.2	10.3	12.2	4.8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모든 지역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 직판채널 가입률은 군지역(6.8%)이 대도시(10.5%)와 중소도시(11.7%)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Ⅲ-24〉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대면	89.5	88.0	93.2
직판	10.5	11.7	6.8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모든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화이트칼라(12.1%) 계층에서 직판채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5〉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87.9	90.8	90.0	100.0	80.0	100.0
직판	12.1	9.2	9.6	0.0	2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대재 이상(12.8%) 고학력층에서 직판채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26〉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100.0	90.4	86.8
직판	0.0	9.6	12.8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90% 내외 수준으로 소득별 차이는 크지 않음.
- 직판채널 가입률은 고소득일수록 높은 것(고소득 13.2%〈중소득 9.6%〈저소득 6.0%〉)으로 나타남.

〈표 Ⅲ-27〉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4.0	90.4	86.4
직판	6.0	9.6	13.2

4) 장기손해보험

■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여성(94.2%)이 남성(93.1%)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판채널 구성비는 남성(5.8%)이 여성(3.9%)보다 높음.

〈표 Ⅲ-28〉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3.1	94.2
직판	5.8	3.9
은행	1.1	1.7

■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대면채널 구성비는 모든 연령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직판채널 구성비는 40대(7.3%)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29〉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92.1	93.9	93.7	93.3	94.5
직판	4.5	4.8	7.3	5.3	0.8
은행	2.2	0.6	2.1	1.3	0.8

■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모든 지역에서 9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대도시(5.7%), 은행채널을 통한 가입은 군지역(4.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30〉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대면	93.1	93.6	96.7
직판	5.7	4.3	3.3
은행	0.3	1.8	4.9

■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대면채널을 통한 장기손해보험 가입은 모든 직업군에서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직판채널과 은행채널의 가입률은 모든 직업에서 5% 내외 수준에 불과함.

〈표 Ⅲ-31〉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94.4	93.3	92.9	66.7	94.2	100.0	95.0
직판	5.0	6.0	4.0	0.0	5.1	0.0	5.0
은행	2.2	2.0	0.9	33.3	0.0	0.0	0.0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대면채널 구성비는 학력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직판채널 구성비는 고학력(대재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32〉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100.0	94.3	91.9
직판	0.0	4.0	6.5
은행	0.0	1.4	1.6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대면채널 및 직판채널 구성비는 모두 소득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33〉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8.9	92.8	92.9
직판	0.0	5.1	6.1
은행	0.0	1.5	1.7

5) 일반손해보험³⁾

■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남성(90.7%)이 여성(8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은행채널을 통한 가입은 여성(3.5%)에서 남성(2.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표 Ⅲ-34〉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0.7	87.7
직판	7.0	5.3
은행	2.3	3.5

■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별로 대면채널 가입률은 차이가 크지 않음.

3)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통합보험 등이 해당되며, 조사 결과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Ⅲ-35〉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대면	86.8	88.7	100.0
직판	5.3	7.5	0.0
은행	5.3	1.9	0.0

주: 1)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직판채널 응답자는 총 6표본으로 거주 지역별 사례 수는 대도시 2표본, 중소도시 4표본임.

■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모든 학력 층에서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36〉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100.0	91.7	85.4
직판	0.0	4.2	8.3
은행	0.0	4.2	2.1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1) 조사 목적

■ 향후 1년 내 손해보험 상품 구입 의향과 가입 경로를 파악하여 향후 성장 가능한 판매경로를 살펴보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보험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671)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가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전통채널인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1.8%로 여전히 가장 높고, 직판채널은 17.9%로 나타남.

- 은행 채널에 대한 향후 선호도는 현재 가입률(1.3%)보다 낮은 1.9%에 불과함.
- 향후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이었으나 현재 가입률(94.2%)보다 12.4%p 낮게 나타난 반면,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현재 가입률(9.1%) 보다 8.8%p 높아 향후 직판채널의 성장 잠재력이 존재함.

〈표 Ⅲ-37〉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단위: %)

구분	현행	향후 선호
대면	94.2	81.8
직판	9.1	17.9
은행	1.3	1.9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3) 세부 분석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결혼 여부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남성(81.4%)과 여성(82.6%) 모두 가장 선호하는 채널임.
- 여성은 인터넷(15.7%), 은행(2.1%) 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미혼자도 기혼자 대비 인터넷(23.9%), 은행(3.6%)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38〉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결혼 여부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성별	남성	81.4	17.9	14.9	1.8
	여성	82.6	17.9	15.7	2.1
결혼 여부	기혼	83.7	16.3	12.9	1.5
	미혼	74.6	23.9	23.9	3.6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향후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는 모든 연령에서 75%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60대 이상에서 94.2%로 가장 높음.
- 반면, 20대의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24.8%)과 같은 직판채널(25.7%)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39〉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20대	75.2	25.7	24.8	2.0
30대	78.3	21.7	20.4	3.8
40대	80.3	19.7	16.9	1.1
50대	83.3	15.2	9.1	0.8
60대 이상	94.2	4.9	2.9	1.9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향후 채널 선호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음.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 의향은 군지역(4.7%) 대비 대도시(21.8%)와 중소도시(1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40〉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대도시	78.5	21.8	17.9	1.6
중소도시	83.5	15.9	14.3	2.2
군지역	93.0	4.7	2.3	2.3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모든 직업군에서 높은 가운데, 자영업(84.9%)과 주부(88.6%)에서 특히 높음.
- 반면, 인터넷(20.5%) 등 직판채널 선호도(23.2%)는 화이트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41〉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화이트칼라	78.4	23.2	20.5	2.7
블루칼라	75.9	22.8	21.4	2.1
자영업	84.9	14.2	11.0	1.8
주부	88.6	11.4	6.8	1.1
은퇴자	100.0	0.0	0.0	0.0
무직/기타	76.5	17.6	17.6	0.0

주: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향후 대면채널 선호도는 모든 학력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75%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92.9%) 고졸 84.7% > 대재 이상 77.7%) 높은 특징을 보임.
- 반면 직판채널, 특히 인터넷 채널(중졸 이하 0.0% < 고졸 12.2% < 대재 이상 19.8%)에 대한 선호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42〉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중졸 이하	92.9	3.6	0.0	3.6
고졸	84.7	14.1	12.2	1.3
대재 이상	77.7	23.3	19.8	2.5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 향후 가입 채널 선호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가장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직판채널(22.4%)에 대한 선호도가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43〉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저소득	84.4	12.2	12.2	1.1
중소득	84.2	15.1	14.1	2.7
고소득	78.6	22.4	17.2	1.4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보험 종목별로 향후 채널 선호도를 살펴보면, 모든 보험 종목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한편, 자동차보험(19.2%)과 장기손해 건강보험(19.8%)은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타 보험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44〉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자동차 보험	79.9	19.2	15.9	-
장기손해 상해보험	78.3	17.4	17.4	-
장기손해 건강보험	76.7	19.8	17.4	-
장기손해 종합보험	89.1	8.7	8.7	2.2
장기손해 저축성보험	58.3	8.3	8.3	33.3
장기손해 어린이보험	84.6	7.7	7.7	7.7
상해보험	84.7	8.3	8.3	-
통합보험	84.7	8.3	8.3	-

주: 장기손해 어린이보험은 통계량이 적어 신뢰성이 낮음.

라.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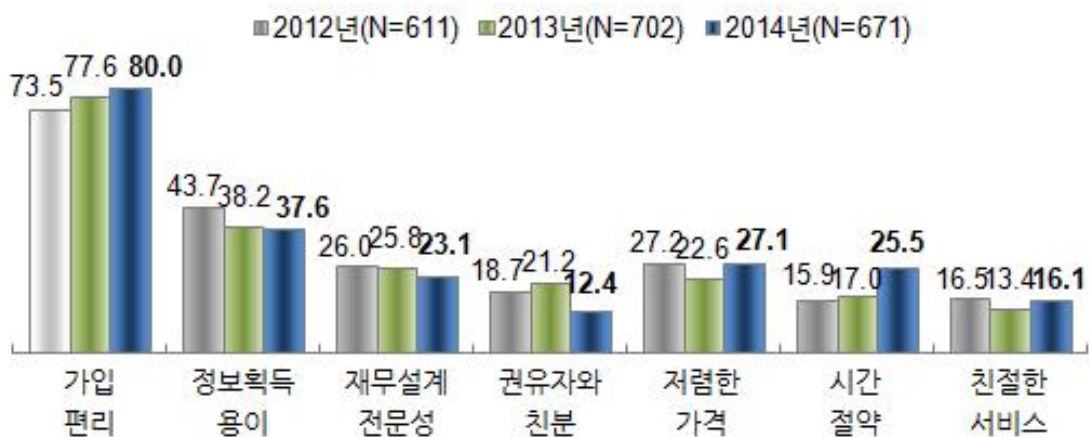
- 향후 1년 내 상품 구입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입경로에 대한 선호 이유를 종목별로 파악하여 향후 참고 자료로 활용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의향자(N=671)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가입 경로의 이유를 살펴보면, 가입 편리성이 80.0%로 가장 많이 꼽힘.
- 다음으로 정보획득 용이성(37.6%), 저렴한 가격(27.1%), 시간 절약(25.5%), 그리고 재무 설계 전문성(23.1%) 등의 순임.

〈그림 Ⅲ-4〉 손해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 향후 보험 가입 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이유 역시, 가입 편리성(79.6%)을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보획득 용이성(42.4%), 재무 설계 전문성(29.5%), 시간 절약(25.3%) 등의 순임.

○ 보험 설계사 방문을 통한 간편한 가입과 설계사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등이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됨.

■ 한편,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86.7%)과 함께 가입 편리성(83.3%)을 많이 꼽아, 가격 경쟁력에서 대면채널 대비 우위를 나타냄.

〈표 Ⅲ-45〉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가입 편리성	79.6	83.3	84.6
정보획득 용이성	42.4	21.7	61.5
저렴한 가격	13.7	86.7	38.5
재무 설계 전문성	29.5	10.8	76.9
시간 절약	25.3	15.8	15.4
권유자와 친분	19.3	3.3	7.7
친절한 서비스	15.1	4.2	30.8

주: 1) 은행채널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기타 항목은 제외함(이하 동일).

3)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대면채널

- 보험 종목별 향후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선호 이유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보험 종목에서 가입 편리성을 가장 많이 꼽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면채널 선호 이유로 가입의 편리성(78.4%), 정보획득 용이성(36.6%), 시간 절약(21.1%), 권유자와의 친분(20.7%), 그리고 재무 설계의 전문성(20.7%)이 꼽힘.

〈표 Ⅲ-46〉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대면채널(복수응답)

(단위: %)

구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가입 편리성	78.4	71.3	62.4
정보획득 용이성	36.6	45.2	41.9
저렴한 가격	11.2	36.7	30.8
재무 설계 전문성	20.7	14.4	33.3
시간 절약	21.1	19.7	12.0
권유자와 친분	20.7	13.8	17.9
친절한 서비스	10.9	13.8	10.3

주: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직판채널

- 모든 보험 종목에서 직판채널의 선호 이유로 가입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을 가장 많이 꼽음.

〈표 Ⅲ-47〉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직판채널(복수응답)

(단위: %)

구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가입 편리성	82.2	82.4	66.7
정보획득 용이성	19.8	17.6	13.3
저렴한 가격	83.2	5.9	33.3
재무 설계 전문성	8.9	91.2	26.7
시간 절약	4.0	14.7	80.0
권유자와 친분	2.0	2.9	6.7
친절한 서비스	0.0	0.0	0.0

주: 1) 직판채널은 표본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음.

2)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가. 개요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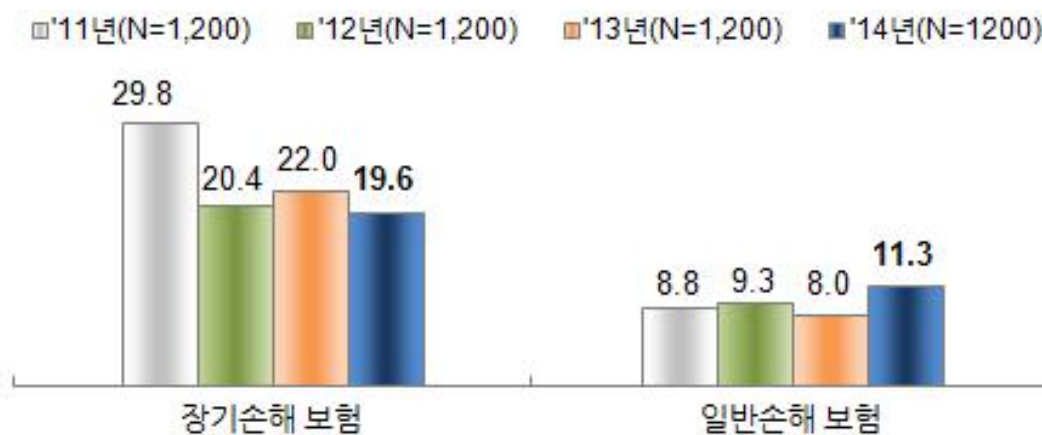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상품의 종목별 가입 의향을 조사함으로써 손해보험의 잠재적 수요를 예측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가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기손해보험은 19.6%, 일반손해보험은 11.3%로 나타남.

〈그림 Ⅲ-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전년대비 2.4%p 하락한 반면, 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3.3%p 상승함.

〈표 Ⅲ-48〉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2013년	22.0	8.0
2014년	19.6	11.3
2013년 대비 가입 의향률(%p)	-2.4	+3.3

- 보험 종목별 비가입자의 향후 가입 의향을 살펴보면, 장기손해 건강보험이 10.3%로 가장 높고, 그 외의 다른 종목의 가입 의향은 10% 이하로 낮음.

〈표 Ⅲ-49〉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가입자	비가입자
장기손해 상해보험	30.9	10.0	9.4
장기손해 건강보험	43.2	3.1	10.3
장기손해 종합보험	5.0	15.0	3.2
장기손해 저축성보험	2.5	3.3	3.0
장기손해 어린이보험	1.7	0.0	1.1
상해보험	2.3	11.1	5.9
통합보험	6.5	2.6	6.4

-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모두 현재 가입률이 가장 낮은 20대 젊은 계층과 저소득 계층에서 향후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계층의 잠재적 보험 가입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들 계층의 실제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기간이 짧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는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이 요구됨.

〈표 Ⅲ-50〉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 및 소득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현 가입률	가입 의향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연령	20대	26.6	28.1	6.5	14.1
	30대	30.5	24.7	4.2	13.4
	40대	31.7	19.0	3.4	14.2
	50대	26.3	14.8	2.1	8.5
	60대 이상	17.4	13.2	1.6	6.6
소득	저소득	16.4	17.3	2.3	5.1
	중소득	25.6	18.8	3.0	9.5
	고소득	32.3	21.6	4.4	16.2

나.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성별, 결혼 여부별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남성(23.1%)이 여성(16.2%)보다 높고, 미혼자(25.7%)가 기혼자(18.0%)보다 7.7%p 높음.
- 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남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10% 내외로 비슷한 수준임.

〈표 Ⅲ-51〉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성별	남성	23.1	12.2
	여성	16.2	10.3
결혼 여부	기혼	18.0	10.7
	미혼	25.7	13.3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별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20대 28.1%, 30대 24.7%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은 50대(8.5%), 60대 이상(6.6%)에서는 가입 의향이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Ⅲ-52〉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20대	28.1	14.1
30대	24.7	13.4
40대	19.0	14.2
50대	14.8	8.5
60대 이상	13.2	6.6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거주 지역별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모든 지역에서 2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대도시 및 군지역 대비 중소도시(14.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53〉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대도시	16.7	9.0
중소도시	22.9	14.3
군지역	17.5	7.2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직업별

-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은 모든 직업군에서 15% 이상으로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10% 내외 수준인 가운데, 다른 직업 대비 화이트칼라(14.7%)의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표 Ⅲ-54〉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직업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화이트칼라	21.7	14.7
블루칼라	22.5	9.3
자영업	18.2	10.0
농/임/어업	0.0	0.0
주부	16.9	12.4
은퇴자	18.8	6.3
무직/기타	18.4	10.2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가구 소득별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가입 의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20% 내외 수준을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 의향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표 Ⅲ-5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저소득	17.3	5.1
중소득	18.8	9.5
고소득	21.6	16.2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가. 손해보험 보상 위험 분석

1) 조사 목적

-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험자의 보험금 지급 항목 등을 파악하여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석 자료로 활용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가입 가구(N=1,042) 중 39.4%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금 지급 경험 비율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에는 전년대비 12.7%p 상승함.

〈그림 Ⅲ-6〉 손해보험 보상 경험

(N=1,042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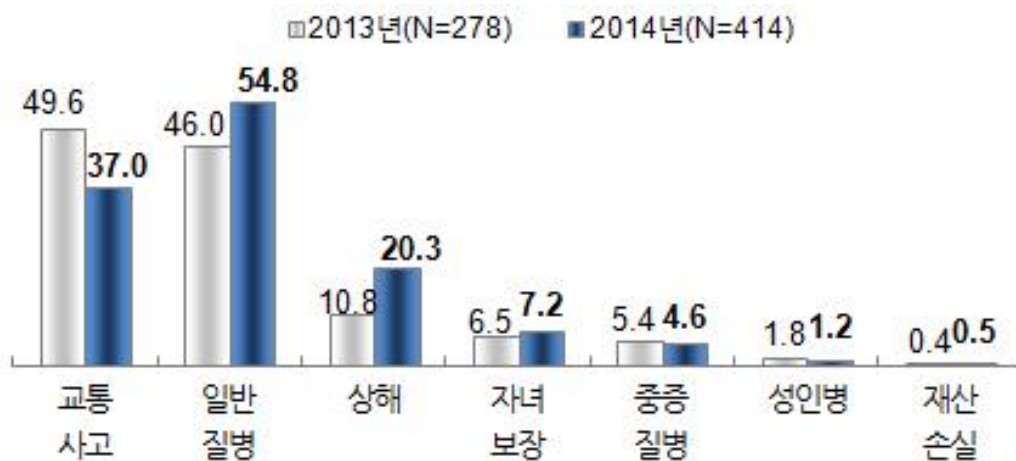


- 보험금 지급 항목으로는 여전히 교통사고(37.0%)와 일반질병(54.8%)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상해(20.3%), 자녀 보장(7.2%), 그리고 중증질병(4.6%) 등은 10% 이하로 나타남.

-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 경험은 전년대비 12.6%p 감소한 반면, 일반질병(+8.8%p), 상해(+9.5%p), 그리고 자녀보장(+0.7%p)에 의한 보험금 지급 경험은 늘어남.

〈그림 Ⅲ-7〉 손해보험 보상 항목(복수응답)

(단위: %)



3) 손해보험 보상 위험

■ 손해보험 보상 위험: 연령별

- 40대(41.6%), 50대(43.5%), 그리고 60대 이상(45.7%)의 보험금 수령 경험이 20대(27.1%), 30대(36.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일반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은 모든 연령대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60.9%)에서 높았음.
-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은 40대(41.1%)와 50대(43.6%)에서 높음.

〈표 Ⅲ-56〉 손해보험 보상 위험: 연령별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일반질병	54.8	60.9	53.7	55.1	53.2	54.1
교통사고	37.0	23.9	37.8	41.1	43.6	30.6
상해	20.3	26.1	14.6	24.3	18.1	20.0
자녀보장	7.2	8.7	14.6	7.5	4.3	2.4
중증질병	4.6	6.5	1.2	2.8	5.3	8.2
성인병	1.2	0.0	0.0	1.9	1.1	2.4
재산손실	0.5	0.0	0.0	1.9	0.0	0.0
치매	0.2	0.0	0.0	0.0	1.1	0.0
기타	0.5	0.0	1.2	0.0	1.1	0.0
손해보험 전체	39.4	27.1	36.8	41.6	43.5	45.7

주: 손해보험 전체는 보상 경험률이며, 20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보상 위험: 직업별

-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은 자영업(44.3%)과 블루칼라(41.4%)가 40% 수준으로 다른 직업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57〉 손해보험 보상 위험: 직업별

(단위: %)

구분	전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주부	은퇴자	무직/ 기타
일반질병	54.8	59.8	53.4	44.5	68.5	33.3	43.8
교통사고	37.0	39.1	48.9	40.6	20.7	33.3	25.0
상해	20.3	25.3	25.0	17.2	13.0	0.0	37.5
자녀보장	7.2	8.0	6.8	7.0	8.7	0.0	0.0
중증질병	4.6	3.4	0.0	6.3	5.4	33.3	12.5
성인병	1.2	0.0	1.1	2.3	1.1	0.0	0.0
재산손실	0.5	1.1	0.0	0.0	1.1	0.0	0.0
치매	0.2	0.0	0.0	0.0	1.1	0.0	0.0
기타	0.5	0.0	0.0	0.0	2.2	0.0	0.0
손해보험 전체	39.4	35.0	41.4	44.3	0.0	22.2	16.7

주: 손해보험 전체는 보상 경험률이며,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보상 위험: 지역, 가구 소득별

- 지역 규모와 가구 소득에 따른 보상 경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일반질병으로 인한 보상 경험은 중소도시(57.1%)와 중소득(56.9%)에서 가장 높음.
- 교통사고는 지역별로 군지역(57.4%)이 대도시(35.0%), 중소도시(33.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별로는 고소득(39.0%)이 중소득(36.7%), 저소득(30.6%)에 비해 보험금 지급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58〉 손해보험 보상 위험: 거주 지역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전체	거주 지역별			가구 소득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일반질병	54.8	55.7	57.1	42.6	53.1	56.9	53.1
교통사고	37.0	35.0	33.7	57.4	30.6	36.7	39.0
상해	20.3	21.9	19.6	17.0	18.4	18.6	22.6
자녀보장	7.2	5.5	8.2	10.6	2.0	8.5	7.3
중증질병	4.6	6.6	3.3	2.1	0.0	4.3	6.2
성인병	1.2	0.5	1.6	2.1	4.1	0.0	1.7
재산손실	0.5	0.0	1.1	0.0	0.0	1.1	0.0
치매	0.2	0.5	0.0	0.0	0.0	0.0	0.6
기타	0.5	1.1	0.0	0.0	0.0	0.5	0.6
손해보험 전체	39.4	37.7	38.0	56.6	36.0	39.2	40.6

주: 손해보험 전체는 보상 경험률임.

나.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1) 조사 목적

- 보험소비자의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를 파악하여, 향후 보험 상품 판매 및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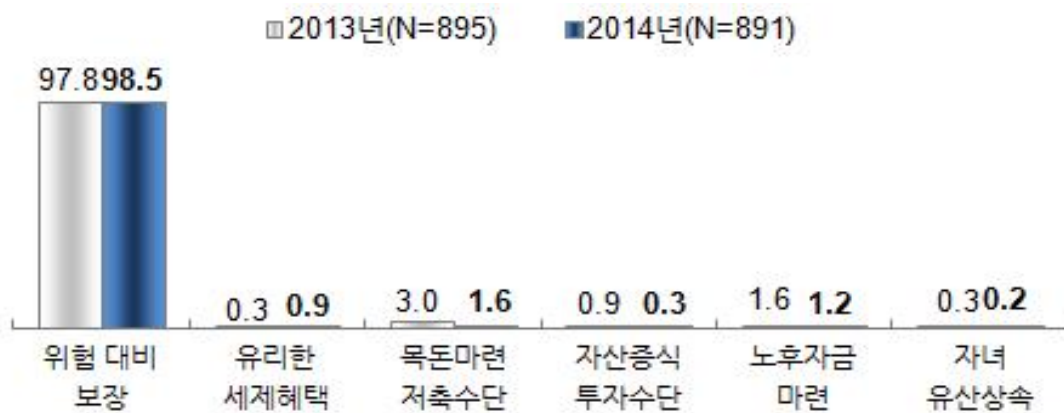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8.5%)이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보험 가입 이유로 꼽음.

○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으로 대표되는 손해보험의 특성상 사고 및 상해 등에 대비한 보장성 성격의 인식이 매우 높은 반면, 저축, 노후 대비, 그리고 투자 수단으로써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Ⅲ-8〉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그리고 일반손해보험 등 보험 종목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 이유로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 97% 이상으로 압도적임.

〈표 Ⅲ-59〉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보장	저축수단	노후자금 마련	세제혜택	자산증식	유산상속
자동차보험	98.8	0.2	0.2	0.7	-	0.2
장기손해보험	97.8	1.8	1.4	0.8	0.4	0.1
일반손해보험	100.0	-	-	-	-	-

주: 기타는 제외함(이하 동일).

3) 장기손해보험⁴⁾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남녀노소 모두에서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95% 이상으로 높음.

〈표 Ⅲ-60〉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위험보장	98.9	96.7	97.8	98.8	99.0	95.3	97.6
저축수단	1.7	1.9	0.0	0.0	3.1	2.0	3.1
노후자금 마련	0.6	2.2	1.1	2.4	0.5	1.3	1.6
세제혜택	0.8	0.8	1.1	0.6	1.0	1.3	0.0
자산증식	0.0	0.8	0.0	0.0	0.0	2.0	0.0
유산상속	0.0	0.3	0.0	0.0	0.0	0.7	0.0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이유로 가입했다는 응답이 모든 직업군에서 95% 이상으로 높음.

〈표 Ⅲ-61〉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위험보장	99.4	96.0	98.2	100.0	96.4	100.0	100.0
저축수단	1.1	0.7	2.2	0.0	3.6	0.0	0.0
노후자금 마련	1.1	3.4	0.4	33.3	0.7	0.0	0.0
세제혜택	0.6	0.7	1.3	0.0	0.7	0.0	0.0
자산증식	0.0	0.0	0.0	0.0	2.2	0.0	0.0
유산상속	0.0	0.7	0.0	0.0	0.0	0.0	0.0

주: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대부분이 가입 이유로 위험보장을 선택하여 특성별 분석이 불가능하여 생략함.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학력별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로 위험에 대비한 보장은 모든 학력 층에서 95% 이상으로 높음.

〈표 Ⅲ-62〉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위험보장	100.0	97.7	97.6
저축수단	0.0	2.0	1.8
노후자금 마련	0.0	0.6	2.4
세제혜택	0.0	1.2	0.6
자산증식	0.0	0.3	0.6
유산상속	0.0	0.0	0.3

주: 중졸 이하는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가구 소득별

- 모든 소득층에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음.

〈표 Ⅲ-63〉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위험보장	95.7	97.9	98.3
저축수단	2.1	0.9	2.7
노후자금 마련	2.1	1.2	1.4
세제혜택	1.1	1.2	0.3
자산증식	0.0	0.6	0.3
유산상속	0.0	0.0	0.3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채널별

-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위하여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모든 채널에서 높게 나타남.

〈표 Ⅲ-64〉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채널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위험보장	97.6	100.0	100.0
저축수단	1.9	5.7	0.0
노후자금 마련	1.3	0.0	30.0
세제혜택	0.9	0.0	0.0
자산증식	0.4	0.0	0.0
유산상속	0.1	0.0	0.0

주: 직판, 은행 채널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1) 조사 목적

- 손해보험회사를 규모 등을 기준으로 3개로 구분하여 대형사, 중소형사, 그리고 직판사별 가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각 회사별 잠재 수요 예측 및 마케팅 자료에 참고하도록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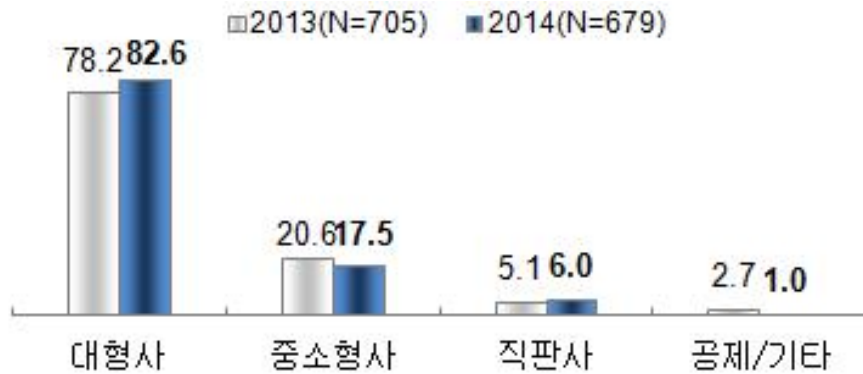
-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가입자(N=679) 10명 중 8명(82.6%) 이상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그리고 동부화재 4개 대형사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3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부화재 21.1%, 현대해상 19.3%, LIG손해보험 12.7% 순으로 조사됨.⁵⁾

5) 이는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 실제 원수보험료 점유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손해보험 시장 내 대형 보험회사의 점유율이 여전히 압도적이고, 중소형사와 공제/기타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9〉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N=705 / 단위: %)



3) 세부 분석

■ 손해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성별

- 최근 3년 내 대형사 가입률은 남녀 모두에서 높은 가운데, 여성(84.1%)의 가입률이 남성보다 더 높음.

〈표 Ⅲ-65〉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성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사	공제/기타
남성	81.8	17.0	6.6	0.5
여성	84.1	18.4	5.0	2.1

■ 손해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연령별

- 대형사 가입률은 모든 연령에서 80% 내외로 높음.
- 중소형사 가입률은 20% 수준인 가운데, 40대(23.3%)가 가장 높고, 20대(10.5%)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표 Ⅲ-66〉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연령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사	공제/기타
20대	84.9	10.5	3.5	2.3
30대	79.7	18.4	9.5	0.6
40대	82.0	23.3	6.3	0.5
50대	83.3	17.4	5.6	0.0
60대 이상	85.3	11.8	2.9	2.9

■ 손해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거주 지역별

- 대형사를 통한 손해보험 가입률은 모든 지역에서 8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군지역은 89.8%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Ⅲ-67〉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사	공제/기타
대도시	80.6	21.4	3.9	1.3
중소도시	83.5	15.3	8.1	0.6
군지역	89.8	8.2	6.1	2.0

■ 손해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직업별

- 모든 직업군에서 대형사 가입률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자영업 (20.1%)은 중소기업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68〉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직업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사	공제/기타
화이트칼라	82.1	15.8	8.4	1.1
블루칼라	80.3	16.9	6.3	0.7
자영업	84.2	20.1	4.7	0.9
농/임/어업	100.0	0.0	0.0	0.0
주부	82.1	16.7	6.0	2.4
은퇴자	76.9	23.1	0.0	0.0
무직/기타	93.3	6.7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학력별

-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형사 가입률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중소형사 가입률은 고졸(18.6%), 직판사 가입률은 대재 이상(7.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69〉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학력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사	공제/기타
중졸 이하	88.9	11.1	0.0	3.7
고졸	83.0	18.6	4.7	0.9
대재 이상	81.5	17.3	7.9	0.9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가구 소득별

- 모든 소득 계층에서 대형사를 통한 손해보험 가입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음.

〈표 Ⅲ-70〉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사	공제/기타
저소득	83.8	17.5	2.5	2.5
중소득	80.5	17.2	7.1	1.0
고소득	84.4	17.9	6.0	0.7

라.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분석

1) 조사 목적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보험 상품의 만족도를 보험 종목별로 파악하여 서비스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내 가입한 보험 상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 3.88점, 장기손해보험 3.92점, 일반손해보험 3.86점으로 모두 3.9점 내외 수준임.
- 모든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함.

〈표 Ⅲ-71〉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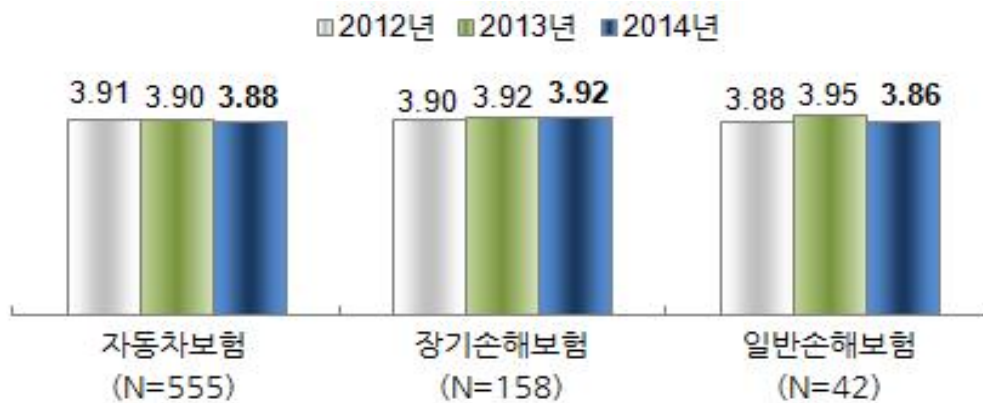
구분	3년 내 가입률(%)	상품만족도(점, 5점 척도)
자동차보험 ²⁾	100.0	3.88
장기손해보험	72.7	3.92
일반손해보험	12.2	3.86

주: 1) 최근 3년 내 가입률로 전체 가입률과 차이가 있음.

2)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입률임.

〈그림 Ⅲ-10〉 손해보험 종목별 만족도

(단위: 5점 척도)



3)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성별

- 장기손해보험 만족도는 3.8점 내외 수준으로 남녀가 비슷하였으나,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Ⅲ-72〉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성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남성	여성
자동차보험	3.87	3.94
장기손해보험	3.90	3.89
일반손해보험	3.77	3.95

주: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연령별

- 자동차보험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3.8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가 3.91점으로 가장 높았음.
- 장기손해보험 만족도는 30대(3.96점)가 가장 높음.

〈표 Ⅲ-73〉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연령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동차보험	3.81	3.93	3.91	3.87	3.81
장기손해보험	3.86	3.96	3.91	3.89	3.80
일반손해보험	4.15	3.90	3.78	3.50	3.50

주: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거주 지역별

-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모두 지역별 만족도가 3.8점 내외 수준으로 비슷함.

〈표 Ⅲ-74〉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거주 지역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자동차보험	3.87	3.89	3.95
장기손해보험	3.86	3.96	3.73
일반손해보험	3.75	3.92	4.00

주: 군지역과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직업별

- 블루칼라는 자동차보험(3.89점)과 장기손해보험(3.93점)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표 Ⅲ-75〉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직업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자동차보험	3.88	3.89	3.86	4.00	4.03	3.69
장기손해보험	3.91	3.93	3.87	4.00	3.75	3.60
일반손해보험	3.82	4.00	3.55	4.17	-	4.00

주: 은퇴자, 무직/기타,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학력별

-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모두 학력별 만족도가 3.8점 수준이며 고학력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76〉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학력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자동차보험	3.89	3.86	3.91
장기손해보험	3.75	3.87	3.94
일반손해보험	3.00	3.82	3.92

주: 중졸 이하,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가구 소득별

-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만족도는 고소득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77〉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가구 소득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자동차보험	3.83	3.87	3.91
장기손해보험	3.86	3.84	3.95
일반손해보험	3.40	3.75	4.05

주: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마.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1) 조사 목적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의 고려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보험 니즈 파악의 참고로 활용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는 무엇보다 상품의 경쟁력(45.4%)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18.7%), 가격 경쟁력(17.5%), 서비스 지원(10.4%), 그리고 개인적 관계(4.7%) 등의 순임.
- 상품 경쟁력은 전년대비 2.8%p 하락한 반면,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은 0.9%p 증가함.
 - 보험회사를 선택하는데 있어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도보다 상품의 보장 내용 및 소비자의 니즈 여부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회사 규모, 경영 철학, 계약의 편의성 등을 중요한 고려한 손해보험회사의 선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1〉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1순위 기준)

(N=1,200 / 단위: %)



3) 세부 분석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성별

- 남녀 모두 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하는데 있어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78〉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상품 경쟁력	46.3	44.6
브랜드 신뢰성	18.6	18.7
가격 경쟁력	16.9	18.0
서비스 지원	10.0	10.8
개인적 관계	4.6	4.8
회사 규모	1.9	1.8
과거 거래경험	0.3	0.7
설계사 전문성	0.3	0.7
계약의 편리성	1.0	0.0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연령별

- 보험회사 선택 시 상품의 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모든 연령층에서 45% 이상으로 가장 높음.

〈표 Ⅲ-79〉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상품 경쟁력	46.2	48.1	47.0	41.9	43.8
브랜드 신뢰성	20.1	18.4	15.7	16.1	23.3
가격 경쟁력	15.1	16.3	18.7	18.2	18.6
서비스 지원	12.1	10.0	12.7	11.0	6.6
개인적 관계	3.5	4.6	3.4	6.4	5.4
회사 규모	2.0	0.8	1.1	3.8	1.6
과거 거래경험	0.5	0.4	0.4	1.3	0.0
설계사 전문성	0.0	0.8	0.4	0.8	0.4
계약의 편리성	0.5	0.4	0.7	0.4	0.4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거주 지역별

- 상품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대도시(46.1%)와 중소도시(45.7%)가 군지역(40.2%)에 비해 더 높음.
- 반면, 서비스 지원은 군지역(17.5%)이 대도시(9.0%), 중소도시(10.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80〉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상품 경쟁력	46.1	45.7	40.2
브랜드 신뢰성	20.3	17.2	17.5
가격 경쟁력	16.3	18.9	16.5
서비스 지원	9.0	10.6	17.5
개인적 관계	5.0	3.9	7.2
회사 규모	2.7	1.3	0.0
과거 거래경험	0.2	0.9	0.0
설계사 전문성	0.2	0.9	0.0
계약의 편리성	0.4	0.6	1.0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직업별

- 보험회사 선택 시 상품 경쟁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은 모든 직업에서 50% 내외 수준으로 높음.

〈표 Ⅲ-81〉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상품 경쟁력	46.9	56.7	38.5	60.0	40.0	50.0	42.1
브랜드 신뢰성	15.3	14.3	23.2	20.0	26.7	15.9	23.7
가격 경쟁력	20.2	13.9	17.1	0.0	20.0	18.2	18.4
서비스 지원	8.7	10.0	12.6	0.0	0.0	15.9	2.6
개인적 관계	4.8	3.0	5.1	20.0	13.3	0.0	7.9
회사 규모	1.8	0.9	2.3	0.0	0.0	0.0	5.3
과거 거래경험	1.0	0.4	0.2	0.0	0.0	0.0	0.0
설계사 전문성	0.8	0.4	0.4	0.0	0.0	0.0	0.0
계약의 편리성	0.5	0.4	0.6	0.0	0.0	0.0	0.0

주: 농/임/어업, 주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학력별

○ 학력과 상관없이, 상품 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음.

〈표 Ⅲ-82〉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상품 경쟁력	36.8	46.0	46.5
브랜드 신뢰성	28.1	18.1	17.4
가격 경쟁력	18.4	16.9	17.6
서비스 지원	3.5	11.1	11.4
개인적 관계	8.8	4.3	4.3
회사 규모	3.5	1.9	1.4
과거 거래경험	0.9	0.5	0.4
설계사 전문성	0.0	0.5	0.6
계약의 편리성	0.0	0.7	0.4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가구 소득별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상품 경쟁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83〉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상품 경쟁력	38.8	47.5	46.1
브랜드 신뢰성	23.4	16.9	18.6
가격 경쟁력	18.7	16.9	17.7
서비스 지원	8.4	11.2	10.5
개인적 관계	7.9	4.5	3.3
회사 규모	1.9	1.5	2.2
과거 거래경험	0.5	0.4	0.7
설계사 전문성	0.0	0.6	0.7
계약의 편리성	0.5	0.6	0.4

5. 자동차보험

가.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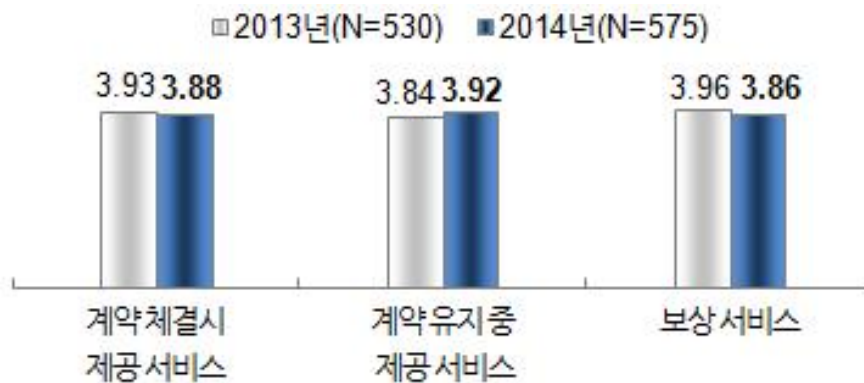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소비자 특성별로 분석하고, 향후 자동차보험의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 가입자(N=575)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계약 체결 시 서비스 3.88점,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92점, 보상 서비스가 3.86점으로 서비스 전 과정에 걸쳐 만족도가 고르게 나타남.
- 전년대비 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보상서비스는 소폭 상승함.

〈그림 Ⅲ-12〉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주: 보상서비스는 보상 경험자의 만족도를 측정함.

3) 세부 분석

■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성별

-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가운데, 보상 서비스의 경우 남성(4.03점)의 만족도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Ⅲ-84〉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성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남성	여성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3.88	3.96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76	3.87
보상서비스	4.03	4.06

■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거주 지역별

-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 차이가 크지는 않은 가운데,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군지역(3.93점) 만족도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85〉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거주 지역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3.91	3.87	4.07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74	3.81	3.93
보상서비스	3.95	4.03	4.29

주: 보상서비스 내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 자동차보험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모든 학력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표 Ⅲ-86〉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3.90	3.91	3.90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75	3.77	3.80
보상서비스	4.13	4.00	4.10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 전반적으로 고소득 가구의 만족도가 저소득, 중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87〉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단위: 5점 척도)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3.87	3.90	3.91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75	3.79	3.79
보상서비스	3.94	4.04	4.06

주: 보상서비스 내 저소득층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 변경 의향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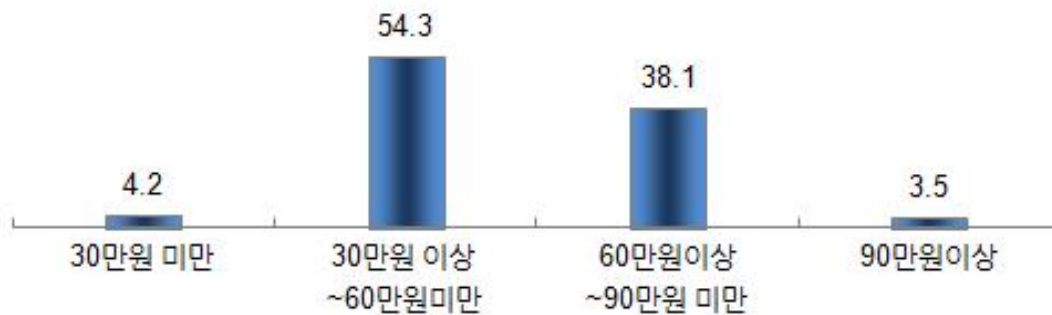
- 기존 손해보험회사를 다른 손해보험회사로 변경할 지 또는 기존 손해보험회사를 다시 선택할 지에 대한 의향과 그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손해보험회사(자동차보험)의 충성도 제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 가입자(N=575)의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30만 원에서 60만 원 미만이 전체의 54.3%로 가장 많았고, 60만 원에서 90만 원 미만이 38.1%, 30만 원 미만이 4.2%, 90만 원 이상이 3.5%로 평균 약 60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Ⅲ-13〉 연간 자동차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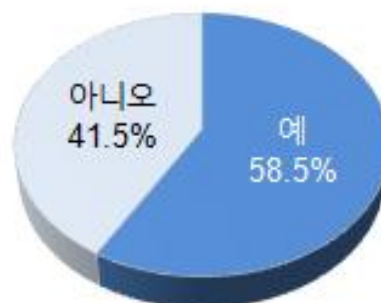
(N=575 / 단위: %)



- 자동차보험회사 가입자 10명 중 약 6명(58.5%)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20대가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싸다고 생각하는 의견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그림 Ⅲ-14〉 자동차 보험료의 걱정 여부

(N=272 / 단위: %)



〈표 Ⅲ-88〉 자동차 보험료의 걱정 여부: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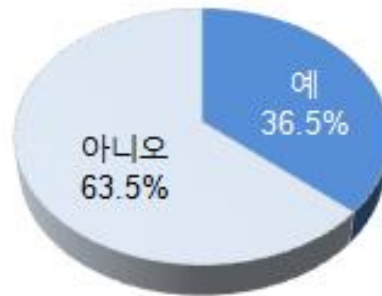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비싸다	71.4	61.1	50.6	62.7	59.2
비싸지 않다	28.6	38.9	49.4	37.3	40.8

- 자동차의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10명 중 약 3명 이상(36.5%)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그림 Ⅲ-15〉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

(N=575)



- 자동차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210)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가격별로 조사한 결과, 5%가 8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73.0%), 10%(78.6%)에서는 변경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한편, 보험료가 1%(29.2%), 3%(58.5%)에서는 변경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Ⅲ-89〉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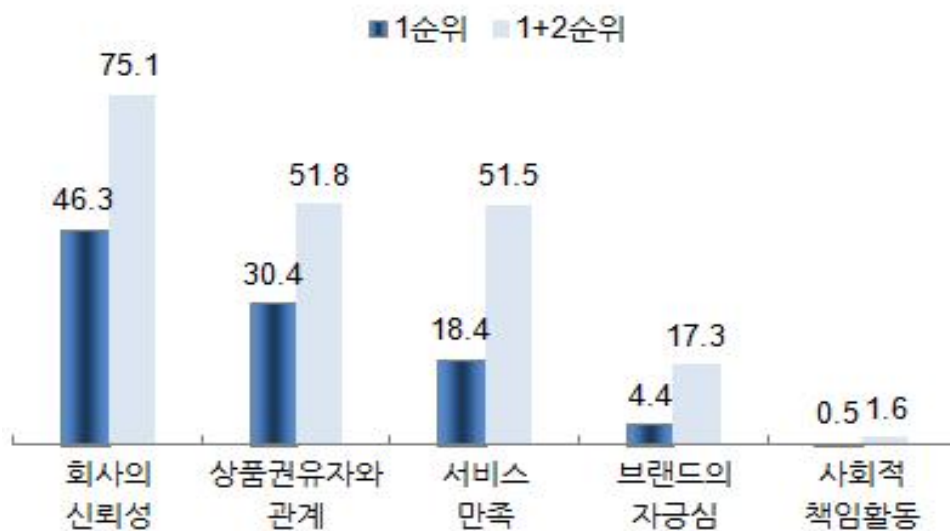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 (N=48)	3% (N=41)	5% (N=42)	8% (N=37)	10% (N=42)
변경 의향 있다	29.2	58.5	81.0	73.0	78.6
변경 의향 없다	70.8	41.5	19.0	27.0	21.4

■ 한편,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보험회사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응답자(N=365)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46.3%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상품 권유자와의 관계(30.4%),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18.4%), 회사의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16〉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비의향 이유(1순위)

(N=365 / 단위: %)



3) 세부 분석

■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 특성별

- 지역규모에 의한 보험회사 변경 의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음.
- 연령별로는 20대가 40.0%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29.8%로 가장 낮았음.
- 또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변경 의향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20대: 40.0% > 30대: 39.7% > 40대: 35.1% > 50대: 38.2% > 60대 이상: 29.8%).

〈표 Ⅲ-90〉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 특성별

(단위: %)

특성별		예	아니오
지역 규모	대도시	37.1	62.9
	중소도시	35.7	64.3
	군지역	38.6	61.4
응답자 연령	20대	40.0	60.0
	30대	39.7	60.3
	40대	35.1	64.9
	50대	38.2	61.8
	60대 이상	29.8	70.2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7.4	62.6
	블루칼라	36.1	63.9
	자영업	37.4	62.6
	농/임/어업	100.0	0.0
	주부	35.0	65.0
	은퇴자	20.0	80.0
	무직/기타	28.6	71.4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연령별

- 보험회사의 신뢰성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중소도시(47.8%), 남성(48.3%), 20대(53.3%)에서 높았음.
- 한편, 상품 권유자와 인간적 관계 때문이라는 응답은 여성(31.9%), 50대(35.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91〉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특성별

(단위: %)

특성별		회사의 신뢰성	상품 권유자와 관계	서비스 만족	브랜드 자긍심	사회적 책임활동
지역 규모	대도시	44.9	33.3	15.4	6.4	0.0
	중소도시	47.8	26.9	20.9	3.3	1.1
	군지역	44.4	37.0	18.5	0.0	0.0
성별	남성	48.3	29.9	17.7	3.3	0.7
	여성	40.4	31.9	20.2	7.4	0.0
응답자 연령	20대	53.3	16.7	20.0	10.0	0.0
	30대	42.7	26.8	22.0	7.3	1.2
	40대	46.9	29.2	17.7	5.3	0.9
	50대	44.4	35.8	18.5	1.2	0.0
	60대 이상	49.2	37.3	13.6	0.0	0.0

주: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 거부 의향

-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를 줄이고자 전화마케팅을 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82.9%, 거부할 의향이 없다는 17.1%로 나타남.

〈그림 Ⅲ-17〉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 거부 의향 여부

(N=1,200)



-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를 줄이고자 전화마케팅을 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중소도시(85.9%), 30대(85.4%), 블루칼라(84.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군지역(67.0%), 60대 이상(78.3%), 무직/기타(77.6%)에서 낮게 나타남.

〈표 Ⅲ-92〉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 거부 의향 여부

(단위: %)

특성별		예	아니오
지역 규모	대도시	82.8	17.2
	중소도시	85.9	14.1
	군지역	67.0	33.0
응답자 연령	20대	80.9	19.1
	30대	85.4	14.6
	40대	85.8	14.2
	50대	83.9	16.1
	60대 이상	78.3	21.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81.6	18.4
	블루칼라	84.1	15.9
	자영업	83.3	16.7
	농/임/어업	100.0	0.0
	주부	83.5	16.5
	은퇴자	81.3	18.8
	무직/기타	77.6	22.4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IV. 생명 · 손해보험 공통

1.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가. 건강상태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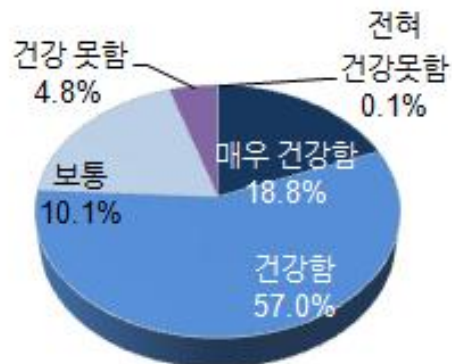
-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 응답자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대체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57.0%)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매우 건강함(18.8%), 보통(10.1%), 건강하지 못함(4.8%), 전혀 건강하지 못함(0.1%)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 현재 건강상태

(N=1,200)



3) 세부 분석

-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 현재 건강상태

(단위: %)

특성별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전체		75.8	19.3	4.8
응답자 연령	20대	97.5	2.5	0.0
	30대	91.6	7.9	0.4
	40대	78.4	19.0	2.6
	50대	72.9	22.0	5.1
	60대 이상	44.6	40.7	14.7

나. 부모 부양의식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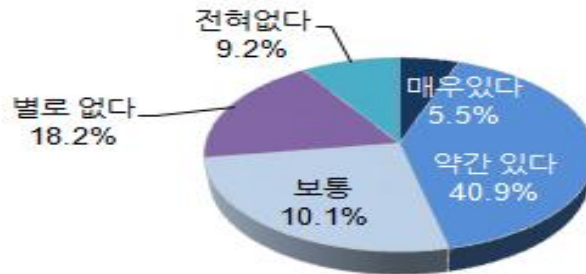
- 본인 및 자녀의 부양의식 조사를 통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의식에 대한 의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 향후 본인 부모님을 부양할 의사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46.4%는 부모님의 부양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향후 본인 부모님 부양 의사는 ‘약간 있다(40.9%)와 매우 있다(5.5%)’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46.4%)과 ‘별로 없다(18.2%)와 전혀 없다(9.2%)’의 부정적인 응답 비율(27.4%), 그리고 보통(10.1%)으로 응답 비율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IV-2〉 향후 부모님을 부양할 의향

(N=1,200)



3) 세부 분석

■ 향후 부모님을 부양할 의향은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부모님을 부양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대도시 44.3% < 중소도시 47.3% < 군지역 53.6%).

○ 직업별 부양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화이트칼라(53.3%)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영업(52.2%), 블루칼라(47.3%), 무직(42.9%), 주부(34.7%), 농/임/어업(16.7%)의 순으로 높음.

〈표 IV-2〉 향후 부모님을 부양할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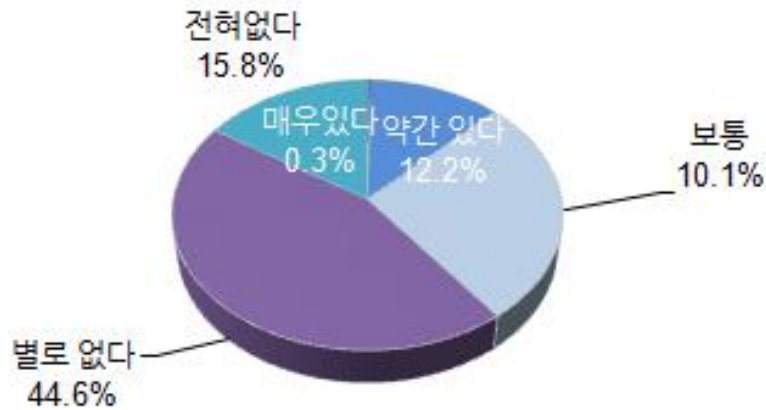
특성별		있다	보통	없다
전체		46.4	26.3	27.3
지역 규모	대도시	44.3	28.9	26.9
	중소도시	47.3	24.8	27.9
	군지역	53.6	19.6	26.8
응답자 연령	20대	55.3	30.2	14.6
	30대	56.1	25.1	18.8
	40대	52.2	24.6	23.1
	50대	44.5	27.5	28.0
	60대 이상	26.4	24.8	48.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53.3	27.2	19.5
	블루칼라	47.3	24.4	28.3
	자영업	52.2	21.1	26.7
	농/임/어업	16.7	16.7	66.7
	주부	34.7	33.1	32.2
	은퇴자	18.8	34.4	46.9
	무직/기타	42.9	28.6	28.6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은퇴 후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의향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 비율은 ‘있다(매우 있다 포함)’가 12.5%, ‘없다(전혀 없다 포함)’가 60.4%로 나타남.

〈그림 IV-3〉 은퇴 후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을 의향

(N=1,200)



- 직업별 부양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화이트칼라(13.2%)가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자영업(12.6%), 주부(12.4%), 무직(12.2%), 블루칼라(11.2%)의 순으로 높음.
- 은퇴 후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은 여성(14.3%)이 남성(10.7%)보다 높게 나타남.
 - 응답자 연령별 은퇴 후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 이상(14.7%), 40대(13.8%), 50대(13.6%), 20대(10.6%), 30대(9.2%)의 순으로 높음.

〈표 IV-3〉 은퇴 후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을 의향

(단위: %)

특성별		있다	보통	없다
전체		12.5	27.1	60.4
지역 규모	대도시	13.1	23.8	63.1
	중소도시	10.6	30.5	58.9
	군지역	19.6	26.8	53.6
성별	남성	10.7	28.0	61.4
	여성	14.3	26.2	59.5
응답자 연령	20대	10.6	28.1	61.3
	30대	9.2	28.5	62.3
	40대	13.8	25.4	60.8
	50대	13.6	28.4	58.1
	60대 이상	14.7	25.6	59.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3.2	31.6	55.1
	블루칼라	11.2	25.6	63.2
	자영업	12.6	24.6	62.8
	농/임/어업	0.0	16.7	83.3
	주부	12.4	27.7	59.9
	은퇴자	18.8	28.1	53.1
	무직/기타	12.2	24.5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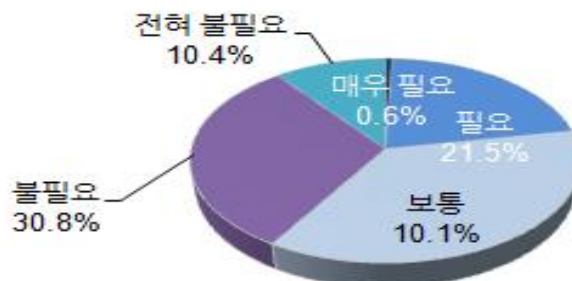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자녀로부터 용돈 및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불필요(41.2%)’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제적 도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불필요(30.8%)’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필요(21.5%)’, ‘전혀 불필요(10.4%)’, ‘보통(10.1%)’, ‘매우 필요(0.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4〉 향후 자녀로부터 용돈 및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의 필요성

(N=1,200)



■ 향후 자녀로부터 용돈 및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연령(30대 이후)이 높을수록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군지역(34.0%), 중소도시(21.7%), 대도시(2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25.1%), 남성(19.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연령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30.2%), 50대(25.8%), 40대(21.3%), 20대(16.1%), 30대(15.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4〉 향후 자녀로부터 용돈 및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의 필요성

(단위: %)

특성별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22.1	36.7	41.3
지역 규모	대도시	20.4	34.9	44.6
	중소도시	21.7	38.3	40.0
	군지역	34.0	37.1	28.9
성별	남성	19.0	39.8	41.2
	여성	25.1	33.6	41.3
응답자 연령	20대	16.1	40.7	43.2
	30대	15.5	40.6	43.9
	40대	21.3	33.2	45.5
	50대	25.8	31.4	42.8
	60대 이상	30.2	38.4	31.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7.3	43.8	39.0
	블루칼라	21.7	38.8	39.5
	자영업	21.1	28.2	50.7
	농/임/어업	66.7	16.7	16.7
	주부	27.7	37.6	34.7
	은퇴자	25.0	46.9	28.1
	무직/기타	22.4	36.7	40.8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보유 금융자산

1) 조사 목적

- 현재 응답자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금융자산의 가입비율과 중요도의 관계를 조사함.

2) 조사 결과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은행 예·적금에 가입한 비율이 95.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저축·연금보험(40.2%), 연금저축·펀드(15.2%), 임대수입(7.3%), 주식·채권(5.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N=1,200)



3) 세부 분석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중요도는 은행 예·적금(8.5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자산의 가입비율과 중요도의 관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5〉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단위: %)

특성별	가입 여부		중요도
	예	아니오	
은행 예·적금	95.0	5.0	8.57
보험회사 저축보험/연금보험	40.2	59.8	8.29
연금 저축(은행), 펀드(증권)	15.2	84.8	8.15
주식 또는 채권(펀드)	5.7	94.3	7.75
부동산 임대수입	7.3	92.7	8.61

라. 향후 노후준비

1) 조사 목적

■ 향후 노후준비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파악하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원인을 조사함.

2) 조사 결과

■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한 금융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자산의 가입비율과 중요도의 관계도 예·적금이 8.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한 금융상품은 노후근로소득(63.8%), 공적연금(56.1%), 보험회사 저축보험/연금보험(52.6%), 부동산 임대수입(39.4%), 퇴직연금(38.1%), 주택연금(30.8%), 기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금융자산의 가입비율과 중요도의 관계는 예·적금(8.54), 다음으로 퇴직연금(8.51), 공적연금(8.32), 부동산 임대수입(8.32), 노후 근로소득(8.11), 연금 저축(은행)/펀드(증권)(8.09), 기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한 금융상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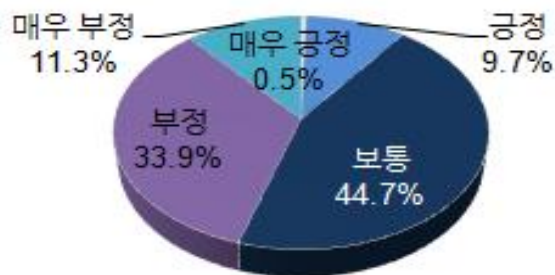
특성별	가입의향		중요도
	예	아니오	
공적연금	56.1	43.9	8.32
퇴직연금	38.1	61.9	8.51
은행 예·적금	89.2	10.8	8.54
보험회사 저축보험/연금보험	52.6	47.4	8.05
연금 저축(은행), 펀드(증권)	29.9	70.1	8.09
주식, 채권(펀드)	12.2	87.8	7.26
부동산 임대수입	39.4	60.6	8.32
노후 근로소득	63.8	36.3	8.11
자식의 경제적 지원	25.2	74.8	6.79
주택연금	30.8	69.2	7.54

■ 본인의 노후준비 평가는 ‘부정적(매우 부정 포함)’이 45.2%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본인의 노후준비 평가는 보통(4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정(33.9%), 매우 부정(11.3%), 긍정(9.7%), 매우 긍정(0.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6〉 본인의 노후준비 평가

(N=1,200)



3) 세부 분석

■ 본인의 노후준비 평가는 군지역(15.5%), 40대와 50대(각각 13.1%), 화이트칼라(1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 본인의 노후준비 평가

(단위: %)

특성		긍정	보통	부정	평균
전체		10.2	44.7	45.2	2.54
지역 규모	대도시	9.9	42.7	47.5	2.53
	중소도시	9.5	46.4	44.0	2.53
	군지역	15.5	46.4	38.1	2.68
성별	남성	10.3	43.2	46.4	2.53
	여성	10.0	46.1	43.9	2.55
응답자 연령	20대	7.0	31.7	61.3	2.16
	30대	5.0	45.2	49.8	2.45
	40대	13.1	50.7	36.2	2.72
	50대	13.1	51.3	35.6	2.72
	60대 이상	11.6	41.9	46.5	2.5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3.6	48.9	37.5	2.69
	블루칼라	6.6	37.6	55.8	2.33
	자영업	12.9	47.8	39.3	2.69
	농/임/어업	0.0	50.0	50.0	2.33
	주부	8.7	45.9	45.5	2.52
	은퇴자	6.3	46.9	46.9	2.59
	무직/기타	2.0	28.6	69.4	1.88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본인의 노후준비 부족 원인은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37.6%)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함.

○ 다음으로는 물가상승(21.4%), 짧은 근로기간, 수명연장(15.1%), 노후준비 인식부족(10.3%), 기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 노후준비 부족 원인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군지역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37.8%)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후준비 인식부족(16.2%), 짧은 근로기간, 수명연장(13.5%), 국민연금의 약한 노후보장기능(13.5%), 물가상승(8.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 노후준비 부족의 원인

(단위: %)

특성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	37.6	41.9	32.9	37.8
물가상승	21.4	21.9	22.9	8.1
짧은 근로기간, 수명연장	15.1	15.5	15.0	13.5
노후준비 인식부족	10.3	8.7	11.3	16.2
투자, 사업 실패	5.7	4.9	7.1	2.7
국민연금의 약한 노후보장기능	3.7	1.5	4.6	13.5
과도한 주택자금	2.2	3.8	0.8	0.0
자동차, 가구 등 구입	2.0	1.1	2.5	5.4
퇴직금 중간 정산	1.7	0.4	0.0	0.0
기타	0.2	0.4	2.9	2.7

마. 연금 가입 실태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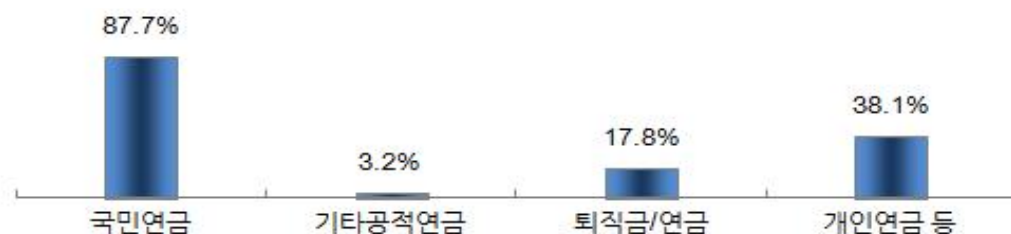
- 공·사연금 가입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을 파악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 노후생활 보장 연금 가입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률(87.7%)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신탁(38.1%), 퇴직금 및 퇴직연금(17.8%), 기타 공적연금(3.2%)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 노후생활 보장 연금 가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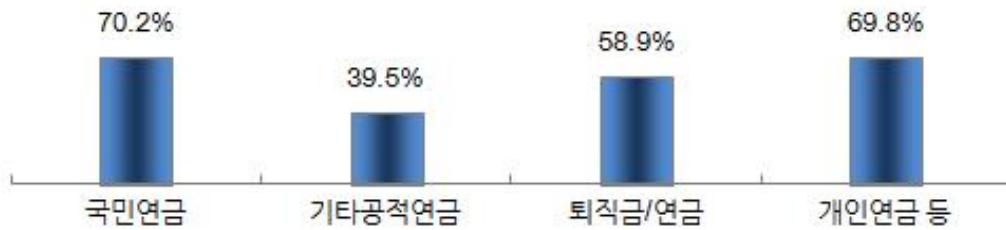
(N=1,200)



■ 응답자 본인 기준의 노후생활 보장 연금 가입 유무는 국민연금(70.2%)이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개인연금 · 연금저축 · 연금 · 신탁(69.8%), 퇴직금 및 퇴직연금 (58.9%), 기타 공적연금(39.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8〉 노후생활 보장 연금 가입자: 응답자 기준



3) 세부 분석

■ 노후생활 보장 연금 납입 보험료는 개인연금 · 연금저축 · 연금 · 신탁(30만 9천 원), 기타 공적연금(22만 원), 국민연금(17.7만 원) 순으로 나타남.

〈표 IV-9〉 노후생활 보장 연금 납입 보험료

(단위: 금액-%, 평균-만 원)

보험 상품	20만 원 이하	21만원 ~40만원	41만원 ~60만원	61만 원 이상	완료	평균
국민연금 (n=1052)	71.9	23.1	0.9	0.1	4.1	17.70
기타공적연금 (n=38)	57.9	26.3	7.9	-	7.9	22.03
개인연금(보험, 신탁 포함) (n=457)	48.1	31.9	13.3	5.3	1.3	30.93

■ 사적연금 가입 금융기관은 은행(퇴직연금)과 생명보험회사(개인연금)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은 은행(74.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명보험회사(10.3%), 증권사(9.8%), 손해보험회사(3.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개인연금 가입 금융기관은 생명보험회사(75.3%)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은행(15.8%), 손해보험회사(6.6%), 기타(2.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0〉 사적연금 가입 금융기관

(단위: %)

연금제도	은행	생보사	손보사	증권사	기타	계
퇴직연금(n=214)	74.8	10.3	3.3	9.8	1.9	100
개인연금(n=457)	15.8	75.3	6.6	0.4	2.0	100

바. 연금제도 만족도

1) 조사 목적

■ 공·사연금제도의 만족도와 불만족한 이유를 조사하여 향후 연금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함.

2) 조사 결과

■ 공·사연금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 기타 공적연금(공무원·교직원·군인연금)의 만족도(점수)가 4.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국민연금의 만족도 점수는 개인연금(3.69)과 퇴직연금(3.67)에 이어 가장 낮은 점수(3.35)를 기록함.

〈표 IV-11〉 공 · 사연금 만족도 점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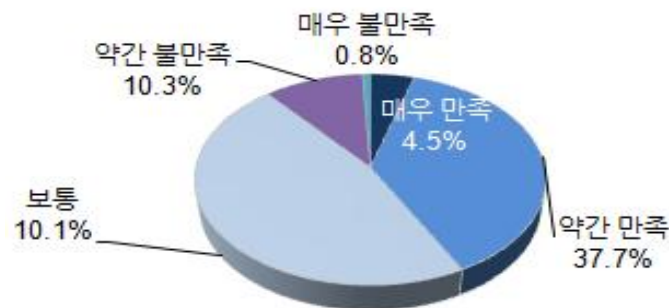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3.35	4.24	3.67	3.69

3) 세부 분석

- 국민연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42.2%(매우 4.5% + 약간 37.7%)이고, 반면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1.1%(매우 0.8% + 약간 10.3%)로 나타남.

〈그림 IV-9〉 국민연금의 만족도

(N=1,052)



- 국민연금의 불만족은 상대적으로 군지역, 여성, 40대, 화이트칼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군지역), 피부양자(여성), 보험료 납입기간이 장기(40대),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은(화이트칼라)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IV-12〉 국민연금의 만족도

(단위: 비율-%, 평균-점/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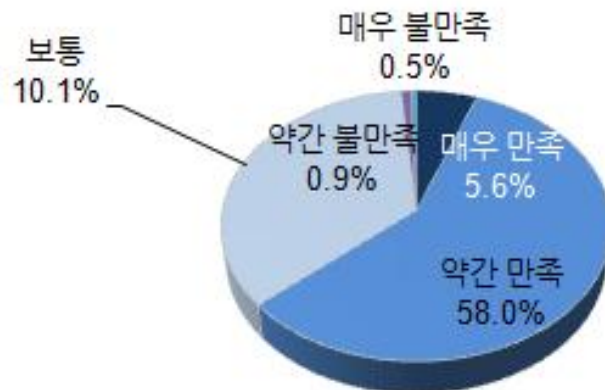
특성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전체		11.0	46.8	42.2	3.35
지역 규모	대도시	11.5	46.9	41.6	3.35
	중소도시	9.6	47.0	43.4	3.37
	군지역	16.3	45.0	38.8	3.25
성별	남성	10.9	49.0	40.0	3.33
	여성	11.1	44.5	44.3	3.37
응답자 연령	20대	8.3	49.4	42.2	3.37
	30대	12.1	50.7	37.2	3.28
	40대	14.8	44.0	41.2	3.29
	50대	11.1	47.5	41.5	3.35
	60대 이상	7.1	42.3	50.5	3.49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3.6	45.3	41.1	3.31
	블루칼라	11.2	49.4	39.5	3.31
	자영업	9.8	43.9	46.3	3.42
	농/임/어업	0.0	100.0	0.0	3.00
	주부	11.5	48.6	39.9	3.30
	은퇴자	8.3	37.5	54.2	3.50
	무직/기타	0.0	57.6	42.4	3.55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퇴직금(연금)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63.5%(매우 5.6%+약간 58.1%)이고, 반면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4%(매우 0.5%+약간 0.9%)로 나타남.

〈그림 IV-10〉 직장 퇴직금(연금)제도의 만족도

(N=214)



- 퇴직연금의 만족도는 대도시, 남성, 60대 이상, 화이트칼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3〉 직장의 퇴직금(연금)제도의 만족도

(단위: 비율-%, 평균-점/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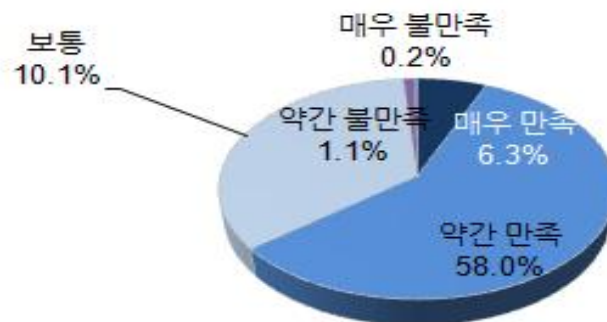
특성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전체		1.4	35.0	63.6	3.67
지역 규모	대도시	0.0	28.7	71.3	3.77
	중소도시	3.2	40.9	55.9	3.57
	군지역	0.0	46.2	53.8	3.62
성별	남성	1.9	32.7	65.4	3.71
	여성	0.9	37.3	61.8	3.64
응답자 연령	20대	0.0	40.9	59.1	3.68
	30대	0.0	31.7	68.3	3.73
	40대	4.9	31.1	63.9	3.62
	50대	0.0	42.4	57.6	3.64
	60대 이상	0.0	31.3	68.8	3.69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0	33.0	65.0	3.69
	블루칼라	0.0	39.0	61.0	3.68
	자영업	4.2	37.5	58.3	3.54
	주부	0.0	32.5	67.5	3.70
	은퇴자	0.0	50.0	50.0	3.50
	무직/기타	0.0	42.9	57.1	3.71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개인연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64.3%(매우 6.3%+약간 58.0%)이고, 반면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3%(매우 0.2%+약간 1.1%)로 나타남.

〈그림 IV-11〉 개인연금보험 · 연금저축 · 연금 · 신탁의 만족도

(N=457)



○ 개인연금의 만족도는 대도시, 남성, 50대, 자영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4〉 개인연금보험 · 연금저축 · 연금 · 신탁의 만족도

(단위: 비율-%, 평균-점/5점 만점)

특성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전체		1.3	34.4	64.3	3.69
지역 규모	대도시	0.5	33.2	66.4	3.73
	중소도시	2.4	34.6	63.0	3.66
	군지역	0.0	41.4	58.6	3.66
성별	남성	0.5	34.8	64.8	3.72
	여성	2.0	34.0	64.0	3.67
응답자 연령	20대	0.0	41.2	58.8	3.68
	30대	2.0	39.6	58.4	3.61
	40대	2.4	29.9	67.7	3.71
	50대	1.0	30.1	68.9	3.76
	60대 이상	0.0	34.5	65.5	3.69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3	35.7	62.0	3.65
	블루칼라	1.1	30.5	68.4	3.74
	자영업	1.7	29.2	69.2	3.78
	주부	0.0	37.6	62.4	3.63
	은퇴자	0.0	60.0	40.0	3.40
	무직/기타	0.0	64.3	35.7	3.43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국민연금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재정 불안(41.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예상 연금액의 불충분(35.3%), 기금운용의 부실(16.4%)순으로 나타남.

〈표 IV-15〉 국민연금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

불만족 이유	비율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	41.4
예상 연금액 불충분	35.3
기금운용의 부실	16.4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부족	2.6
연령에 따른 급여수준과 수급연령의 형평성	1.7
보험료 부담	0.9
기초연금 도입	0.9
국민연금제도의 낮은 변경	0.9

- 향후 가입을 희망하는 퇴직연금의 종류는 응답자의 71.4%가 확정급여형을 28.6%가 확정기여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2〉 향후 퇴직연금 가입할 종류

(N=1,200)



- 확정급여형의 응답자 특성은 군지역(76.3%), 여성(76.2%), 60대 이상(75.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확정기여형의 응답자 특성은 대도시(31.4%), 남성(33.6%), 30대(3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6〉 향후 퇴직연금 가입할 종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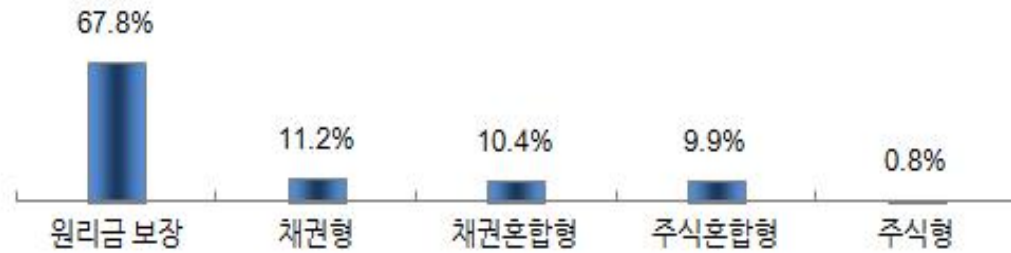
특성별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전체		71.4	28.6
지역 규모	대도시	68.6	31.4
	중소도시	73.4	26.6
	군지역	76.3	23.7
성별	남성	66.4	33.6
	여성	76.2	23.8
응답자 연령	20대	69.8	30.2
	30대	65.7	34.3
	40대	74.6	25.4
	50대	70.8	29.2
	60대 이상	75.2	24.8

- 현재 또는 향후 퇴직연금 가입시 적립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원리금보장형(67.8%)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채권형(11.2%), 채권혼합형(10.4%), 주식혼합형(9.9%), 주식형(0.8%)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3〉 향후 적립금 운용계획

(N=1,200)



○ 원리금 보장형에 대한 의견은 대도시(72.9%) 보다는 군지역(76.3%), 남성(62.5%)보다는 여성(72.8%), 연령대(30대 이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30대 57.3% < 60대 이상 82.6%).

〈표 IV-17〉 향후 적립금 운용계획

(단위: %)

특성별		원리금 보장	채권형	채권혼합	주식혼합	주식형
전체		67.8	11.2	10.4	9.9	0.8
지역 규모	대도시	72.9	9.0	9.7	8.1	0.4
	중소도시	60.9	13.8	12.3	12.1	0.9
	군지역	76.3	9.3	4.1	8.2	2.1
성별	남성	62.5	12.5	13.2	10.7	1.0
	여성	72.8	9.8	7.7	9.2	0.5
응답자 연령	20대	60.8	15.1	9.5	13.6	1.0
	30대	57.3	13.4	13.8	14.2	1.3
	40대	65.7	10.1	12.7	10.8	0.7
	50대	70.3	10.2	11.4	7.6	0.4
	60대 이상	82.6	8.1	4.7	4.3	0.4

2. 금융역량 및 보험이해도

■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보험이해력, 재무관리 성향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동 조사결과는 소비자의 금융 및 보험이해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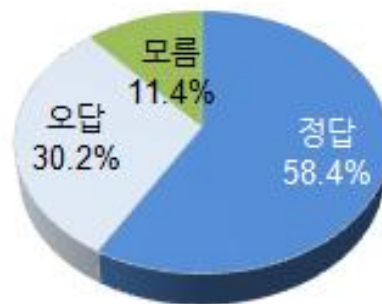
- 금융이해력 관련 질문으로는 크게 이자율, 물가상승률, 위험분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였음.
- 보험이해력과 관련해서는 변액보험상품, 해지환급금, 청약철회, 위험보험료, 공시이율 등에 대한 질문을 함.

■ 이자율에 대한 이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자율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 후 예상되는 저축예금계좌의 잔액을 선택하도록 함.

- 전체 정답률은 58.4%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답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또는 직업별 차이는 크지 않았음.

〈그림 IV-14〉 이자율에 대한 이해도

(N=1,200)



〈표 IV-18〉 이자율에 대한 이해도

(단위: %)

특성별		정답률	오답률	모름
전체		58.4	30.2	11.4
성별	남성	59.7	31.7	8.6
	여성	57.2	28.7	14.1
응답자 연령	20대	61.8	29.1	9.0
	30대	61.9	33.1	5.0
	40대	59.7	33.6	6.7
	50대	58.1	32.2	9.7
	60대 이상	51.6	22.9	25.6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62.9	33.1	4.0
	블루칼라	56.6	32.6	10.9
	자영업	59.5	31.1	9.4
	농/임/어업	0.0	16.7	83.3
	주부	56.6	26.4	16.9
	은퇴자	50.0	28.1	21.9
	무직/기타	57.1	16.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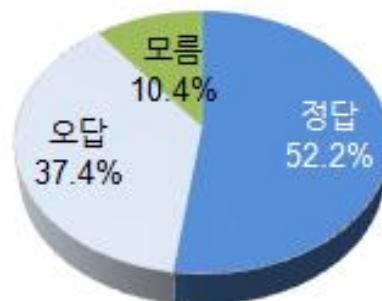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저축예금계좌의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을 제시한 후, 1년 후 동 계좌의 돈이 갖는 구매력에 대해 질문함.

○ 전체 정답률은 52.2%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는 30~40대 그룹,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그룹의 정답률이 높게 조사됨.

〈그림 IV-15〉 물가상승률에 대한 이해도

(N=1,200)



〈표 IV-19〉 물가상승률에 대한 이해도

(단위: %)

특성별		정답률	오답률	모름
전체		52.2	37.4	10.4
성별	남성	52.7	39.5	7.8
	여성	51.6	35.4	13.0
응답자 연령	20대	53.8	38.7	7.5
	30대	56.1	39.7	4.2
	40대	56.7	38.8	4.5
	50대	52.1	39.4	8.5
	60대 이상	42.6	31.0	26.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55.1	41.2	3.7
	블루칼라	50.0	40.3	9.7
	자영업	52.5	39.3	8.2
	농/임/어업	16.7	16.7	66.7
	주부	52.9	32.2	14.9
	은퇴자	46.9	31.3	21.9
	무직/기타	49.0	20.4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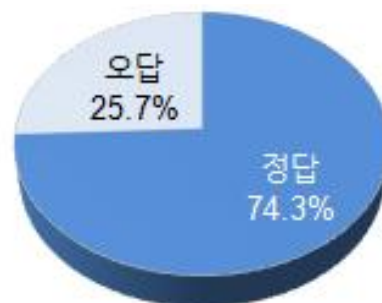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다양한 종목의 채권과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함.

○ 전체 정답률은 74.3%, 오답은 25.7%로 조사되어 4명 중 3명 이상이 위험분산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IV-16〉 위험분산에 대한 이해도(1)

(N=1,200)



〈표 IV-20〉 위험분산에 대한 이해도(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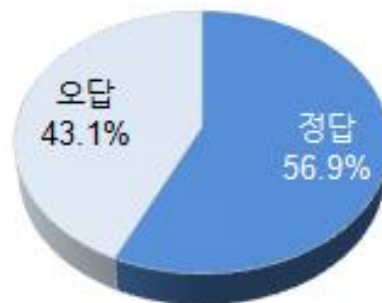
특성별		정답률	오답률
전체		74.3	25.7
성별	남성	76.6	23.4
	여성	72.1	27.9
응답자 연령	20대	76.9	23.1
	30대	80.8	19.2
	40대	73.9	26.1
	50대	70.8	29.2
	60대 이상	70.2	29.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76.5	23.5
	블루칼라	72.1	27.9
	자영업	74.2	25.8
	농/임/어업	66.7	33.3
	주부	72.3	27.7
	은퇴자	84.4	15.6
	무직/기타	79.6	20.4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다음으로 수익의 안정성 측면에서 단일회사의 주식을 구매하는 것과 뮤추얼펀드를 구매하는 것을 비교하는 질문에 대한 전체 정답률은 56.9%, 오답은 43.1%로 조사되었음.

〈그림 IV-17〉 위험분산에 대한 이해도(2)

(N=1,200)



〈표 IV-21〉 위험분산에 대한 이해도(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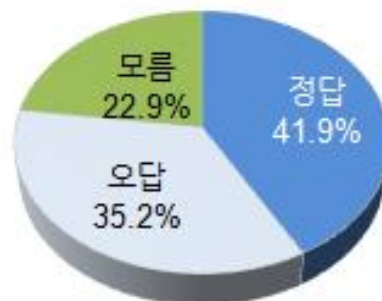
특성별		정답률	오답률
전체		56.9	43.1
성별	남성	57.1	42.9
	여성	56.7	43.3
응답자 연령	20대	51.8	48.2
	30대	54.8	45.2
	40대	60.1	39.9
	50대	56.4	43.6
	60대 이상	60.1	39.9
	화이트칼라	55.5	44.5
응답자 직업	블루칼라	54.7	45.3
	자영업	57.5	42.5
	농/임/어업	33.3	66.7
	주부	59.5	40.5
	은퇴자	65.6	34.4
	무직/기타	57.1	42.9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평균수익과 리스크를 판단하는 문항에 대한 전체 정답률은 41.9%로 조사됨.
- 성별로는 남성의 정답률(44.2%)이 여성의 정답률(39.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및 60대 이상 응답자의 정답률이 4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IV-18〉 리스크 및 평균수익에 대한 이해도

(N=1,200)



〈표 IV-22〉 리스크 및 평균수익에 대한 이해도

(단위: %)

특성별		정답률	오답률	모름
전체		41.9	35.2	22.9
성별	남성	44.2	36.8	19.0
	여성	39.7	33.6	26.7
응답자 연령	20대	44.7	39.2	16.1
	30대	47.7	36.0	16.3
	40대	50.4	33.6	16.0
	50대	36.0	38.1	25.8
	60대 이상	31.0	30.2	38.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53.3	34.2	12.5
	블루칼라	43.8	38.8	17.4
	자영업	37.0	37.0	26.1
	농/임/어업	16.7	0.0	83.3
	주부	38.0	33.5	28.5
	은퇴자	40.6	21.9	37.5
	무직/기타	26.5	30.6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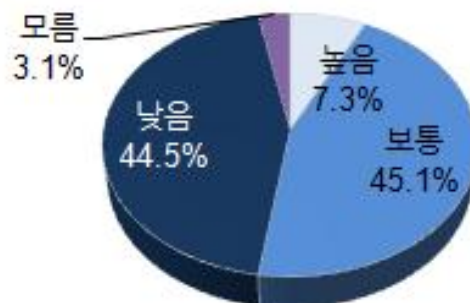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응답자에게 자신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판단해 달라고 한 결과, 45.1%의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44.5%의 응답자가 자신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였음.

○ 금융 이해력 수준이 높다고 판단한 계층은 남성, 40대,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IV-19〉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대한 판단

(N=1,200)



〈표 IV-23〉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대한 판단

(단위: %)

특성별		높음	보통	낮음	모름	평균
전체		7.3	45.1	44.5	3.1	2.49
성별	남성	9.2	49.0	38.6	3.2	2.60
	여성	5.6	41.3	50.2	3.0	2.39
응답자 연령	20대	5.0	41.2	51.3	2.5	2.42
	30대	5.4	58.2	34.3	2.1	2.65
	40대	11.6	50.7	35.1	2.6	2.71
	50대	8.5	49.6	39.0	3.0	2.55
	60대 이상	5.4	26.0	63.6	5.0	2.11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1.0	54.8	32.7	1.5	2.70
	블루칼라	5.4	44.2	47.3	3.1	2.40
	자영업	8.8	45.2	42.8	3.2	2.44
	농/임/어업	0.0	0.0	33.3	66.7	2.00
	주부	5.0	38.4	54.5	2.1	1.93
	은퇴자	3.1	43.8	46.9	6.3	2.28
	무직/기타	2.0	34.7	57.1	6.1	2.03

주: 1)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평균은 매우 낮음이 1점, 매우 높음이 5점인 리커트 척도로 환산한 점수임.

■ 보험 관련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해지환급액이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실과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86.6%와 71.1%로 높았음.

○ 변액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해지된 보험계약을 본래대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이 밖에 공시이율과 보험료 간의 관계, 보험료지수에 대한 인지도는 60% 정도 수준으로 나타남.

〈표 IV-24〉 보험 관련 이해도

(단위: %)

구분	정답률	오답률
변액보험상품과 예금자 보호	47.3	52.7
보험계약해지와 받을 수 있는 금액	86.6	13.4
청약철회와 보험료 환급	66.3	33.7
위험보험료 환급가능 여부	71.1	28.9
해지된 보험계약 부활 가능 여부	42.3	57.7
공시이율과 보험료의 관계	59.3	40.8
보험료지수와 가격비교	59.0	41.0

■ 변액보험상품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정답률은 47.3%였음.

○ 연령대별로는 40대의 정답률이 53.4%로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에 비해 인지도가 높았음.

〈표 IV-25〉 변액보험상품 예금자 보호 여부에 대한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정답률	오답률
전체		47.3	52.7
성별	남성	47.1	52.9
	여성	47.5	52.5
응답자 연령	20대	43.7	56.3
	30대	46.0	54.0
	40대	53.4	46.6
	50대	48.7	51.3
	60대 이상	43.8	56.2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45.6	54.4
	블루칼라	51.2	48.8
	자영업	46.6	53.4
	농/임/어업	100.0	0.0
	주부	45.5	54.5
	은퇴자	43.8	56.3
	무직/기타	46.9	53.1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모든 그룹에서 80% 이상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87.7%)의 정답률이 남성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88.7%)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IV-26〉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액에 대한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정답률	오답률
전체		86.6	13.4
성별	남성	85.4	14.6
	여성	87.7	12.3
응답자 연령	20대	85.9	14.1
	30대	88.7	11.3
	40대	87.3	12.7
	50대	86.9	13.1
	60대 이상	84.1	15.9
	화이트칼라	85.7	14.3
응답자 직업	블루칼라	87.2	12.8
	자영업	87.1	12.9
	농/임/어업	83.3	16.7
	주부	88.0	12.0
	은퇴자	81.3	18.8
	무직/기타	81.6	18.4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정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의 그룹에서 65% 이상으로 조사됨.

〈표 IV-27〉 청약철회와 보험료 환급에 대한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정답률	오답률
전체		66.3	33.7
성별	남성	65.4	34.6
	여성	67.2	32.8
응답자 연령	20대	66.8	33.2
	30대	66.9	33.1
	40대	67.5	32.5
	50대	65.3	34.7
	60대 이상	65.1	34.9
	화이트칼라	68.4	31.6
응답자 직업	블루칼라	64.7	35.3
	자영업	66.0	34.0
	농/임/어업	83.3	16.7
	주부	66.1	33.9
	은퇴자	65.6	34.4
	무직/기타	65.3	34.7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정답을 맞춘 응답자는 여성(67.2%), 40대(67.5%), 화이트칼라(68.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60대 응답자 그룹과 은퇴자 그룹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IV-28〉 만기 시 위험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정답률	오답률
전체		71.1	28.9
성별	남성	70.5	29.5
	여성	71.6	28.4
응답자 연령	20대	71.9	28.1
	30대	74.9	25.1
	40대	71.3	28.7
	50대	72.0	28.0
	60대 이상	65.9	34.1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71.7	28.3
	블루칼라	72.1	27.9
	자영업	68.9	31.1
	농/임/어업	66.7	33.3
	주부	73.1	26.9
	은퇴자	56.3	43.8
	무직/기타	77.6	22.4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해지된 보험계약은 본래 계약대로 부활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남성의 정답률이 여성의 정답률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그룹에서 높았음.

〈표 IV-29〉 해지된 보험계약 부활 가능 여부에 대한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정답률	오답률
전체		42.3	57.7
성별	남성	43.4	56.6
	여성	41.3	58.7
응답자 연령	20대	41.2	58.8
	30대	44.8	55.2
	40대	39.9	60.1
	50대	41.5	58.5
	60대 이상	44.2	55.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43.4	56.6
	블루칼라	39.9	60.1
	자영업	45.5	54.5
	농/임/어업	33.3	66.7
	주부	40.5	59.5
	은퇴자	53.1	46.9
	무직/기타	30.6	69.4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는 문항의 정답률의 경우, 성별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연령대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음.

〈표 IV-30〉 공시이율과 만기 보험금 간의 관계에 대한 인지도

(단위: %)

특성별		정답률	오답률
전체		59.2	40.8
성별	남성	59.0	41.0
	여성	59.5	40.5
응답자 연령	20대	63.3	36.7
	30대	57.7	42.3
	40대	57.1	42.9
	50대	61.0	39.0
	60대 이상	58.1	41.9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60.7	39.3
	블루칼라	60.9	39.1
	자영업	56.9	43.1
	농/임/어업	50.0	50.0
	주부	59.5	40.5
	은퇴자	46.9	53.1
	무직/기타	67.3	32.7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20대의 응답률이 6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보장내용이 동일할 때 보험료지수가 높은 상품이 비싸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응답률이 높았음.

〈표 IV-31〉 보험료지수와 가격비교

(단위: %)

특성별		정답률	오답률
전체		59.0	41.0
성별	남성	59.3	40.7
	여성	58.7	41.3
응답자 연령	20대	61.8	38.2
	30대	59.8	40.2
	40대	59.3	40.7
	50대	56.8	43.2
	60대 이상	57.8	42.2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58.8	41.2
	블루칼라	57.8	42.2
	자영업	57.2	42.8
	농/임/어업	66.7	33.3
	주부	63.6	36.4
	은퇴자	40.6	59.4
	무직/기타	67.3	32.7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소비자의 재무관리 성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네 가지 항목 모두에서 3점(어느 정도 그러함) 이상의 결과를 보여 대체로 건전한 재무관리 성향을 보였음.

○ 그러나 ‘장기 재무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항목과 ‘계획한 예산을 세우고 그에 따라 소득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라는 항목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표 IV-32〉 재무관리 성향

(단위: %, 점)

구분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평균
비용지불능력 고려	1.8	24.8	73.4	3.88
청구서 기한 내 납부	3.5	22.9	73.6	4.00
장기재무목표 설계 및 실천	9.3	39.7	51.1	3.52
예산의 계획성	4.9	40.5	54.6	3.55

주: 평균은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이며, 1이 '전혀 그렇지 않음', 5가 '언제나 그려함'에 해당됨.

■ 무엇인가 구매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신중히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8%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0.8%)보다는 여성(75.9%)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V-33〉 재무관리성향: 비용 지불능력 고려

(단위: %, 점)

구분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평균
전체		1.8	24.8	73.4	3.88
성별	남성	2.7	26.4	70.8	3.82
	여성	1.0	23.1	75.9	3.93
응답자 연령	20대	2.5	30.7	66.8	3.73
	30대	1.7	23.8	74.5	3.86
	40대	1.1	30.6	68.3	3.84
	50대	3.0	22.0	75.0	3.90
	60대 이상	1.2	17.4	81.4	4.0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2	24.3	73.5	3.88
	블루칼라	2.3	31.4	66.3	3.76
	자영업	1.5	24.0	74.5	3.93
	농/임/어업	0.0	16.7	83.3	4.17
	주부	0.8	21.1	78.1	3.93
	은퇴자	0.0	12.5	87.5	4.03
	무직/기타	6.1	24.5	69.4	3.73

주: 평균은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이며, 1이 '전혀 그렇지 않음', 5가 '언제나 그려함'에 해당됨.

■ 각종 청구서를 기한 내에 잘 지불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3.6%가 그렇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남성(69.7%)보다는 여성(77.4%)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구서를 납부 기한 내에 잘 지불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대에서 65.8%로 가장 낮고, 40대에서 76.5%로 가장 높았음.

〈표 IV-34〉 재무관리성향: 청구서 기한 내 납부

(단위: %, 점)

구분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렇함	평균
전체		3.5	22.9	73.6	4.00
성별	남성	4.1	26.3	69.7	3.93
	여성	3.0	19.7	77.4	4.07
응답자 연령	20대	4.5	29.6	65.8	3.91
	30대	4.2	21.3	74.5	3.98
	40대	3.4	20.1	76.5	4.00
	50대	3.0	24.2	72.9	3.99
	60대 이상	2.7	20.9	76.4	4.09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3	21.2	76.5	4.06
	블루칼라	5.2	26.4	68.4	3.90
	자영업	3.8	23.8	72.4	3.97
	농/임/어업	0.0	0.0	100.0	4.40
	주부	6.7	13.3	80.0	4.13
	은퇴자	0.0	25.0	75.0	4.09
	무직/기타	5.3	13.2	81.6	4.03

주: 평균은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이며, 1이 '전혀 그렇지 않음', 5가 '언제나 그렇함'에 해당됨.

■ 장기 재무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1.1%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9.3%로 나타남.

○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40대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가 가장 낮은 48.2%로 나타남.

○ 성별과 응답자의 직업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IV-35〉 재무관리성향: 장기 재무목표

(단위: %, 점)

구분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평균
전체		9.3	39.7	51.1	3.52
성별	남성	10.3	39.2	50.5	3.50
	여성	8.2	40.2	51.6	3.54
응답자 연령	20대	11.1	40.7	48.2	3.45
	30대	7.9	40.2	51.9	3.55
	40대	9.0	36.2	54.9	3.56
	50대	9.7	39.4	50.8	3.52
	60대 이상	8.9	42.2	48.8	3.5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6.1	37.8	56.1	3.62
	블루칼라	13.0	42.9	44.2	3.39
	자영업	9.5	38.7	51.8	3.52
	농/임/어업	0.0	40.0	60.0	3.80
	주부	26.7	20.0	53.3	3.33
	은퇴자	4.5	47.7	47.7	3.52
	무직/기타	15.8	50.0	34.2	3.26

주: 평균은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이며, 1이 '전혀 그렇지 않음', 5가 '언제나 그려함'에 해당됨.

■ 소득 중 지출, 저축, 청구서 지불 등을 위한 몫을 가지고 계획대로 예산을 세우고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54.6%로 나타났고, 보통 40.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예산을 세우고 그에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40대에서 가장 높았던(57.5%) 반면, 20대에서 가장 낮았음(50.3%).

〈표 IV-36〉 재무관리성향: 예산의 계획성

(단위: %, 점)

구분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평균
전체		4.9	40.5	54.6	3.55
성별	남성	6.4	40.3	53.2	3.52
	여성	3.4	40.7	55.9	3.58
응답자 연령	20대	4.5	45.2	50.3	3.50
	30대	7.1	40.6	52.3	3.49
	40대	6.3	36.2	57.5	3.58
	50대	3.0	41.9	55.1	3.57
	60대 이상	3.5	39.9	56.6	3.6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4.0	39.0	57.0	3.58
	블루칼라	7.0	41.5	51.6	3.50
	자영업	5.0	38.1	56.9	3.60
	농/임/어업	0.0	50.0	50.0	3.67
	주부	3.3	40.9	55.8	3.55
	은퇴자	6.3	37.5	56.3	3.59
	무직/기타	6.1	59.2	34.7	3.31

주: 평균은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이며, 1이 '전혀 그렇지 않음', 5가 '언제나 그러함'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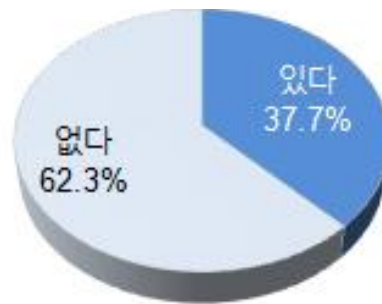
3. LTCI의 가입성향과 한계 요인 분석

■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 가입 의향

- 간병보험에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37.7%, 가입 의향이 없는 의견은 62.3%로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24.6%p 높게 나타남.
- 여성(40.2%)이 남성(35.1%)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0〉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 가입 의향

(N=1,200)



〈표 IV-37〉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 가입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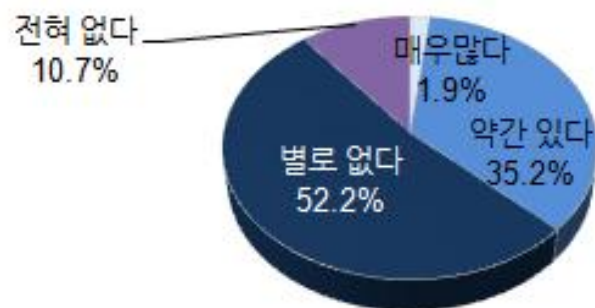
특성별		있다	없다
전체		37.7	62.3
성별	남성	35.1	64.9
	여성	40.2	59.8
응답자 연령	20대	30.7	69.3
	30대	36.8	63.2
	40대	38.4	61.6
	50대	42.4	57.6
	60대 이상	38.8	61.2

■ 현물서비스 급부상품 출시 이용 의향 여부

- 현물서비스 급부상품이 출시한다면 여성(40.0%), 50대(42.4%), 주부(43.4%)에서 이용할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21〉 현물서비스 급부상품 출시 이용 의향 여부

(N=1,200)



〈표 IV-38〉 현물서비스 급부상품 출시 이용 의향 여부

(단위: %)

특성별		있다	없다
전체		37.1	62.9
성별	남성	34.1	65.9
	여성	40.0	60.0
응답자 연령	20대	31.2	68.8
	30대	36.4	63.6
	40대	35.8	64.2
	50대	42.4	57.6
	60대 이상	38.8	61.2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4.2	65.8
	블루칼라	36.4	63.6
	자영업	38.1	61.9
	농/임/어업	16.7	83.3
	주부	43.4	56.6
	은퇴자	31.3	68.8
	무직/기타	24.5	75.5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간병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이유

- 간병보험에 가입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간병비가 가족에게 줄 부담’이라는 의견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기간병비 지출로 저축, 예금을 소진’(22.6%), ‘장기간병을 경험’(16.6%)순으로 나타남.
- ‘간병비가 가족에게 줄 부담’이라는 의견은 남성(64.3%), 30대(56.3%), 블루칼라(72.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22〉 간병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이유

(N=452)



〈표 IV-39〉 간병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이유

(단위: %)

특성별		간병비 부담	저축, 예금 소진	장기간병 경험 있음
전체		60.8	22.6	16.6
성별	남성	64.3	18.4	17.4
	여성	58.0	26.1	15.9
응답자 연령	20대	59.0	24.6	16.4
	30대	68.2	18.2	13.6
	40대	56.3	21.4	22.3
	50대	59.0	23.0	18.0
	60대 이상	62.0	26.0	12.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61.6	21.2	17.2
	블루칼라	72.0	12.9	15.1
	자영업	57.5	25.4	17.2
	주부	53.8	29.2	17.0
	은퇴자	55.6	22.2	22.2
	무직/기타	72.7	18.2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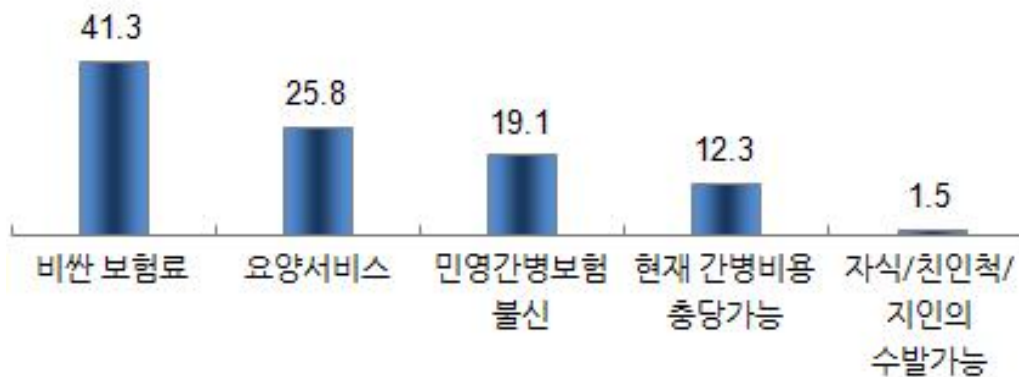
주: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간병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

- 간병보험에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는 ‘간병보험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충분’(25.8%), ‘민영 간병보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19.1%)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23〉 간병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

(N=748)



〈표 IV-40〉 간병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특성별		비싼 보험료	요양서비스	보험 불신	비용 총당	수발 가능
전체		41.3	25.8	19.1	12.3	1.5
성별	남성	40.7	27.2	19.1	12.0	1.0
	여성	41.9	24.4	19.2	12.6	1.9
응답자 연령	20대	46.4	19.6	21.0	10.9	2.2
	30대	39.1	21.2	18.5	20.5	0.7
	40대	43.6	27.9	18.2	10.3	0.0
	50대	39.7	27.9	19.1	12.5	0.7
	60대 이상	38.0	31.6	19.0	7.6	3.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42.2	25.4	17.9	12.7	1.7
	블루칼라	47.9	23.0	20.0	9.1	0.0
	자영업	39.6	25.6	20.8	13.0	1.0
	농/임/어업	33.3	66.7	0.0	0.0	0.0
	주부	33.1	28.7	19.1	16.2	2.9
	은퇴자	52.2	21.7	13.0	8.7	4.3
	무직/기타	42.1	26.3	18.4	10.5	2.6

주: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간병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 간병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장범위(51.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험료 수준(32.4%), 보장기간(10.6%)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험료 수준을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4〉 간병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N=1,200)



〈표 IV-41〉 간병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연령별, 성별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성	여성
보장 범위	51.7	57.8	53.6	51.9	51.7	45.0	52.0	51.3
보험료 수준	32.4	25.6	32.2	32.8	31.8	38.0	33.1	31.8
보장 기간	10.6	11.1	10.0	10.8	10.2	10.9	9.3	11.8
보험회사 명성	3.1	2.0	2.9	3.0	3.4	3.9	3.2	3.0
브랜드 이미지	1.2	1.0	0.4	1.1	2.1	1.2	1.4	1.0
지인의 추천	1.0	2.5	0.8	0.0	0.8	1.2	0.8	1.1
회사의 안정성	0.1	0.0	0.0	0.4	0.0	0.0	0.2	0.0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직업별로 살펴보면 모든 직업분야에서 보장범위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은퇴자(40.6%), 자영업(37.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42〉 간병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보장 범위	57.0	51.9	47.5	50.0	47.9	56.3	65.3
보험료 수준	28.3	27.5	37.8	50.0	33.9	40.6	28.6
보장 기간	9.6	12.8	9.7	0.0	13.2	3.1	4.1
보험회사 명성	3.3	4.7	2.6	0.0	2.9	0.0	0.0
브랜드 이미지	0.4	1.6	1.5	0.0	1.2	0.0	2.0
지인의 추천	1.1	1.6	0.9	0.0	0.8	0.0	0.0
회사의 안정성	0.4	0.0	0.0	0.0	0.0	0.0	0.0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간병비를 지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고려할 사항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지원’과 ‘자식이나 지인들과 상의’(3.18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본인이 정보 수집’(3.06점), ‘장기요양시설에 입주’(2.83점) 순으로 나타남.

〈표 IV-43〉 간병비를 지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고려사항
(단위: %, 평균-점/5점 만점)

고려 사항	있음	없음	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지원	82.6	17.4	3.18
민영 간병보험에 가입	53.1	46.9	2.62
은퇴 재무 설계사와 상의	38.9	61.1	2.39
보험설계사와 상의	54.7	45.3	2.64
자식이나 지인들과 상의	80.0	20.0	3.18
본인 스스로 장기간병제도와 관련된 정보 수집	78.3	21.8	3.06
보유주택을 매각	54.1	45.9	2.63
장기요양시설에 입주	66.5	33.5	2.83

○ 본인이 고려할 사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지원은 성별과 연령, 직업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44〉 본인의 고려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단위: %, 평균-점/5점 만점)

특성별		있음	없음	평균
전체		82.6	17.4	3.18
성별	남성	81.2	18.8	3.13
	여성	83.9	16.1	3.22
응답자 연령	20대	81.9	18.1	3.16
	30대	84.9	15.1	3.20
	40대	82.8	17.2	3.17
	50대	83.1	16.9	3.18
	60대 이상	80.2	19.8	3.1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85.3	14.7	3.24
	블루칼라	80.6	19.4	3.11
	자영업	82.7	17.3	3.21
	농/임/어업	66.7	33.3	2.83
	주부	83.1	16.9	3.17
	은퇴자	87.5	12.5	3.16
	무직/기타	73.5	26.5	3.00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본인이 고려할 사항으로 민영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53.1%, 없다는 의견은 46.9%로 나타남.
- 계층별로는 여성(56.4%), 40대(57.1%), 자영업(55.7%)과 주부(55.4%)에서 민영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45〉 본인의 고려사항: 민영 간병보험에 가입

(단위: %, 평균-점/5점 만점)

특성별		있음	없음	평균
전체		53.1	46.9	2.62
성별	남성	49.7	50.3	2.56
	여성	56.4	43.6	2.68
응답자 연령	20대	51.8	48.2	2.57
	30대	53.1	46.9	2.64
	40대	57.1	42.9	2.70
	50대	51.3	48.7	2.60
	60대 이상	51.6	48.4	2.59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53.7	46.3	2.63
	블루칼라	53.1	46.9	2.58
	자영업	55.7	44.3	2.66
	농/임/어업	16.7	83.3	1.83
	주부	55.4	44.6	2.69
	은퇴자	43.8	56.3	2.59
	무직/기타	30.6	69.4	2.29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은퇴 재무 설계사와 상의할 것을 고려하는 비율은 38.9%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39.8%), 40대(42.5%), 화이트칼라(45.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30대(64.7%), 자영업(66.0%)에서는 은퇴 재무 설계사와 상의할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V-46〉 본인의 고려사항: 은퇴 재무 설계사와 상의

(단위: %, 평균-점/5점 만점)

특성별		있음	없음	평균
전체		38.9	61.1	2.39
성별	남성	38.0	62.0	2.38
	여성	39.8	60.2	2.39
응답자 연령	20대	43.2	56.8	2.48
	30대	35.1	64.9	2.32
	40대	42.5	57.5	2.41
	50대	39.0	61.0	2.37
	60대 이상	35.3	64.7	2.36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45.2	54.8	2.48
	블루칼라	38.8	61.2	2.41
	자영업	34.0	66.0	2.30
	농/임/어업	33.3	66.7	1.67
	주부	37.6	62.4	2.35
	은퇴자	43.8	56.3	2.53
	무직/기타	42.9	57.1	2.51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보험설계사와 상의한다는 비율은 성별, 연령, 직업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47〉 본인의 고려사항: 보험설계사와 상의

(단위: %, 평균-점/5점 만점)

특성별		있음	없음	평균
전체		54.7	45.3	2.64
성별	남성	54.1	45.9	2.61
	여성	55.2	44.8	2.67
응답자 연령	20대	52.8	47.2	2.62
	30대	55.2	44.8	2.65
	40대	53.0	47.0	2.60
	50대	54.7	45.3	2.69
	60대 이상	57.4	42.6	2.65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57.0	43.0	2.68
	블루칼라	50.8	49.2	2.60
	자영업	53.4	46.6	2.60
	농/임/어업	50.0	50.0	2.50
	주부	57.0	43.0	2.71
	은퇴자	68.8	31.3	2.78
	무직/기타	51.0	49.0	2.47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자식, 지인들과 상의하겠다는 의견이 80.0%로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 여성(82.1%)이 남성(77.8%)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의하겠다는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직업별로는 은퇴자가 90.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남.

〈표 IV-48〉 본인의 고려사항: 자식이나 지인들과 상의

(단위: %, 평균-점/5점 만점)

특성별		있음	없음	평균
전체		80.0	20.0	3.18
성별	남성	77.8	22.2	3.13
	여성	82.1	17.9	3.23
응답자 연령	20대	77.4	22.6	3.13
	30대	77.4	22.6	3.11
	40대	80.2	19.8	3.18
	50대	79.7	20.3	3.18
	60대 이상	84.5	15.5	3.2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77.9	22.1	3.14
	블루칼라	82.6	17.4	3.22
	자영업	76.5	23.5	3.12
	농/임/어업	83.3	16.7	3.00
	주부	83.9	16.1	3.25
	은퇴자	90.6	9.4	3.38
	무직/기타	75.5	24.5	3.12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본인 스스로 장기간병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의견은 남성(80.5%)이 여성(76.1%)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응답이 66.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평균 점수 또한 전체 평균 3.06점에 0.21점 낮은 2.85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49〉 본인의 고려사항: 본인 스스로 정보 수집

(단위: %, 평균-점/5점 만점)

특성별		있음	없음	평균
전체		78.3	21.8	3.06
성별	남성	80.5	19.5	3.09
	여성	76.1	23.9	3.02
응답자 연령	20대	81.4	18.6	3.13
	30대	80.3	19.7	3.08
	40대	83.2	16.8	3.13
	50대	80.9	19.1	3.11
	60대 이상	66.3	33.7	2.85
	화이트칼라	80.5	19.5	3.11
응답자 직업	블루칼라	77.9	22.1	3.02
	자영업	81.8	18.2	3.14
	농/임/어업	50.0	50.0	2.50
	주부	76.0	24.0	3.01
	은퇴자	71.9	28.1	2.91
	무직/기타	61.2	38.8	2.73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보유주택의 매각에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을 나타냈으나, 직업별로는 은퇴자(75.0%)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50〉 본인의 고려사항: 보유 주택을 매각

(단위: %, 평균-점/5점 만점)

특성별		있음	없음	평균
전체		54.1	45.9	2.63
성별	남성	55.6	44.4	2.64
	여성	52.6	47.4	2.61
응답자 연령	20대	50.3	49.7	2.56
	30대	54.0	46.0	2.64
	40대	54.5	45.5	2.65
	50대	53.0	47.0	2.63
	60대 이상	57.8	42.2	2.63
	화이트칼라	57.7	42.3	2.68
응답자 직업	블루칼라	45.3	54.7	2.53
	자영업	55.7	44.3	2.64
	농/임/어업	16.7	83.3	1.83
	주부	58.3	41.7	2.67
	은퇴자	75.0	25.0	3.00
	무직/기타	38.8	61.2	2.41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장기요양시설 입주에 대한 고려는 66.5%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40대(72.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자영업(70.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영업을 제외한 타 직종에서는 고려하는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51〉 본인의 고려사항: 장기요양시설에 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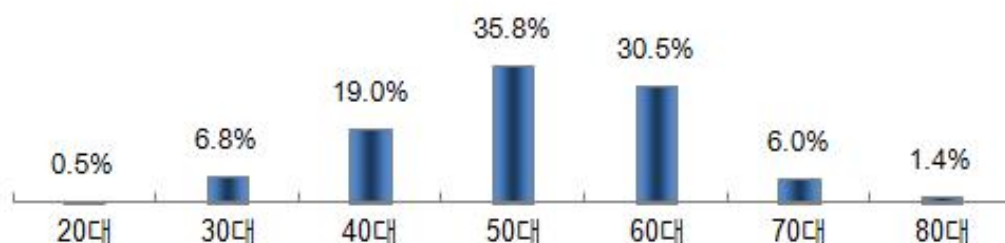
(단위: %, 평균-점/5점 만점)

특성별		있음	없음	평균
전체		66.5	33.5	2.83
성별	남성	66.1	33.9	2.83
	여성	66.9	33.1	2.82
응답자 연령	20대	61.3	38.7	2.77
	30대	66.9	33.1	2.83
	40대	72.8	27.2	2.93
	50대	67.8	32.2	2.80
	60대 이상	62.4	37.6	2.7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73.2	26.8	2.93
	블루칼라	68.6	31.4	2.83
	자영업	70.4	29.6	2.90
	농/임/어업	33.3	66.7	2.33
	주부	58.7	41.3	2.70
	은퇴자	59.4	40.6	2.88
	무직/기타	38.8	61.2	2.37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그림 IV-25〉 간병보험에 가입 적정 시기

(N=1,200)



- 간병보험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시기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30.5%), 40대(19.0%)순으로 나타남.

〈표 IV-52〉 간병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연령별, 성별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성	여성
20대	0.5	0.0	1.3	0.0	0.4	0.8	0.0	1.0
30대	6.8	11.6	9.2	6.3	5.1	3.1	7.5	6.2
40대	19.0	29.6	28.0	22.4	8.1	8.9	20.0	18.0
50대	35.8	32.2	39.3	44.4	49.6	13.6	33.9	37.5
60대	30.5	21.1	19.7	23.5	29.7	55.8	31.0	30.0
70대	6.0	4.5	2.5	1.9	6.4	14.3	6.6	5.4
80대	1.4	1.0	0.0	1.5	0.8	3.5	1.0	1.8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0.4%), 블루칼라(33.3%), 자영업(34.9%), 주부(38.8%)는 5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고, 반면 은퇴자는 60대(65.6%), 무직/기타는 40대(32.7%)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남.

〈표 IV-53〉 간병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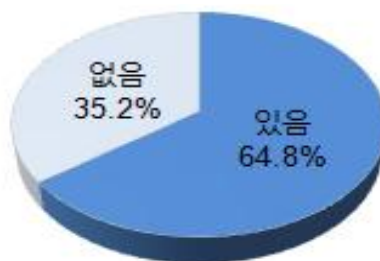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20대	0.4	0.0	0.0	0.0	2.1	0.0	0.0
30대	7.7	7.4	7.3	0.0	5.4	3.1	6.1
40대	25.4	21.3	13.8	0.0	15.3	12.5	32.7
50대	40.4	33.3	34.9	50.0	38.8	9.4	28.6
60대	21.7	31.4	33.4	50.0	31.8	65.6	22.4
70대	3.3	5.0	8.8	0.0	5.4	9.4	8.2
80대	1.1	1.6	1.8	0.0	1.2	0.0	2.0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그림 IV-26〉 간병보험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형태

(N=1,200)



- 간병보험의 가입을 고려하는 형태로는 ‘생명보험상품과 연계된 복합간병상품’(81.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금 상품과 연계된 복합간병상품’(77.8%), 단독 정액형(64.8%), 단독 실손형(58.1%)순으로 나타남.
- 각 간병보험의 형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상품과 연계된 복합간병상품’(3.1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금 상품과 연계된 복합간병상품’(3.11점), 단독 정액형(2.85점), 단독 실손형(2.70점)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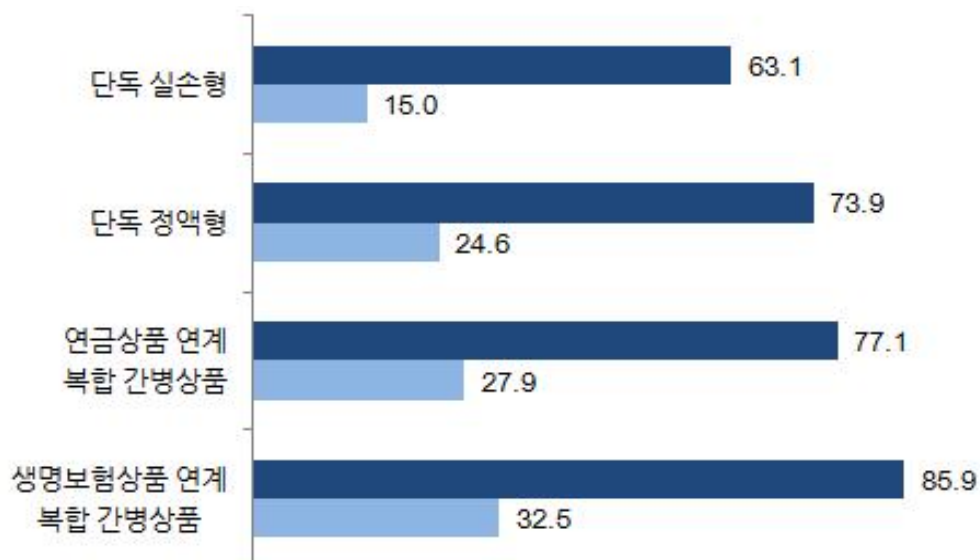
〈표 IV-54〉 간병보험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형태

(단위: %, 평균-점/4점 만점)

고려 사항	있음	없음	평균
단독 정액형	64.8	35.2	2.85
단독 실손형	58.1	41.9	2.70
생명보험상품과 연계된 복합간병상품	81.8	18.2	3.17
연금 상품과 연계된 복합간병상품	77.8	22.2	3.11

〈그림 IV-27〉 간병보험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형태의 우선순위

(N=1,200, ■: 1순위, ■: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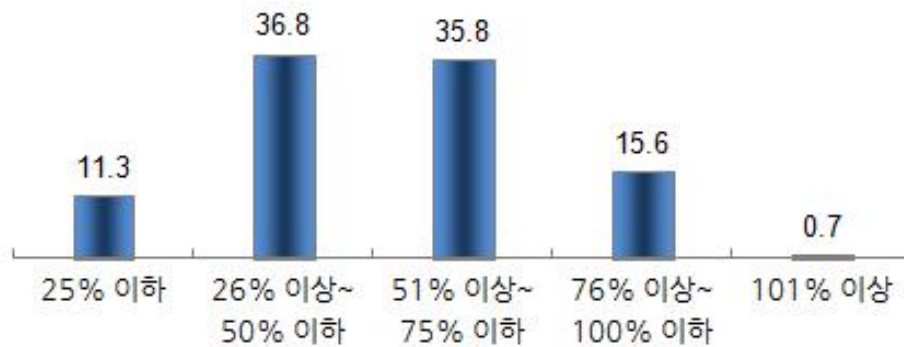
- 간병보험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형태의 우선순위로는 ‘생명보험상품과 연계된 복합 간병상품’이 32.5%로 가장 높고, ‘연금 상품과 연계된 복합간병상품’(27.9%), 단독 정액형(24.6%), 단독 실손형(15.0%)순으로 나타남(1순위 기준).
- 1+2+3순위 기준으로도 ‘생명보험상품과 연계된 복합 간병상품’이 85.9%로 가장 높고, ‘연금 상품과 연계된 복합간병상품’(77.1%), 단독 정액형(73.9%), 단독 실손형(63.1%)순으로 나타남.

4. 보험소비자의 은퇴자산 선택행위에 관한 분석

- 노후소득의 현재 소득 대비 적정비율은 평균 55.68%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직업에 의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8〉 노후소득의 현재 소득 대비 적정 비율

(N=1,200)



〈표 IV-55〉 노후소득의 현재 소득 대비 적정 비율

(단위: %, 평균-만 원)

특성별		25% 이하	26% ~50%	51% ~75%	76% ~100%	101% 이상	평균
전체		11.3	36.8	35.8	15.6	0.7	55.68
성별	남성	10.3	36.4	36.6	16.3	0.3	55.83
	여성	12.1	37.0	34.9	14.9	1.0	55.54
응답자 연령	20대	10.6	31.2	36.7	20.6	1.0	58.77
	30대	9.6	35.1	42.7	10.9	1.7	56.53
	40대	10.1	41.0	40.3	8.6	0.0	52.62
	50대	11.0	45.8	29.2	14.0	0.0	53.24
	60대 이상	14.7	29.8	29.8	24.8	0.8	57.91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0.3	38.6	38.2	12.9	0.0	54.15
	블루칼라	10.5	31.4	39.5	17.8	0.8	58.06
	자영업	9.1	37.8	34.0	17.9	1.2	57.57
	농/임/어업	50.0	0.0	33.3	16.7	0.0	40.83
	주부	13.2	41.3	33.1	12.4	0.0	52.38
	은퇴자	18.8	21.9	34.4	25.0	0.0	56.56
	무직/기타	16.3	38.8	28.6	12.2	4.1	5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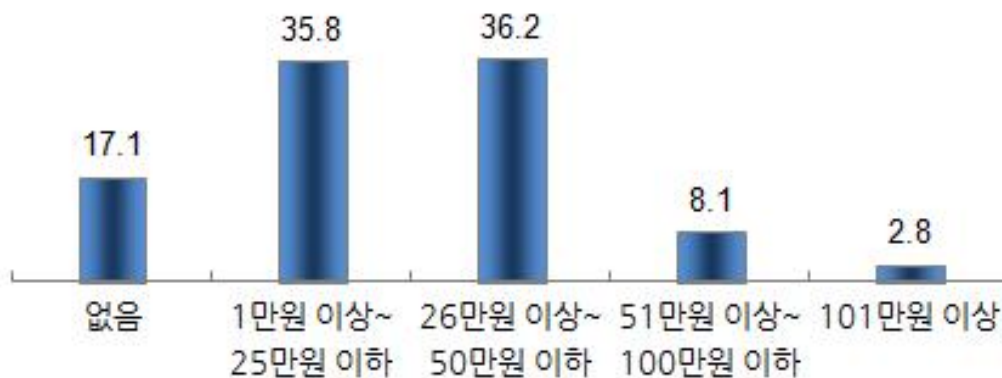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매달 저축액으로 평균 31.27만 원이 나타났으며, 구간별로는 26만 원~50만 원 이하(36.2%), 25만 원 이하(35.8%)에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저축액으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39.75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대는 14.98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IV-29〉 현재 저축액

(N=1,200)



〈표 IV-56〉 현재 저축액

(단위: %, 평균-만 원)

특성별		없음	25만 원 이하	26만 원~ 50만 원	51만 원~ 100만 원	101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7.1	35.8	36.2	8.1	2.8	31.27
성별	남성	17.8	34.7	36.4	8.3	2.7	30.13
	여성	16.4	36.9	35.9	7.9	3.0	32.38
응답자 연령	20대	39.7	40.7	16.1	3.0	0.5	14.98
	30대	14.6	38.5	36.4	9.2	1.3	28.89
	40대	9.3	32.8	43.3	9.3	5.2	39.75
	50대	8.9	29.7	42.8	14.8	3.8	38.85
	60대 이상	17.4	38.4	38.0	3.5	2.7	30.31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2.5	33.8	41.9	8.5	3.3	32.98
	블루칼라	22.5	39.9	29.8	5.4	2.3	27.72
	자영업	12.6	32.0	39.0	11.7	4.7	38.60
	농/임/어업	16.7	66.7	16.7	0.0	0.0	16.67
	주부	12.8	39.3	39.3	7.9	0.8	28.94
	은퇴자	18.8	43.8	31.3	3.1	3.1	24.84
	무직/기타	65.3	26.5	8.2	0.0	0.0	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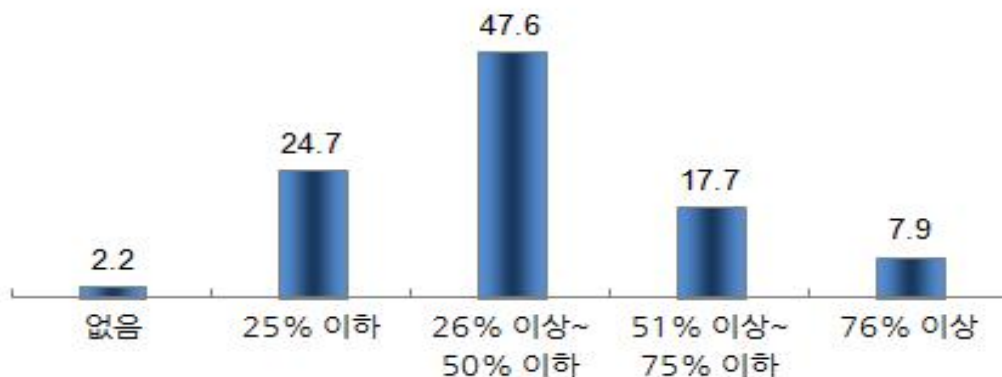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현재 노후소득의 마련비율은 평균 41.18%로 나타났으며, 구간별로는 26%~50% 이하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이하(24.7%) 순으로 나타남.

○ 40대는 43.25만 원으로 가장 높고, 반면 60대 이상은 38.72만 원으로 가장 낮음.

〈그림 IV-30〉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노후소득의 마련비율

(N=1,200)



〈표 IV-57〉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노후소득의 마련비율

(단위: %, 평균-만 원)

특성별		없음	25% 이하	26% ~50%	51% ~75%	76% 이상	평균
전체		2.2	24.7	47.6	17.7	7.9	41.18
성별	남성	1.9	25.8	46.3	18.8	7.3	41.05
	여성	2.5	23.6	48.9	16.6	8.5	41.31
응답자 연령	20대	5.5	23.6	46.2	18.6	6.0	39.32
	30대	1.3	25.1	48.5	18.8	6.3	41.74
	40대	0.7	20.5	48.9	21.3	8.6	43.25
	50대	0.4	25.0	50.0	12.3	12.3	42.54
	60대 이상	3.5	29.1	44.2	17.1	6.2	38.72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1	19.1	50.4	21.0	8.5	44.03
	블루칼라	3.1	22.5	55.8	13.6	5.0	39.71
	자영업	0.9	22.3	44.0	20.8	12.0	45.03
	농/임/어업	16.7	50.0	33.3	0.0	0.0	19.17
	주부	1.7	28.9	47.5	15.3	6.6	38.41
	은퇴자	0.0	46.9	31.3	18.8	3.1	33.44
	무직/기타	14.3	44.9	26.5	12.2	2.0	27.86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와 금액에 대해서는 자가(68.0%), 전세(26.8%), 보증금이 있는 월세(5.1%), 보증금이 없는 월세(0.2%)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거주형태와 금액

(N=1,200)



〈표 IV-5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거주형태와 금액
(단위: %, 평균-만 원)

특성별		자가	전세	보증금 유 월세	보증금 무 월세
전체		68.0	26.8	5.1	0.2
성별	남성	68.3	25.6	5.9	0.2
	여성	67.7	27.9	4.3	0.2
응답자 연령	20대	53.8	36.2	10.1	0.0
	30대	38.1	54.4	7.5	0.0
	40대	72.4	25.0	2.2	0.4
	50대	86.9	9.3	3.4	0.4
	60대 이상	84.9	11.6	3.5	0.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62.5	30.9	6.6	0.0
	블루칼라	60.9	28.7	10.1	0.4
	자영업	75.4	21.7	2.6	0.3
	농/임/어업	100.0	0.0	0.0	0.0
	주부	67.8	30.2	2.1	0.0
	은퇴자	84.4	12.5	3.1	0.0
	무직/기타	71.4	24.5	4.1	0.0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현재 전세,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사람은 1.0%로 나타남.

〈표 IV-59〉 본인 소유의 주택 여부
(단위: %)

특성별		있다	없다
전체		1.0	99.0
성별	남성	0.5	99.5
	여성	1.5	98.5
응답자 연령	20대	0.0	100.0
	30대	0.7	99.3
	40대	1.4	98.6
	50대	0.0	100.0
	60대 이상	5.1	94.9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0	99.0
	블루칼라	0.0	100.0
	자영업	1.2	98.8
	주부	2.6	97.4
	은퇴자	0.0	100.0
	무직/기타	0.0	100.0

주: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9%로 나타났고, 50대(4.4%), 60대 이상(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0〉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 주택 보유 여부

(단위: %)

특성별		있다	없다
전체		2.9	97.1
성별	남성	2.5	97.5
	여성	3.4	96.6
응답자 연령	20대	0.9	99.1
	30대	2.2	97.8
	40대	1.0	99.0
	50대	4.4	95.6
	60대 이상	4.6	95.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9	97.1
	블루칼라	1.9	98.1
	자영업	1.9	98.1
	주부	0.0	100.0
	은퇴자	5.5	94.5
	무직/기타	3.7	96.3

주: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은퇴 후,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으로는 예/적금 및 저축(68.8%), 부동산(16.2%), 보험(12.4%)순으로 나타남.

〈표 IV-61〉 은퇴 후,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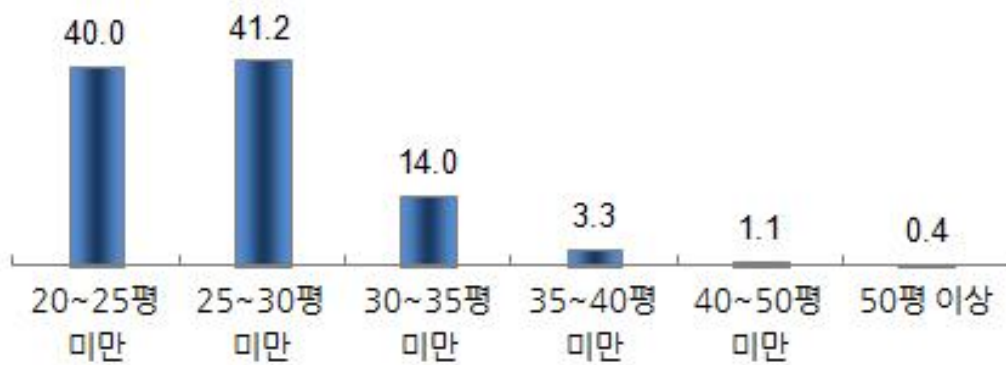
(단위: %)

자산	비율
예/적금 및 저축	68.8
부동산	16.2
보험	12.4
주식투자	1.3
기타	0.1
없음	1.3

-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25평~30평 미만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평~25평 미만(40.0%), 30평~35평 미만(14.0%)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형 면적의 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2〉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의 규모

(N=1,200)



〈표 IV-62〉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의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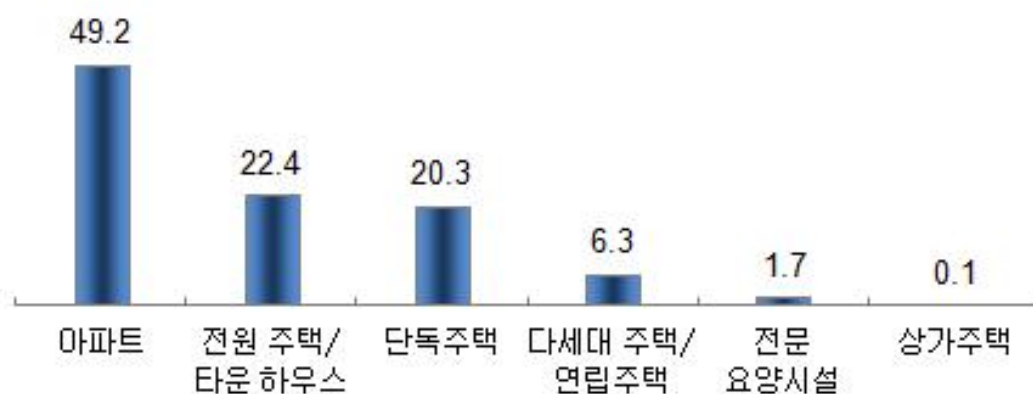
특성별		20평~ 25평 미만	25평~ 30평 미만	30평~ 35평 미만	35평~ 40평 미만	40평~ 50평 미만	50평 이상
전체		40.0	41.2	14.0	3.3	1.1	0.4
성별	남성	36.6	42.7	15.4	3.4	1.4	0.5
	여성	43.3	39.7	12.6	3.3	0.8	0.3
응답자 연령	20대	30.2	42.7	21.1	3.5	1.5	1.0
	30대	32.2	47.3	14.2	5.0	0.8	0.4
	40대	34.0	45.5	16.4	2.6	1.1	0.4
	50대	42.8	41.5	10.2	4.7	0.8	0.0
	60대 이상	58.5	29.5	9.3	1.2	1.2	0.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3.5	42.3	18.8	4.0	1.1	0.4
	블루칼라	45.7	37.2	12.8	2.7	1.2	0.4
	자영업	35.2	46.0	13.8	3.2	1.5	0.3
	농/임/어업	66.7	33.3	0.0	0.0	0.0	0.0
	주부	46.3	38.8	10.7	2.9	0.8	0.4
	은퇴자	53.1	31.3	9.4	6.3	0.0	0.0
	무직/기타	36.7	40.8	16.3	4.1	0.0	2.0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의 거주형태에 대해서는 아파트(49.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원주택(22.4%), 단독주택(20.3%), 다세대주택/연립주택(6.3%), 전문요양시설(1.7%), 상가주택(0.1%)순으로 나타남.

〈그림 IV-33〉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의 거주형태

(N=1,200)



〈표 IV-63〉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의 거주형태

(단위: %)

특성별		아파트	전원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요양시설	상가주택
전체		49.2	22.4	20.3	6.3	1.7	0.1
성별	남성	44.2	24.9	21.4	7.5	1.9	0.2
	여성	53.9	20.0	19.3	5.2	1.5	0.0
응답자 연령	20대	64.3	19.6	9.5	5.5	1.0	0.0
	30대	59.4	20.5	13.8	5.0	1.3	0.0
	40대	55.6	21.6	14.9	6.3	1.5	0.0
	50대	34.3	30.5	26.7	5.9	2.5	0.0
	60대 이상	34.9	19.8	34.5	8.5	1.9	0.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55.9	25.7	12.1	4.0	2.2	0.0
	블루칼라	50.8	19.0	21.7	7.4	1.2	0.0
	자영업	43.1	25.2	23.2	7.0	1.5	0.0
	농/임/어업	16.7	0.0	83.3	0.0	0.0	0.0
	주부	50.4	21.1	20.7	6.6	1.2	0.0
	은퇴자	28.1	18.8	37.5	6.3	6.3	3.1
	무직/기타	57.1	14.3	18.4	8.2	2.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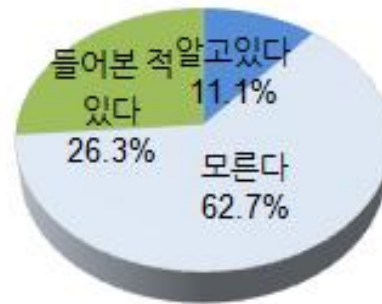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인지 여부

- 2014년부터 적용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62.7%)이 높았으며,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비중(11.1%)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IV-34〉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N=1,200)



〈표 IV-64〉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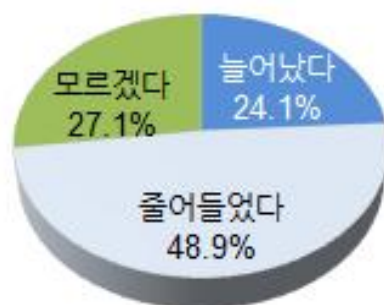
특성별		알고 있다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전체		11.1	62.7	26.3
성별	남성	12.0	58.1	29.8
	여성	10.2	67.0	22.8
응답자 연령	20대	8.0	64.8	27.1
	30대	17.6	54.0	28.5
	40대	14.9	57.5	27.6
	50대	9.7	64.0	26.3
	60대 이상	4.7	73.3	22.1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4	53.7	30.9
	블루칼라	9.7	65.9	24.4
	자영업	11.1	62.2	26.7
	농/임/어업	0.0	100.0	0.0
	주부	9.1	67.8	23.1
	은퇴자	9.4	62.5	28.1
	무직/기타	6.1	69.4	24.5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가입 시 받을 세제혜택에 대해서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48.9%로 나타난 가운데, 늘어났다는 의견은 24.1%, 모르겠다는 의견은 27.1% 나 타남.

〈그림 IV-35〉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 시 받을 세제혜택에 대한 견해

(N=1,200)



〈표 IV-65〉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 시 받을 세제혜택에 대한 견해

(단위: %)

특성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모르겠다
전체		24.1	48.9	27.1
성별	남성	29.6	52.1	18.3
	여성	17.7	45.2	37.1
응답자 연령	20대	6.3	43.8	50.0
	30대	26.2	52.4	21.4
	40대	30.0	47.5	22.5
	50대	21.7	52.2	26.1
	60대 이상	25.0	41.7	33.3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1.0	50.0	19.0
	블루칼라	16.0	48.0	36.0
	자영업	31.6	44.7	23.7
	주부	9.1	54.5	36.4
	은퇴자	33.3	33.3	33.3
	무직/기타	0.0	66.7	33.3

■ 개인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57.3%로 나타난 가운데, 개인연금납입액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29.2%)는 의견이 증액(6.9%), 감액(6.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36〉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증액/감액 고려 여부

(N=1,200)



〈표 IV-66〉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증액/감액 고려 여부

(단위: %)

특성별		변화 없다	증액하겠다	감액하겠다	비 가입
전체		29.2	6.9	6.7	57.3
성별	남성	27.8	6.8	7.3	58.1
	여성	30.5	7.0	6.1	56.4
응답자 연령	20대	21.6	8.5	5.5	64.3
	30대	31.8	9.6	8.4	50.2
	40대	35.1	7.8	9.3	47.8
	50대	35.6	5.1	5.5	53.8
	60대 이상	20.5	3.9	4.3	71.3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2.0	9.9	9.6	48.5
	블루칼라	24.8	8.1	5.0	62.0
	자영업	32.6	3.8	7.0	56.6
	주부	16.7	0.0	0.0	83.3
	은퇴자	29.3	7.0	5.4	58.3
	무직/기타	21.9	9.4	3.1	65.6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6. 은퇴 이후 소득원에 대한 정보

■ 퇴직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 퇴직연금의 수령액을 모른다고 대답한 비중이 10.3%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중(5.3%)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 됨.
- 퇴직연금 수령액을 알고 있는 계층은 중소도시(5.9%), 남성(6.9%), 30대(7.1%), 화이트칼라(12.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37〉 퇴직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N=1,200)



주: 취업자만이 아닌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 됨.

〈표 IV-67〉 퇴직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비 가입
전체		5.3	10.3	84.3
성별	남성	6.9	9.8	83.2
	여성	3.8	10.8	85.4
응답자 연령	20대	4.0	13.1	82.9
	30대	7.1	16.3	76.6
	40대	6.3	13.4	80.2
	50대	5.5	6.4	88.1
	60대 이상	3.5	3.1	93.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2.9	23.2	64.0
	블루칼라	5.4	8.5	86.0
	자영업	2.6	2.3	95.0
	농/임/어업	0.0	16.7	83.3
	주부	1.2	11.2	87.6
	은퇴자	9.4	0.0	90.6
	무직/기타	0.0	6.1	93.9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개인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 개인연금의 경우 수령액을 알지 못한다고 답한 비중이 19.1%로 알고 있다고 답한 비중(16.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개인연금 수령액을 알고 있는 계층은 중소도시(19.3%), 남성(16.3%), 40대(23.1%), 화이트칼라(19.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38〉 개인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N=1,200)



〈표 IV-68〉 개인연금 수령액 인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비 가입
전체		16.3	19.1	64.7
성별	남성	16.3	16.9	66.8
	여성	16.2	21.1	62.6
응답자 연령	20대	7.5	22.6	69.8
	30대	19.2	20.1	60.7
	40대	23.1	20.1	56.7
	50대	21.2	20.3	58.5
	60대 이상	8.5	13.2	78.3
	화이트칼라	19.5	24.3	56.3
응답자 직업	블루칼라	14.0	16.3	69.8
	자영업	19.1	16.4	64.5
	농/임/어업	0.0	16.7	83.3
	주부	13.2	21.9	64.9
	은퇴자	12.5	6.3	81.3
	무직/기타	10.2	18.4	71.4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7.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탁의향

■ 현재 보유중인 자산 구성의 은퇴 대비 적절성

- 은퇴 후를 대비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79.7%로 나타났고, 반면 적절하거나 충분하다는 의견은 2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9〉 현재 보유중인 자산 구성의 은퇴 대비 적절성

(N=1,200)



〈표 IV-69〉 현재 보유중인 자산 구성의 은퇴 대비 적절성

(단위: %)

특성별		부족	적절	충분	평균
전체		79.7	18.0	2.3	2.02
성별	남성	79.8	18.6	1.5	2.02
	여성	79.5	17.4	3.1	2.03
응답자 연령	20대	87.4	11.1	1.5	1.78
	30대	84.5	14.2	1.3	1.98
	40대	78.0	19.0	3.0	2.10
	50대	74.2	23.3	2.5	2.13
	60대 이상	76.0	20.9	3.1	2.0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75.4	21.3	3.3	2.13
	블루칼라	85.7	12.8	1.6	1.89
	자영업	77.4	20.2	2.3	2.09
	농/임/어업	83.3	16.7	0.0	1.83
	주부	81.0	16.5	2.5	2.05
	은퇴자	71.9	25.0	3.1	2.13
	무직/기타	85.7	14.3	0.0	1.59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의향 여부

-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의향은 24.6%(있다 5.5% + 조금 19.1%)로 4명 중 1명 가량이 자산관리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은 30대에서 가장 높고(29%), 60대가 가장 낮은(14.7%) 것으로 조사 됨.
- 은퇴자(12.5%)의 경우 “자산관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40〉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의향 여부

(N=1,200)



〈표 IV-70〉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의향 여부

(단위: %)

특성별		있다	조금 있다	없다
전체		5.5	19.1	75.4
성별	남성	5.6	18.1	76.3
	여성	5.4	20.0	74.6
응답자 연령	20대	4.0	22.6	73.4
	30대	7.1	21.8	71.1
	40대	5.2	21.3	73.5
	50대	6.4	20.8	72.9
	60대 이상	4.7	10.1	85.3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5.1	24.3	70.6
	블루칼라	3.9	17.4	78.7
	자영업	5.0	19.9	75.1
	농/임/어업	0.0	0.0	100.0
	주부	8.3	17.4	74.4
	은퇴자	12.5	12.5	75.0
	무직/기타	2.0	8.2	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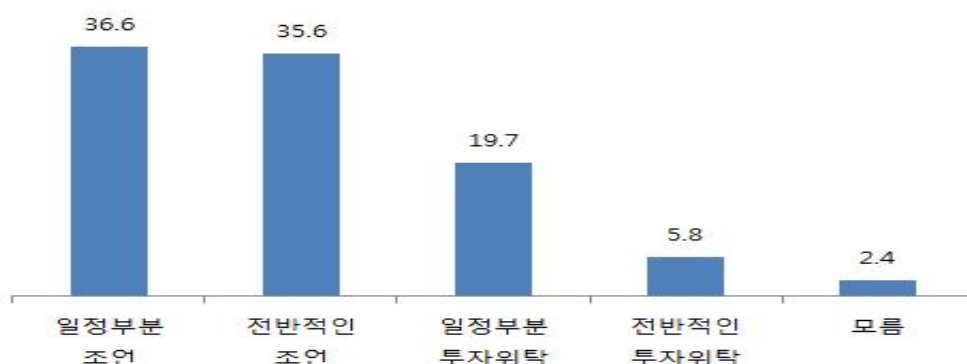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형태

-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한 자산관리는 ‘자산의 일정부분 투자에 대한 조언’(36.6%), ‘투자 자산관리의 전반적 조언’(35.6%)이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일정부분 투자를 위탁’(19.7%)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20대는 ‘투자, 자산관리의 전반적 조언’(45.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편 30대(46.4%)와 50대(43.8%)는 ‘일정부분 투자에 대한 조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40대는 ‘일정부분 투자에 대한 조언’과 ‘투자, 자산관리의 전반적 조언’이 33.8%, 60대 이상에서는 ‘일정부분 투자를 위탁’과 ‘투자, 자산관리의 전반적 조언’이 34.2%로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IV-41〉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형태

(N=295)



〈표 IV-71〉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형태: 연령별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일정부분 투자에 대한 조언	36.6	28.3	46.4	33.8	43.8	23.7
투자, 자산관리의 전반적 조언	35.6	45.3	33.3	33.8	32.8	34.2
일정부분 투자를 위탁	19.7	15.1	14.5	25.4	14.1	34.2
투자, 자산관리의 전반적 위탁	5.8	7.5	4.3	4.2	7.8	5.3
모름	2.4	3.8	1.4	2.8	1.6	2.6

- 여성이 남성보다 조언에 의한 형태(일정부분: 38.7%, 투자, 자산관리의 전반적 부분: 36.8%)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 남성(23.6%)은 일정부 분 투자를 위탁하는 의견이 여성(16.1%)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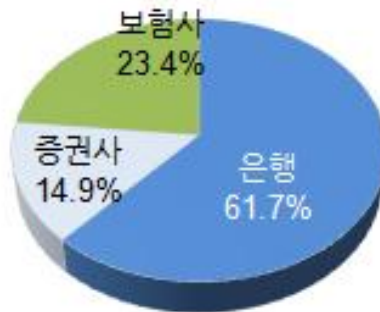
〈표 IV-72〉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형태: 성별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일정부분 투자에 대한 조언	36.6	34.3	38.7
일정부분 투자를 위탁	19.7	23.6	16.1
투자, 자산관리의 전반적 조언	35.6	34.3	36.8
투자, 자산관리의 전반적 위탁	5.8	5.7	5.8
모름	2.4	2.1	2.6

〈그림 IV-42〉 금융기관, 전문가에 도움을 받을 금융기관의 형태

(N=295)



■ 금융기관, 전문가에 도움을 받을 금융기관의 형태

- 금융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이용할 금융기관의 형태는 은행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험사(23.4%), 증권사(14.9%)순으로 나타남.
- 성별과 직업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은행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73〉 금융기관, 전문가에 도움을 받을 금융기관의 형태

(단위: %)

특성별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전체		61.7	14.9	23.4
성별	남성	60.0	20.7	19.3
	여성	63.2	9.7	27.1
응답자 연령	20대	66.0	17.0	17.0
	30대	52.2	15.9	31.9
	40대	59.2	18.3	22.5
	50대	62.5	14.1	23.4
	60대 이상	76.3	5.3	18.4
	화이트칼라	46.3	26.3	27.5
응답자 직업	블루칼라	63.6	9.1	27.3
	자영업	62.4	10.6	27.1
	주부	72.6	12.9	14.5
	은퇴자	87.5	12.5	0.0
	무직/기타	100.0	0.0	0.0

주: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금융기관, 전문가에 도움을 받을 금융기관에 대해 선택한 이유

- 신뢰성이라는 의견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안정적(36.3%), 수익률(20.0%)순으로 나타남.
- 블루칼라(56.4%), 자영업(49.4%)은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고, 한편 화이트칼라(38.8%), 주부(51.6%)는 안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높음.

〈그림 IV-43〉 금융기관, 전문가에 도움을 받을 금융기관에 대해 선택한 이유

(N=295)



〈표 IV-74〉 금융기관, 전문가에 도움을 받을 금융기관에 대해 선택한 이유

(단위: %)

특성별		신뢰성	수익률	안정적	기타
전체		43.4	20.0	36.3	0.3
성별	남성	38.6	24.3	36.4	0.7
	여성	47.7	16.1	36.1	0.0
응답자 연령	20대	35.8	22.6	41.5	0.0
	30대	43.5	23.2	33.3	0.0
	40대	45.1	18.3	35.2	1.4
	50대	45.3	20.3	34.4	0.0
	60대 이상	47.4	13.2	39.5	0.0
	화이트칼라	35.0	25.0	38.8	1.3
응답자 직업	블루칼라	56.4	16.4	27.3	0.0
	자영업	49.4	23.5	27.1	0.0
	주부	33.9	14.5	51.6	0.0
	은퇴자	37.5	12.5	50.0	0.0
	무직/기타	60.0	0.0	40.0	0.0

주: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직접 자산관리를 할 계획인 이유: 연령별

- ‘수수료가 높을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음’(22.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의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44〉 직접 자산관리를 할 계획인 이유

(N=905)



〈표 IV-75〉 직접 자산관리를 할 계획인 이유: 연령별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내가 더 잘할 수 있음	22.7	26.0	24.7	26.4	20.3	17.3
자녀/지인의 도움	13.1	6.8	7.1	8.6	13.4	25.9
위탁운용기관의 불신	10.2	12.3	12.4	12.7	7.6	6.8
수수료	34.1	34.9	39.4	33.5	34.3	30.0
직접 자산관리 할 계획 없음	18.6	19.9	15.9	17.8	21.5	18.2
기타	1.3	0.0	0.6	1.0	2.9	1.8

-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의견은 남성(25.3%)이 여성(20.0%)보다 높게 나타났고, 한편 ‘자녀/지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견은 여성(15.6%)이 남성(10.7%)보다 높게 나타남.

〈표 IV-76〉 금융기관, 전문가에 의해 자산관리를 받을 형태: 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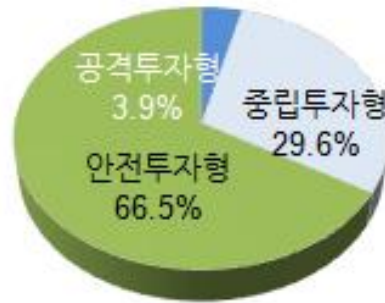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내가 더 잘할 수 있음	22.7	25.3	20.0
자녀/지인의 도움	13.1	10.7	15.6
위탁운용기관의 불신	10.2	11.3	9.0
수수료	34.1	34.0	34.3
직접 자산관리 할 계획 없음	18.6	17.8	19.3
기타	1.3	0.8	1.8

■ 본인의 투자성향

- 투자성향은 안전투자형(66.5%)이 가장 높고, 중립투자형(29.6%), 공격투자형(3.9%)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안전투자형은 여성(72.3%)이 남성(60.5%)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면 공격투자형은 남성(6.6%)이 여성(1.3%)보다 높음.

〈그림 IV-45〉 본인의 투자성향

(N=1,200)



〈표 IV-77〉 금융기관, 전문가에 도움을 받을 금융기관의 형태

(단위: %)

특성별		공격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전투자형
전체		3.9	29.6	66.5
성별	남성	6.6	32.9	60.5
	여성	1.3	26.4	72.3
응답자 연령	20대	5.5	39.2	55.3
	30대	5.9	38.1	56.1
	40대	3.7	35.4	60.8
	50대	3.4	24.6	72.0
	60대 이상	1.6	12.8	85.7
	화이트칼라	3.3	42.6	54.0
응답자 직업	블루칼라	5.4	25.6	69.0
	자영업	5.0	27.9	67.2
	농/임/어업	0.0	0.0	100.0
	주부	1.2	23.6	75.2
	은퇴자	6.3	25.0	68.8
	무직/기타	4.1	26.5	69.4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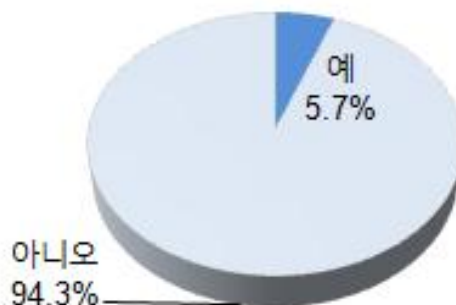
8. 해약/효력 상실 해지 관련 질문6)

■ 3년 이내 보험 상품 해약/효력 상실 해지 경험 여부

-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7%로 나타난 가운데, 성별, 연령, 그리고 직업에 의한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46〉 3년 이내 보험 상품 해약/효력 상실 해지 경험 여부

(N=1,200)



〈표 IV-78〉 3년 이내 보험 상품 해약/효력 상실 해지 경험 여부

(N=1,200, 단위: %)

특성별		예	아니오
전체		5.7	94.3
성별	남성	5.3	94.7
	여성	6.1	93.9
응답자 연령	20대	2.5	97.5
	30대	7.9	92.1
	40대	6.7	93.3
	50대	8.1	91.9
	60대 이상	2.7	97.3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3년 이내 보험 상품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상품의 종류와 규모

-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상품에 대해서 생명보험은 75.0%, 손해보험 17.6%, 생

6) 해약/효력 상실 해지 관련 문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해지한 비율은 7.4%로 나타남.

○ 평균 건수로는 생명보험이 1.09건, 손해보험은 1.00건으로 나타남.

〈표 IV-79〉 3년 이내 보험 상품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상품의 종류와 규모

(N=68, 단위: %)

특성별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평균 건	손해보험 평균 건
전체		75.0	17.6	7.4	1.09	1.00
성별	남성	71.0	16.1	12.9	1.12	1.00
	여성	78.4	18.9	2.7	1.07	1.00
응답자 연령	20대	100.0	0.0	0.0	1.00	1.00
	30대	78.9	15.8	5.3	1.06	1.00
	40대	61.1	27.8	11.1	1.15	1.00
	50대	78.9	10.5	10.5	1.06	1.00
	60대 이상	71.4	28.6	0.0	1.20	1.00
	화이트칼라	54.5	36.4	9.1	1.00	1.00
응답자 직업	블루칼라	92.9	7.1	0.0	1.08	1.00
	자영업	75.0	10.7	14.3	1.08	1.00
	주부	71.4	28.6	0.0	1.20	1.00
	은퇴자	100.0	0.0	0.0	1.00	1.00

주: 응답자의 연령과 직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생명보험상품은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41.1%), 종신보험(26.8%), 저축성보험(16.1%) 순으로 나타남.

〈표 IV-80〉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보험 상품 비율: 생명보험

(N=56, 단위: %, 복수응답 기준)

보험 상품	비율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41.1
재해중점보장보험	7.1
종신보험	26.8
저축성보험	16.1
연금보험	3.6
교육보험	1.8
치명적 질병보험(CI)	10.7
변액연금보험	1.8

-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생명보험의 계약유지기간은 교육보험, 재해중점보장보험, 종신보험, 질병치료 중점보장보험 순으로 나타남.

〈표 IV-81〉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보험 상품의 계약 유지기간

(N=56, 단위: 개월, 복수응답 기준)

보험 상품	사례 수	기간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23	22.52
재해중점보장보험	4	28.75
종신보험	15	24.20
저축성보험	9	19.11
연금보험	2	31.00
교육보험	1	156.00
치명적 질병보험(CI)	6	18.67
변액연금보험	1	3.00

주: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을 해지한 사유로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움’(47.8%)이 가장 높고, ‘보장내용이 실제와 다름’(43.5%), ‘보험료 대비 수령하는 보험금이 적음’(34.8%) 순으로 나타남.

〈표 IV-82〉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사유: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N=23, 단위: %, 복수응답 기준)

보험 상품	비율
보험료 납입이 어려움	47.8
보장내용이 실제와 다름	43.5
보험료 대비 수령하는 보험금이 적음	34.8
목돈이 필요	30.4
기간이 길다	13.0
보상이 중복	8.7
인플레이션	8.7
의리상 어쩔 수 없이 가입	4.3
보장하는 사유가 사라짐	4.3

주: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종신보험을 해지한 사유로는 ‘기간이 길다’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움’이 각각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83〉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사유: 종신보험

(N=15, 단위: %, 복수응답 기준)

보험 상품	비율
기간이 길다	46.7
보험료 납입이 어려움	46.7
목돈이 필요	40.0
보상이 중복	20.0
보험료 대비 수령하는 보험금이 적음	13.3
보장내용이 실제와 달라서	13.3
인플레이션	13.3
의리상 어쩔 수 없이 가입	6.7

주: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손해보험상품은 장기손해건강보험(58.8%)이 가장 높고, 장기손해 종합보험(17.6%), 그 외 나머지 보험 상품들은 5.9%로 나타남.

〈표 IV-84〉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보험 상품 비율: 손해보험

(N=17, 단위: %, 복수응답 기준)

보험 상품	비율
장기손해상해보험	5.9
장기손해건강보험	58.8
장기손해종합보험	17.6
장기손해저축성보험	5.9
장기손해어린이보험	5.9
통합보험	5.9

주: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손해보험상품의 계약유지기간은 장기손해건강보험이 48.70개월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표 IV-85〉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보험 상품의 계약 유지기간

(N=17, 단위: 개월, 복수응답 기준)

보험 상품	사례 수	기간
장기손해상해보험	1	36.00
장기손해건강보험	10	48.70
장기손해종합보험	3	13.33
장기손해저축성보험	1	27.00
장기손해어린이보험	1	26.00
통합보험	1	30.00

주: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장기손해건강보험을 해지한 사유는 ‘보상이 중복’과 ‘보장내용이 실제와 달라서’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86〉 해약/효력 상실 해지한 사유: 장기손해건강보험

(N=10, 단위: %, 복수응답 기준)

보험 상품	비율
보상이 중복	50.0
보장내용이 실제와 달라서	50.0
더 이상 불필요함	20.0
보험료 대비 수령하는 보험금이 적음	20.0
기간이 길다	20.0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움	10.0
목돈이 필요	10.0
의리상 어쩔 수 없이 가입	10.0

주: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9. 개인정보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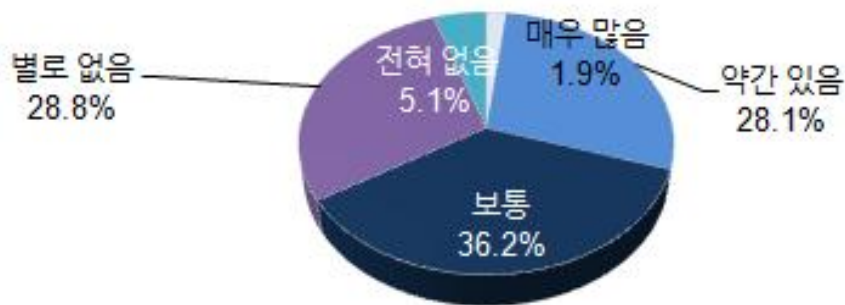
■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상품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별로 없음 + 전혀 없음)은 33.9%를 차지함.

○ 상품구입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매우 많음 + 약간 있음)은 30.0%로 나타남.

〈그림 IV-47〉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

(N=1,200)



■ 계층별로는 40대를 초과한 응답자 보다 40대 이하의 응답자들이, 그리고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들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더욱 높게 나타남.

〈표 IV-87〉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품구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특성별		있음	보통	없음
전체		30.0	36.2	33.8
성별	남성	29.0	37.6	33.4
	여성	31.0	34.8	34.3
응답자 연령	20대	32.2	37.2	30.7
	30대	32.2	35.6	32.2
	40대	32.1	37.3	30.6
	50대	27.5	35.6	36.9
	60대 이상	26.4	35.3	38.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2.0	33.5	34.6
	블루칼라	27.1	40.3	32.6
	자영업	31.7	35.2	33.1
	농/임/어업	50.0	33.3	16.7
	주부	31.4	32.6	36.0
	은퇴자	21.9	46.9	31.3
	무직/기타	18.4	46.9	34.7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보험 상품 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 수준이 ‘낮다(낮음 + 매우 낮음)’고 생각하는 의견이 44.1%로 나타남.

○ 반면, ‘높다(높음 + 매우 높음)’는 의견은 16.1%로 나타났고, ‘보통’이라는 의견이 39.8%를 차지하였음.

○ 성별, 연령대, 직업에 의한 수준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48〉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 수준

(N=1,200)



〈표 IV-88〉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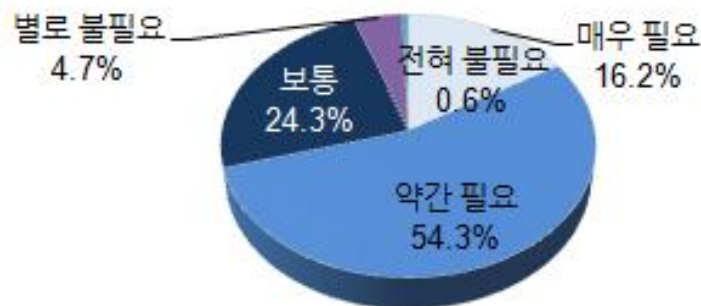
특성별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6.1	39.8	44.1
성별	남성	16.6	39.2	44.2
	여성	15.6	40.5	43.9
응답자 연령	20대	12.6	40.2	47.2
	30대	17.2	43.1	39.7
	40대	19.0	39.6	41.4
	50대	19.5	39.0	41.5
	60대 이상	11.6	37.6	50.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8.4	41.5	40.1
	블루칼라	14.0	41.5	44.6
	자영업	17.9	35.8	46.3
	농/임/어업	16.7	33.3	50.0
	주부	14.9	43.4	41.7
	은퇴자	12.5	34.4	53.1
	무직/기타	10.2	36.7	53.1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약간 필요 + 매우 필요)’는 의견이 70.5%, 반면, ‘불필요하다(별로 불필요 + 전혀 불필요)’고 생각하는 사람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49〉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강화 필요성

(N=1,200)



- 60대 이상(62.0%), 은퇴자(59.4%), 무직/기타(57.1%)는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낮다고 응답함.

〈표 IV-89〉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강화 필요성

(단위: %)

특성별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70.5	24.3	5.3
성별	남성	71.7	22.9	5.4
	여성	69.3	25.6	5.1
응답자 연령	20대	74.4	21.1	4.5
	30대	71.5	24.3	4.2
	40대	71.6	23.5	4.9
	50대	74.2	20.8	5.1
	60대 이상	62.0	30.6	7.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73.9	23.9	2.2
	블루칼라	68.6	26.4	5.0
	자영업	73.6	21.1	5.3
	농/임/어업	50.0	33.3	16.7
	주부	69.0	26.4	4.5
	은퇴자	59.4	25.0	15.6
	무직/기타	57.1	24.5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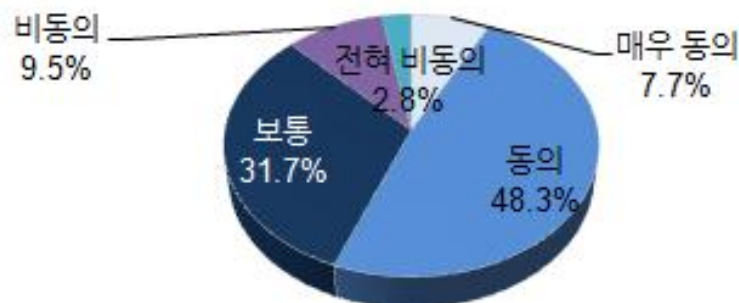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보험 상품의 특성상 개인정보 제공수준이 타 금융기관과 달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동의 + 매우 동의)’는 답변이 56.0%로 나타남.

○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비동의 + 전혀 비동의)’는 의견은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이라는 의견은 31.7%를 차지함.

〈그림 IV-50〉 보험 상품의 개인정보 제공수준과 타 금융기관과 차별성

(N=1,200)



〈표 IV-90〉 보험 상품의 개인정보 제공수준과 타 금융기관과 차별성

(단위: %)

특성별		동의	보통	비동의
전체		56.0	31.7	12.3
성별	남성	55.8	32.0	12.2
	여성	56.2	31.3	12.5
응답자 연령	20대	58.8	30.2	11.1
	30대	58.6	29.3	12.1
	40대	57.1	31.0	11.9
	50대	57.2	30.5	12.3
	60대 이상	49.2	36.8	14.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59.2	34.6	6.3
	블루칼라	53.9	28.3	17.8
	자영업	57.5	30.8	11.7
	농/임/어업	50.0	33.3	16.7
	주부	58.3	31.4	10.3
	은퇴자	46.9	34.4	18.8
	무직/기타	34.7	38.8	26.5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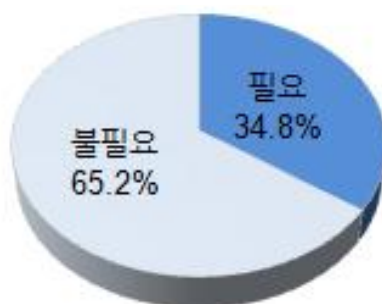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5.2%로 나타남.

○ ‘필요하다’는 의견은 34.8%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약 2배 정도 많았음.

○ 한편, 연령별로는 30대에서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5%로 다른 계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그림 IV-51〉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필요성

(N=1,200)



〈표 IV-91〉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필요성

(단위: %)

특성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체		34.8	65.2
성별	남성	34.4	65.6
	여성	35.2	64.8
응답자 연령	20대	37.7	62.3
	30대	43.5	56.5
	40대	35.1	64.9
	50대	32.2	67.8
	60대 이상	26.7	73.3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9.0	61.0
	블루칼라	35.7	64.3
	자영업	33.1	66.9
	농/임/어업	16.7	83.3
	주부	35.5	64.5
	은퇴자	28.1	71.9
	무직/기타	22.4	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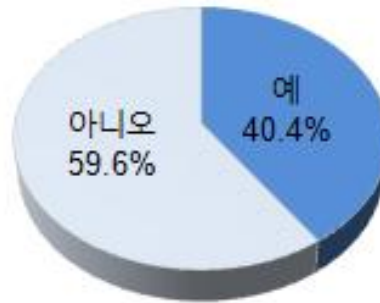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40.4%, 구매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59.6%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여성(39.5%)보다는 남성(41.4%)이, 높은 연령대 보다는 낮은 연령대가 보험 상품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52〉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구매의향

(N=418)



〈표 IV-92〉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구매의향

(단위: %)

특성별		예	아니오
전체		40.4	59.6
성별	남성	41.4	58.6
	여성	39.5	60.5
응답자 연령	20대	57.3	42.7
	30대	42.3	57.7
	40대	40.4	59.6
	50대	39.5	60.5
	60대 이상	20.3	79.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50.9	49.1
	블루칼라	38.0	62.0
	자영업	39.8	60.2
	농/임/어업	100.0	0.0
	주부	31.4	68.6
	은퇴자	33.3	66.7
	무직/기타	36.4	63.6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부 록: 설문지



코리아리서치

137-886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161 TEL: (02)3415-5100, FAX: (02)556-9880, <http://WWW.KR.CO.KR>

201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매년 보험연구원이 소비자의 금융/보험 수요를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파악된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 추세는 보험회사들의 상품 설계, 마케팅 정책 등 경영전략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및 개선이 예상됩니다.

본 조사 자료는 통계처리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주소	※ 응답자 주소의 시/군/구까지 적어 주세요.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면접날짜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분까지

SQ1.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SQ2.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군지역						
SQ3. 성	① 남성 ② 여성						
SQ4. 결혼 여부	① 기혼 ② 미혼						
SQ5. 세대주 여부	○○님께서는 현재 ○○님 가구의 가구주이십니까? ① 예(가구주) ② 아니오(가구원)						
SQ6. 연령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본인 연령을 가구주 란에도 기재해 주세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본인 (만 ____ 세) ☞ 만 20세 미만 면접 중단 </td> <td style="width: 50%;"> 가구주 (만 ____ 세) ☞ 만 20세 미만 면접 중단 </td> </tr> </table>					본인 (만 ____ 세) ☞ 만 20세 미만 면접 중단	가구주 (만 ____ 세) ☞ 만 20세 미만 면접 중단
본인 (만 ____ 세) ☞ 만 20세 미만 면접 중단	가구주 (만 ____ 세) ☞ 만 20세 미만 면접 중단						
SQ7. 가족 구성원	○○님 가구의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인 가구 ② 다인 가구 → 총 가족수: (____ 명) / 자녀수: (총 ____ 명 = 아들 ____ 명 + 딸 ____ 명)						

♠ 생명보험 가입실태 ♠

문1. 본인을 포함하여 ○○님 택(가구)에서는 현재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2번으로 ② 없다 ☞ 문12번으로

문2. (문1에서 ①번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하여 ○○님 택(가구)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 종류와 가입한 보험 상품별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건수
2-1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암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2-2	재해중점보장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2-3	종신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2-4	저축성보험(저축중심, 보장성 저축)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2-5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2-6	교육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2-7	치명적 질병보험(CI)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2-8	변액보험	변액연금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변액유니버설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변액종신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문3. ○○님 본인을 포함한 ○○님 택(가구)에서 가입하신 생명보험에서 다음 항목 (위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 ① 중증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② 일반질병 ③ 성인병(당뇨, 고혈압 등)
 ④ 상해 ⑤ 치매 ⑥ 사망
 ⑦ 저축(연금 포함) ⑧ 교통사고(자동차, 기타 교통)
 ⑨ 재산손실 ⑩ 자녀(18세 미만)에 대한 보장
 ⑪ 기타 ⑫ 지급받은 경험 없음 **☞ 문6번으로**

문4. (문3에서 ①~⑪번 응답자만) 보험금 지급 신청절차나 과정에서 가입당시 설계사나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 ① 예 **☞ 문4-1번으로** ② 아니오 **☞ 문5번으로**

문4-1. (문4에서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해당 보험설계사나 직원의 도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하는 편 ③ 보통
 ④ 만족하는 편 ⑤ 매우 만족

문5. 보험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 ① 3일 이하 ② 3일 초과~2주일 이하 ③ 2주일 초과~2개월 이하
 ④ 2개월 초과~6개월 이하 ⑤ 6개월 초과

문6. ○○님(본인)께서는 현재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7번으로** ② 없다 **☞ 문12번으로**

문7. (문6에서 ①번 응답자만) ○○님(본인)께서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 종류와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경로(보기1)와 가입이유(보기2)를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목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경로와 가입이유는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가입 경로 (보기1)	가입 이유 (보기2)
7-1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암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건		
7-2	재해중점보장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건		
7-3	종신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건		
7-4	저축성보험(저축중심, 보장성 저축)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건		
7-5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건		
7-6	교육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건		
7-7	치명적 질병보험(CI)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건		
7-8	변액보험	변액연금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건	
		변액유니버설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건	
		변액종신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건	

(보기1) 가입 경로

- | | |
|-----------------------|---------------|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 ② 대형법인대리점(GA) |
|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 ④ 인터넷 |
|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⑥ 은행, 증권회사 등 |
|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 ⑧ 대형 할인점 |
| ⑨ 기타(직접기재 : _____) | |

(보기2) 가입 이유

- | | |
|--------------------|-----------------------|
| ① 위험에 대비한 보장 | ②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
| ③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 ④ 노후자금 마련 |
| ⑤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 ⑥ 타 금융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
| ⑦ 기타(직접기재 : _____) | |

문8. ○○님(본인)께서 최근 3년 내(2011년~2013년) 가입하신 생명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회사(보기3)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시 기대했던 상품 내용(가격 및 서비스 등 전반적 만족도) 대비, 가입 후 실제 상품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목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최근 3년내 가입하신 상품이 없으시면 문9번으로 가세요.

보험 상품 종류			가입 회사 (보기3)	가입 상품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8-1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암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8-2	재해중점보장보험			①	②	③	④	⑤
8-3	종신보험			①	②	③	④	⑤
8-4	저축성보험(저축중심, 보장성 저축)			①	②	③	④	⑤
8-5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②	③	④	⑤
8-6	교육보험			①	②	③	④	⑤
8-7	치명적 질병보험(CI)			①	②	③	④	⑤
8-8	변액보험	변액연금		①	②	③	④	⑤
		변액유니버설		①	②	③	④	⑤
		변액종신		①	②	③	④	⑤
(보기3) 보험 회사								
①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② 삼성생명 ③ 교보생명								
④ 흥국생명 ⑤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⑥ 신한생명 ⑦ 동부생명								
⑧ 동양생명 ⑨ 우리아비바(구 LIG생명) ⑩ KDB생명 ⑪ 미래에셋생명								
⑫ 하나HSBC(구 하나생명) ⑬ 카디프생명(구 SH&C생명) ⑭ KB생명								
⑮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⑯ IBK연금보험 ⑰ NH농협생명								
⑱ 알리안츠생명 ⑲ 메트라이프생명 ⑳ PCA생명㉑ ACE생명(구 뉴욕생명)								
㉒ ING생명 ㉓ AIA생명(구 AIG생명) ㉔ 라이나생명 ㉕ 푸르덴셜생명								
㉖ 우체국 ㉗ 새마을금고 등 기타공제								
㉘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9.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으로 1점에서 5점 사이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생명보험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9-1	(자세한 설명, 친절한 태도, 신속한 계약절차 등) 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9-2	(건강정보 서비스, 지속적 관심 등) 계약을 유지하는 중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9-3	☞ 문3에서 ①~⑪ 응답자만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보상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문10. ○○님(본인)께서는 보험사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다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다른 생명보험회사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문11-1번으로**

② 아니오 **문11-2번으로**

문11-1. (문10에서 ①번 응답자만)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하면 보험사를 변경하시겠습니까?

(매월 내는 보험료에 _____%가 저렴하면 변경하겠다)

문11-2. (문10에서 ②번 응답자만) 보험사를 변경하지 않으시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회사에 대한 신뢰성 ② 상품을 권유해준 사람과 인간적 관계
 ③ 제공된 서비스 만족 ④ 회사의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
 ⑤ 사회적 책임활동(공익을 위한 활동) ⑥ 기타()

문12. ○○님(본인)께서는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시(보험가입 의향 ③, ④번 응답자) 어느 경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보험 상품별로 가입 의향과 선호하는 가입경로(보기4), 선호이유(보기5) 2가지를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향후 보험 가입 의향				선호 가입경로 (보기4)	선호 이유(보기5)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이유1	이유2
12-1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암보험 등)		①	②	③	④			
12-2	재해중점보장보험		①	②	③	④			
12-3	종신보험		①	②	③	④			
12-4	저축성보험(저축중심, 보장성 저축)		①	②	③	④			
12-5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②	③	④			
12-6	교육보험		①	②	③	④			
12-7	치명적 질병보험(CI)		①	②	③	④			
12-8	변액보험	변액연금	①	②	③	④			
		변액유니버설	①	②	③	④			
		변액종신	①	②	③	④			

(보기4) 선호 가입 경로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② 대형법인대리점(GA)
-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④ 인터넷
-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⑥ 은행, 증권회사 등
-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⑧ 대형 할인점
- ⑨ 기타(직접기재 : _____)

(보기5) 선호 이유

- ① 가입이 편리해서 ② 가격이 저렴해서
- ③ 정보획득이 용이해서 ④ 재무설계 등의 전문성 때문에
- 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⑥ 권유자와의 친분 때문에
- ⑦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⑧ 기타(직접 기재 : _____)

문13.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을 거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문14. ○○님(본인)께서 향후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상품 경쟁력(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 반영)
- ② 보험회사 브랜드의 신뢰성
- ③ 가격 경쟁력 ④ 개인적 관계(가족, 친구 및 동료의 권유)
- ⑤ 서비스 지원(계약, 보상 등) ⑥ 과거 거래경험
- ⑦ 회사 규모 ⑧ 계약체결의 편의성
- ⑨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⑩ 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 ⑪ 기타()

♠ 손해보험 가입실태 ♠

문15. ○○님 본인을 포함하여 ○○님 댁(가구)에서는 현재 가입한 손해보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16번으로

② 없다  문24번으로

문16. (문15에서 ①번 응답자만) ○○님 본인을 포함한 ○○님 댁(가구)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가입한 보험 상품별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건수
16-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16-2	장기손해보험	상해(운전자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건강(의료비, 질병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종합(재물+상해)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저축성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어린이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16-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1년 이내)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16-4	통합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16-5	기타 (직접기재 : _____)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문17. ○○님 본인을 포함한 ○○님 댁(가구)에서 가입하신 손해보험에서 다음 항목(위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중증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② 일반질병 ③ 성인병(당뇨, 고혈압 등)
 ④ 상해 ⑤ 치매 ⑥ 사망
 ⑦ 저축(연금 포함) ⑧ 교통사고(자동차, 기타 교통)
 ⑨ 재산손실 ⑩ 자녀(18세미만)에 대한 보장 ⑪ 기타
 ⑫ 지급받은 경험 없음

* **교통사고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은 경우도 포함**

문18. ○○님(본인)께서는 현재 가입한 손해보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19번으로

② 없다  문24번으로

문19. (문18에서 ①번 응답자만) ○○님(본인)께서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경로(보기1)와 가입이유(보기2)를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목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경로와 가입이유는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보험상품종류		가입 여부	가입건수	가입 경로 (보기 1)	가입 이유 (보 기2)
19-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19-2	장기 손해 보험	상해(운전자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건강(의료비, 질병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종합(재물+상해)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저축성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어린이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19-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1년이내)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19-4	통합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19-5	기타(직접기재 : _____)	① 가입 ② 비가입	_____건		

(보기1) 가입 경로

- | | |
|-----------------------|---------------|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 ② 대형법인대리점(GA) |
|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 ④ 인터넷 |
|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⑥ 은행, 증권회사 등 |
|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 ⑧ 대형 할인점 |
| ⑨ 기타(직접기재 : _____) | |

(보기2) 가입 이유

- | | |
|--------------------|-----------------------|
| ① 위험에 대비한 보장 | ②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
| ③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 ④ 노후자금 마련 |
| ⑤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 ⑥ 타 금융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
| ⑦ 기타(직접기재 : _____) | |

문20. ○○님(본인)께서 최근 3년 내(2011년~2013년) 가입하신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회사(보기6)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시 기대했던 상품 내용(가격 및 서비스 등 전반적 만족도) 대비, 가입 후 실제 상품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목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최근 3년 내 가입하신 상품이 없으시면 문21번으로 가세요.

보험상품종류		가입 회사 (보기6)	가입상품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20-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1년 이내)		①	②	③	④	⑤
20-2	장기 손해 보험	상해(운전자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건강(의료비, 질병 등)	①	②	③	④	⑤
		종합(재물+상해)	①	②	③	④	⑤
		저축성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⑤
		어린이보험	①	②	③	④	⑤
20-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1년 이내)		①	②	③	④	⑤
20-4	통합보험		①	②	③	④	⑤
20-5	기타(직접기재 : _____)		①	②	③	④	⑤

(보기6) 보험 회사	
① 삼성화재	② 현대해상
③ LG손보(구 LG화재)	④ 동부화재
⑤ 메리츠화재(구 동양화재)	⑥ 한화손보
⑦ 롯데손보(구 대한화재)	⑧ MG손보(구 그린손보)
⑨ 흥국화재(구 흥국쌍용화재)	⑩ AIG손해보험(구 차티스, AHA손해보험)
⑪ 에이스(ACE)화재	⑫ NH농협손해보험
⑬ AXA손해보험(구 교보AXA손해보험, 구 교보자동차보험)	⑭ 더케이손해보험회사(구 교원나라 자동차보험)
⑮ 에르고다임다이렉트(구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⑯ 현대하이카다이렉트
⑰ 우체국	⑱ 기타공제
⑲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21. (문19-1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회사(손해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으로 1점에서 5점 사이로 평가해 주십시오.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는 문23번으로 가세요.

항목		자동차보험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21-1	(자세한 설명, 신속한 계약절차 등) 계약체결할 때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21-2	(날씨정보제공, 사고위험정보제공 등) 계약을 유지하는 중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21-3	☞ 사고 또는 보상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신속한 사고처리 등) 보상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문22. (문19-1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님께서는 연간 자동차보험료로 얼마를 내십니까?

※ 2대 이상일 경우, 1대당 평균 보험료로 응답해주세요.

(연간 1대 당 자동차보험료 _____만 원)

문23. (문19-1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자동차보험 가입 시 현재 보험회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보험료  문23-1번으로
- ② 자동차보험회사의 서비스와 신뢰도  문23-2번으로
- ③ 특별한 이유 없음  문23-3번으로

문23-1. (문23에서 ①번 응답자만) 현재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본인의 인터넷 검색
- ② 지인의 소개
- ③ 자동차보험회사의 광고(TV/라디오, 온라인 등)
- ④ 자동차보험회사의 전화 마케팅
- ⑤ 기타

문23-2. (문23에서 ②번 응답자만)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3-3. 비싸다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문23-4번으로(문항 로테이션)
- ② 아니오  문23-5번으로

문23-4. (문23-3에서 ①번 응답자만)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선생님께서 현재 내시는 연간 보험료에 비해서 1% 내외에서 저렴하다면 자동차보험회사를 변경하시겠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3-5. (문23-3에서 ②번 응답자만) 자동차보험회사를 변경하지 않으시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회사에 대한 신뢰성 ② 상품을 권유해준 사람과 인간적 관계
 ③ 제공된 서비스 만족 ④ 회사의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
 ⑤ 사회적 책임활동(공익을 위한 활동) ⑥ 기타()

문24. ○○님(본인)께서는 향후 1년 내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시(보험가입 의향 ③, ④번 응답자) 어느 경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보험 상품별로 가입 의향과 선호하는 가입경로(보기4), 선호이유(보기5) 2가지를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향후 보험 가입 의향				선호 가입경로 (보기4)	선호 이유(보기5)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이유1	이유2
24-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②	③	④			
24-2	장기 손해 보험	상해(운전자보험 등)		①	②	③	④	
		건강(의료비, 질병 등)		①	②	③	④	
		종합(재물+상해)		①	②	③	④	
		저축성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어린이보험		①	②	③	④	
24-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등)	①	②	③	④			
24-4	통합보험	①	②	③	④			
24-5	기타(직접기재 : _____)	①	②	③	④			

(보기4) 선호 가입 경로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② 대형법인대리점(GA)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④ 인터넷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⑥ 은행, 증권회사 등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⑧ 대형 할인점
 ⑨ 기타(직접기재 : _____)

(보기5) 선호 이유

- ① 가입이 편리해서 ② 가격이 저렴해서
 ③ 정보획득이 용이해서 ④ 재무설계 등의 전문성 때문에
 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⑥ 권유자와의 친분 때문에
 ⑦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⑧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25.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을 거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26. ○○님(본인)께서 향후 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상품 경쟁력(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 반영)
 ② 보험회사 브랜드의 신뢰성
 ③ 가격 경쟁력 ④ 개인적 관계(가족, 친구 및 동료의 권유)
 ⑤ 서비스 지원(계약, 보상 등) ⑥ 과거 거래경험
 ⑦ 회사 규모 ⑧ 계약체결의 편의성
 ⑨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⑩ 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⑪ 기타()

♠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

문27. ○○님께서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함 ② 건강함 ③ 보통 ④ 건강하지 않음 ⑤ 전혀 건강하지 않음

문28. ○○님께서는 향후 본인의 부모님을 부양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매우 있다 ② 어느 정도 있다 ③ 보통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문29. ○○님께서는 향후 은퇴후 자녀의 부양을 받을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매우 있다 ② 어느 정도 있다 ③ 보통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문30. ○○님께서서는 향후 자녀로부터 용돈 및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문31. ○○님 댁(가구)에서 현재 보유하신 금융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일 예로 답하신 경우 각 항목별 중요도를 10점 만점(매우 중요할 경우 1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경우 1점)으로 표시해 주세요.

금융상품		가입 여부	중요도
31-1	은행 예적금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1-2	보험회사 저축보험/연금보험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1-3	연금저축(은행) 또는 연금펀드(증권)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1-4	주식 또는 채권(펀드)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1-5	부동산 임대수입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1-6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문32. ○○님께서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일 예로 답하신 경우 각 항목별 중요도를 10점 만점(매우 중요할 경우 1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경우 1점)으로 표시해 주세요.

금융상품		가입 의향	중요도
32-1	공적연금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2-2	퇴직연금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2-3	은행 예적금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2-4	보험회사 저축보험/연금보험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2-5	연금저축(은행) 또는 연금펀드(증권)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2-6	주식 또는 채권(펀드)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2-7	부동산 임대수입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2-8	노후 근로소득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2-9	자식의 경제적 지원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2-10	주택연금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32-11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_____ 점

문33. ○○님께서는 본인이 평가하시기에 노후준비를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하고 있다 [☞ 문34번으로](#) ② 잘 하고 있다 [☞ 문34번으로](#)
 ③ 보통이다 [☞ 문34번으로](#) ④ 잘 못하고 있다 [☞ 문33-1번으로](#)
 ⑤ 전혀 못하고 있다 [☞ 문33-1번으로](#)

문33-1. (문33에서 ④, ⑤번 응답자만) 그러면, ○○님께서는 노후준비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로 2개만 선택해 주

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과도한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 양육비 때문
 ② 근로기간은 짧고 수명은 연장되어
 ③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해서 ④ 과도한 주택마련 자금
 ⑤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부족 ⑥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⑦ 자동차, 가구 등의 내구재 구입 ⑧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적립액 감소
 ⑨ 투자실패나 사업실패 ⑩ 기타

문34. 본인을 포함한 ○○님 택(가구)에서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연금 보험 상품별 가입 여부와 보험료, 가입 금융회사를 말씀해 주세요. 아울러 만족도를 보기 중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자 ¹⁾ (복수응답)	납입 보험 료 (월)	가입 금융회 사 (보기7) (월)	만족 도
34-1	국민연금	①가입②비가입	①본인②가족	만 원		
34-2	기타공적연금 (공무원·교직원·군인연금)	①가입②비가입	①본인②가족	만 원		
34-3	직장의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①가입②비가입	①본인②가족			
34-4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보험회사, 은행, 투신, 농협 등)	①가입 ②비가입 문35번	①본인②가족	만 원		

※1) 「가입자」 기재란에서 ‘②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기준을 의미하며, 본인과 가족이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①본인 ②가족’ 모두 표기하고, 납입보험료는 합산한 금액 기준.

(보기7) 가입 금융회사	
① 은행 ② 생명보험회사(농협생명 포함) ③ 손해보험회사 ④ 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 ⑤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 ⑥ 기타(직접기재: _____)	

만족도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①-----	②-----③-----	④-----⑤

문34-5. (문34-1, 만족도에서 ①,②응답자만) 그러면, 국민연금에 불만족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예상 연금액이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 ② 국민연금의 재정불안 때문에
- ③ 기금운용의 부실 때문에 ④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 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부족 때문에
- ⑥ 연령에 따른 급여수준과 수급연령의 형평성 때문에
- ⑦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도입 때문에
- ⑧ 국민연금제도의 낮은 변경 때문에 ⑨ 기타()

문34-6. (문34-4, 만족도에서 ①,②응답자만), 그러면 개인연금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① 예상 연금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 ② 가입 금융회사의 부실화 우려 때문에
- ③ 수익률이 낮아서 ④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 ⑤ 가입 금융회사의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⑥ 계약 유지 및 관리에 대한 편의성 부족 때문에
- ⑦ 세제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⑧ 기타()

문35. ○○님께서 향후 퇴직연금에 가입하신다면 어떠한 종류에 가입하실 생각이십니까?

-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기업의 적립금 운용 책임하에 최종 연금급여가 확정된 연금제도)
-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에 따라 연금급여가 변동하는 연금제도)

문36. ○○님께서 현재 또는 향후 퇴직연금 가입시 적립금을 투자하신다면 어떠한 투자조합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 ① 원리금보장형(예금상품 등) ② 채권형(채권 60% 이상)
- ③ 채권혼합형(주식 0-40%) ④ 주식혼합형(주식 41-60%)
- ⑤ 주식형(61% 이상)

♠ 금융역량 및 보험이해도 ♠

※ 다음은 귀하의 금융이해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37. ○○님(본인)께서 저축예금계좌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이자율은 연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님(본인)께서 이 돈을 계좌에 그대로 놔두고 추가적인 예금을 하지 않는다면, 5년 후 저축예금계좌의 잔액은 얼마일까요?

- ① 102만 원 초과 ② 102만 원 ③ 102만 원 미만 ④ 잘 모르겠다

문38. ○○님(본인)의 저축예금계좌의 이자는 연 1%이고 물가상승률은 연 2%라고 하겠습니다. 1년 후 동 계좌의 돈이 갖게 되는 구매력은 현재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증가할 것이다 ② 같을 것이다 ③ 감소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문39. 아래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시고, 각 항목에 응답에 대한 확신 정도를 보기와 같이 ‘전혀 불확실’하면 1점, ‘매우 확실’하면 5점으로 1에서 5점 사이로 평가해 주십시오.

보기	전혀 불확실	약간 불확실	보통	약간 확실	매우 확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설명 O/X		확신 정도
		맞음	틀림	
39-1	다양한 종목의 채권과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① O	② X	
39-2	일반적으로 단일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뮤추얼펀드를 구매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① O	② X	

문40. 투자 가능한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프로젝트는 같은 확률로 10%나 6%의 수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B프로젝트는 같은 확률로 12%나 4%의 수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괄호에 알맞은 설명입니까?

B프로젝트와 비교하여 A프로젝트는 ()

- ① 평균수익이 더 높고 리스크는 더 낮다
 ② 평균수익은 같고 리스크는 낮다
 ③ 평균수익이 더 낮고 리스크는 더 높다
 ④ 잘 모르겠다

문41. ○○님(본인)께서 판단하시기에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⑥ 잘 모르겠음

※ 다음은 귀하의 보험관련 지식 및 보험 용어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42. 보험과 관련하여 아래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시고, 각 항목에 응답에 대한 확신 정도를 보기와 같이 ‘전혀 불확실’하면 1점, ‘매우 확실’하면 5점으로 1에서 5점 사이로 평가해 주십시오.

보기	전혀 불확실 ①-----②-----보통-----④-----매우 확실 ⑤
----	---

항목		O/X		확신 정도
		맞음	틀림	
42-1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① O	② X	
42-2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수 있다	① O	② X	
42-3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① O	② X	
42-4	위험보험료는 보험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① O	② X	
42-5	해지된 보험계약은 본래 계약대로 부활될 수 있다	① O	② X	
42-6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난다	① O	② X	
42-7	보장내용이 동일할 때 A상품 보험료지수가 120이고 B상품 보험료지수가 110이면, A상품이 B상품보다 싸다	① O	② X	

※ 다음은 귀하의 재무관리 성향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43. 다음 문장이 ○○님(본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보기와 같이 ‘전혀 그렇지 않으면’ 1점, ‘언제나 그러하다면’ 5점으로 1에서 5점 사이로 평가해 주십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음 ①-----②-----어느 정도 그러함 ③-----④-----언제나 그러함 ⑤
----	--

	항목	정도
43-1	무엇인가 구매하기 전에 내가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한다	
43-2	나는 각종 청구서들을 납부기한 내에 잘 지불한다	
43-3	장기 재무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43-4	나는 소득 중 지출, 저축, 청구서 지불 등을 위한 몫을 가지고 계획한 예산을 세우고 그에 따라 소득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 LTCI (Long term care insurance)의 가입성향과 한계 요인 분석 ♠

※ 다음은 우리나라 간병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행 간병제도는 크게 두 가지, 즉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장애등급을 평가한 뒤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비용은 정부 보조와 본인 부담금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영간병보험은 치매 등 피보험자가 장기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간병서비스나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문44. ○○님께서서는 향후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45번으로**

문44-1. ○○님께서서는 향후 민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매우 많다

문44-2. ○○님께서 보험회사가 장기간병보험 가입자에게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직접 간병인을 제공하고 간병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현물서비스 급부상품을 출시한다면 이를 이용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매우 많다

문44-3. (문44-1에서 ③, ④ 응답자만) 간병보험에 가입하실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 가족 (부모님 또는 자식) 또는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 중에서 장기간병을 경험해서
 ②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지인 중에 장기간병비 지출로 자신의 저축이나 예금을 다 소진한 사례를 봐서
 ③ 간병비가 가족에게 줄 부담이 걱정되기 때문
 ④ 기타 ()

문44-4. (문44-1에서 ①, ② 응답자만)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내가 든 보험이나 예금 등 노후준비로 내가 간병이 필요할 때 언제 든 간병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③ 간병보험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④ 민영 간병보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⑤ 자식들이나 친인척 또는 지인들이 충분히 나의 수발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⑥ 기타 ()

문45. 다음 중에서 간병보험 가입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보험료 수준 ② 보장범위 ③ 보장기간
 ④ 보험회사의 명성 ⑤ 브랜드 이미지 ⑥ 지인들의 추천
 ⑦ 기타 ()

문46.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발생시 전문 간병시설 입소 비용 등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 중 누

군가가 간병서비스를 받아야해 간병비를 지출해야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본인이 고려할 사항에 대해 보기와 같이 ‘전혀 없다’ 1점, ‘매우 많다’ 4점으로 1에서 4점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문제	평가
46-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지원	_____점
46-2 민영 간병보험에 가입	_____점
46-3 은퇴재무설계사와 상의	_____점
46-4 보험설계사와 상의	_____점
46-5 자식이나 지인들과 상의	_____점
46-6 본인 스스로 장기간병제도와 관련된 정보 수집	_____점
46-7 보유주택을 매각	_____점
46-8 장기요양시설에 입주	_____점

문47. 미래 자신의 간병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간병 보험에 가입한다면 언제를 가입시기로 고려하고 계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⑦ 80대

문48.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떤 형태의 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래의 4개 상품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주십시오. 그리고 각 상품에 대한 본인이 고려할 사항에 대해 보기와 같이 ‘전혀 없다’ 1점, ‘매우 많다’ 4점으로 1점에서 4점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상품설명	평가
① 단독 정액형 치매나 중증 장애로 장기적으로 간병비를 지출해야할 경우 하루에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실손형 보다 싸지만 보장금액이 낮을 수 있음	_____점
② 단독 실손형 치매나 중증 장애로 장기적으로 간병비를 지출해야할 경우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장금액이 큰 반면에 보험료가 정액형보다 상당히 비쌀 수 있음	_____점
③ 생명보험 상품과 연계된 복합간병상품 간병비용 지출 발생시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장기요양보험 수령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간병 보험비로 지급받는 방식	_____점
④ 연금상품과 연계된 복합간병상품 연금개시 시점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종신, 확정, 상속, 장기간병 중 하나의 형태로 연금을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상품	_____점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 3순위 : _____ , 4순위 : _____

보기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 우리나라 보험소비자의 은퇴자산 선택행위에 관한 분석 ♠

문49. ○○님께서서는 노후생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노후소득은 현재 소득 수준의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의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저축에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하여 계산

(현재 월 소득의 %)

문50. ○○님께서서는 노후소득 마련을 위해 현재 얼마 정도를 저축하고 계십니까?

(매월 만 원)

문51. ○○님의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의 얼마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노후소득의 %)

문52. 현재 ○○님께서 살고 계신 집의 거주형태와 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기의 경우 주택의 구입시기와 구입가격, 현재시가를 말씀해 주세요.

① 자가 (구입시기: 년도, 구입가격: 만 원, 현재시가: 만 원/ 대출금: 만 원)  문52-2번으로

② 전세 (보증금: 만 원)  문52-1번으로

③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만 원/ 월세: 만 원)  문52-1번으로

④ 보증금 없는 월세 (월세: 만 원)  문52-1번으로

문52-1. (문52에서 ②~④ 응답자만) ○○님께서서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으십니까? 가지고 있는 주택의 구입시기와 구입가격, 현재시가를 말씀해 주세요.

① 있다

(구입시기: 년도, 구입가격: 만 원, 현재시가: 만 원/ 대출금: 만 원)

② 없다

문52-2. 실례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의 구입시기와 구입가격, 현재시가를 말씀해 주세요.

- ① 있다(구입시기: 년도, 구입가격: 만 원, 현재시가: 만 원)
② 없다  문54번으로

문53.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수령해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주택연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관련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기와 같이 ‘전혀 없다’ 1점, ‘매우 많다’ 4점으로 1에서 4점 사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문제		평가
53-1	○○님께서 향후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의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___점
53-2	○○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식에게 상속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___점
53-3	○○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 후 현재보다 작은 평수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___점
53-4	○○님께서 매각 후 전문요양기관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___점

문53-5. (문53-3과 문53-4에서 ③, ④ 응답자만) 은퇴 후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낮춘다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① 31~40% 이하 ② 41~50% 이하 ③ 51~60% 이하
④ 61~70% 이하 ⑤ 71~80% 이하

문54. 향후 은퇴 후 전체 자산에서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은 무엇입니까?

- ① 예·적금 및 저축 ② 보험 ③ 주식투자 ④ 부동산 ⑤ 기타()

문55.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 규모는 어느 정도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 ① 20~25평 미만 ② 25~30평 미만 ③ 30~35평 미만
④ 35~40평 미만 ⑤ 40~50평 미만 ⑥ 50평 이상

문56. 은퇴 후 본인이 거주하길 선호하는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다세대주택/연립주택
④ 전원주택/타운하우스 ⑤ 전문요양시설 ⑥ 기타()

♠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변화 인지 여부 ♠

문57. 올해부터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세대상 소득액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을 차감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부터 연금저축액의 12%의 금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세액공제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있다  문57-1번으로
② 모른다  문57-2번으로
③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문57-2번으로

문57-1. 제도의 변화를 알고 계신다면, 변화된 제도로 인해 ○○님께서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 시 받을 세제혜택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늘어났다 ② 줄어들었다 ③ 모르겠다

문57-2.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제도의 변화로 인해 세제적격 개인연금납입액의 증액 혹은 감액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 ① 변화 없다
② 증액하겠다
③ 감액하겠다
④ 개인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았음

♠ 은퇴 이후 소득원에 대한 정보 ♠

문58.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은퇴 후 공적연금 혹은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으로부터 매달 받게 될 연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③ 공적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음

문59.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후 퇴직연금으로부터 매달 받게 될 연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③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문60.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은퇴 후 개인연금으로부터 매달 받게 될 연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③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탁의향에 대한 질문 ♠

문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구성이 은퇴 후를 대비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적절하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문62. 은퇴 후 자산이 적절한 수준 이상이라면 ○○님께서 자산관리를 위해 소정의 비용을 들여 금융기관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62-1번으로 ② 조금 있다  문62-1번으로
③ 없다  문63번으로

문62-1. (문62에서 ①, ②로 응답한 경우) 은퇴 후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기관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형태를 선호 하십니까?

- ① 자산의 일정부분 투자에 대한 조언을 받는 형태
② 자산의 일정부분 투자를 위탁하는 형태
③ 투자 및 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조언을 받는 형태
④ 투자 및 자산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형태
⑤ 모름

문62-2. 금융기관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 은행 ② 증권사 ③ 보험사 ④ 기타()

문62-3. 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뢰 할 수 있어서 ②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서
③ 안정적인 것 같아서 ④ 기타()

문63.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자산관리를 하실 계획이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② 자녀 혹은 지인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③ 위탁운용기관을 신뢰 할 수 없어서 ④ 수수료가 높을 것 같아서
⑤ 직접자산관리를 할 계획이 없음 ⑥ 기타()

문64. 자신의 금융 투자성향은 평소에 어떤 유형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격투자형 ② 중립투자형 ③ 안전투자형

♠ 해약/효력상실 해지 관련 질문 ♠

문65. (해약/효력상실 해지 여부) ○○님께서 최근 3년 이내 보험상품을 해약/효력상실 해지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65-1번으로) ② 아니오 (☞ 문68번으로)

※ 효력상실 해지는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65-1 ○○님께서 최근 3년 이내 해약/효력상실 해지한 상품 종류는 무엇이고 총 몇 건입니까?

- ① 생명보험 (건) (☞ 문66번으로)
② 손해보험 (건) (☞ 문67번으로)
③ 생명보험 (건), 손해보험(건) (☞ 문66, 67번 모두 응답)

※ [생명보험] 먼저 생명보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해약/효력상실 해지한 보험이 두 개 이상 있으면 가장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66. [생명보험] ○○님께서 보험상품을 해약/효력상실 해지한 상품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상품에 V표시 하세요.

문66-1. [생명보험] 그 해약/효력상실 해지한 보험은 가입 후 몇 개월간 유지되었던 것입니까?

문66-2. [생명보험] ○○님께서 보험상품을 해약/효력상실 해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항목들에서 중요한 사유 순서에 따라 두 가지를 골라 아래 표에 기입해 주세요.

- ①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워(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
- ② 목돈이 필요해서 ③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보험은 손해라 생각해서
- ④ 보험가입 시 생각한 보장 내용이 실제와 달라서(설계사의 말과 보험의 보장내용이 달라서)
- ⑤ 의리상 어쩔 수 없이 가입했으므로
- ⑥ 보험료에 비해 수령하는 보험금이 적어서
- ⑦ 기간이 너무 길어서 ⑧ 보상이 중복되어서
- ⑨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유가 사라져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66. 생명보험 상품 종류		66-1. 계약유지기간	66-2 해지사유
① ____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암보험 등)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② ____	재해중점보장보험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③ ____	종신보험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④ ____	저축성보험(저축중심, 보장성 저축)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⑤ ____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⑥ ____	교육보험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⑦ ____	치명적 질병보험(CI)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⑧ ____	변액보험	변액연금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⑨ ____		변액유니버설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⑩ ____		변액종신	____개월 1순위() 2순위()

※ [손해보험] 다음은 손해보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해약/효력상실 해지한 보험이 두 개 이상 있으면 가장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67. [손해보험] ○○님께서 보험상품을 해약/효력상실 해지한 상품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상품에 V표시 하세요.

문67-1. [손해보험] 그 해약/효력상실 해지한 보험은 가입 후 몇 개월간 유지되었던 것입니까?

문67-2. [손해보험] ○○님께서 보험상품을 해약/효력상실 해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항목들에서 중요한 사유 순서에 따라 두 가지를 골라 아래 표에 기입해 주세요.

- ①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워(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
- ② 목돈이 필요해서
- ③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보험은 손해라 생각해서
- ④ 보험가입 시 생각한 보장 내용이 실제와 달라서(설계사의 말과 보험의 보장내용이 달라서)
- ⑤ 의리상 어쩔 수 없이 가입했으므로
- ⑥ 보험료에 비해 수령하는 보험금이 적어서
- ⑦ 기간이 너무 길어서
- ⑧ 보상이 중복되어서
- ⑨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유가 사라져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67. 손해보험 상품 종류		67-1. 계약유지기간	67-2. 해지사유
① ____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② ____	장기손해 보험	상해(운전자보험 등)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③ ____		건강(의료비, 질병 등)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④ ____		종합(재물+상해)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⑤ ____		저축성보험(개인연금 포함)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⑥ ____		어린이보험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⑦ ____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1년 이내)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⑧ ____	통합보험	____개월	1순위() 2순위()
⑨ ____	기타 (직접기재 : _____)	____개월	1순위() 2순위()

♠ 개인정보 보호 ♠

문68. ○○님께서서는 보험상품을 가입하실 때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준이 상품 구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많음 ② 어느 정도 있음 ③ 보통 ④ 별로 없음 ⑤ 전혀 없음

문69. ○○님께서서는 보험상품 가입 시 제공하신 개인정보 보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문70. ○○님께서서는 보험상품 구입 시 불편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강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어느 정도 필요 ③ 보통
④ 별로 필요없음 ⑤ 전혀 필요없음

문71. ○○님께서서는 보험상품 특성 상 개인정보 제공 수준이 다른 금융기관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보통 ④ 동의하지 않음 ⑤ 전혀 동의 안함

문72. ○○님께서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문72-1번으로 ② 필요 없다  DQ1번으로

문72-1. (문72번에서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상품이 출시될 경우 구매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 ① 예 ② 아니요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DQ1. ○○님 본인과 세대주의 직업은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과 세대주의 직업을 동일하게 작성

본인 : () / 세대주 : ()

- ① 임금 근로자  DQ1-1번으로 ② 자영업자  DQ1-2번으로
③ 주부 ④ 은퇴자 ⑤ 무직/기타 ⑥ 모름/무응답

DQ1-1. (DQ1에서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십니까?

본인 : () / 세대주 : ()

- ① 경영/관리직 ② 전문/자유직 ③ 사무/기술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생산/기능직 ⑥ 단순노무
⑦ 농/임/어업

DQ1-2. (DQ1에서 ②번 응답자만) 그럼,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본인 : () / 세대주 : ()

- ① 제조업 ② 도매 및 소매업 ③ 운수업
④ 숙박 및 음식점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 및 임대업
⑦ 교육 서비스업 ⑧ 개인 서비스업(세탁소, 이·미용실 등)
⑨ 기타()

DQ2. 실례하지만, ○○님 본인과 세대주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DQ2-1. 본인의 학력	DQ2-2. 세대주의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대학생) 이상 ④ 모름/무응답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대학생) 이상 ④ 모름/무응답

*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과 세대주의 학력을 동일하게 작성

DQ3 ○○님의 개인 연간 총수입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십니까?(보너스 등 기타 수입 포함)

(만 원)

DQ4. 귀하의 소득을 포함한 ○○님 맥(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십니까?(보너스 등 기타 수입 포함)

(_____ 만 원)

DQ4-1. ○○님 맥(가구)의 연간 총수입 가운데 얼마정도를 저축 또는 투자 (납입보험료 포함)하고 계십니까?

(연간 총수입의 _____ %)

DQ5.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님 맥(가구)의 한 달 납입보험료는 얼마나 되십니까?

(월간 _____ 만 원)

DQ6. 가구주의 성별은 무엇입니까?(응답자가 가구주일 경우 본인 성별 기준 응답)

- ① 남성 ② 여성

DQ7. ○○님 맥(가구)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는 현재 어떤 신분입니까?

(2인 이상일 경우 복수응답 가능)

- ① 미취학자녀
 ② 초, 중, 고생
 ③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④ 생업종사(근로 혹은 사업 등)
 ⑤ 군 복무
 ⑥ 기타
 ⑦ 자녀 없음

※ 여기에서 가구는 동일 거처에 생계를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단위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외지에 살고 있는 가족(주말부부, 학생, 군인 등)도 포함됩니다.

DQ7_1. ○○님 맥(가구)에 최근 1년 동안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이십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인 이상 ⑥ 없음

DQ7_2. ○○님 댁(가구)의 가구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인 가구
- ② 부부가구
- ③ 부부와 자녀
- ④ 한부모와 자녀(이혼이나 사별로 한 쪽 부모만 함께 사는 경우)
- ⑤ 3세대 가구(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 ⑥ 4세대 이상
- ⑦ 조손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 ⑧ 비친족가구
- ⑨ 기타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점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익, 김동점,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강민규, 이해량 2014.8

■ 연차보고서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영문발간물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전 용 식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ongsik.jeon@kiri.or.kr)

변 혜 원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hw.byun@kiri.or.kr)

정 원 석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originalstone@kiri.or.kr)

박 선 영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young1002@kiri.or.kr)

오 승 연

University of Massachusetts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oh@kiri.or.kr)

이 상 우

홍익대학교 보험학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swlee@kiri.or.kr)

최 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조사보고서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발행일 2014년 8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12-1

정가 10,000원

